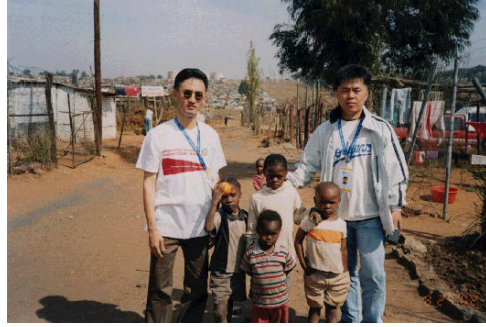


한국환경회의팀 요하네스버그 활동 사진



<Ubuntu Village>



<빈민가인 Soweto 아이들과 함께>



<숙소 앞에서>



<Sun City 인근 사파리>



<Resedi 민속촌>



<한국환경회의팀 Daily Meeting>



<8월28일 Korean Day 행사장>



<덴마크 환경벤처기업과의 미팅>



<대만환경단체연합과의 미팅>



<한국 민간위 전체 브리핑시간>

환경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보고서

WSSD 국제동향 교육 및 요하네스버그회의 파견

2002 년 4 월~10 월

▪ 공동주최 ▪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목 차 ■

I. 환경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소개 ----- 1

II. WSSD 관련 워크샵

1. WSSD 준비 2 차세미나 (PCSD) ----- 3
2. WSSD 2 차 준비세미나 (UNEP) ----- 6
3. WSSD 준비 워크샵 (여성환경회의) ----- 8
4. WSSD 준비 심포지움 (한국민간위원회) ----- 10

III. WSSD 교육

1. 차명제 (리우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 환경과 개발논쟁을
중심으로) ----- 13
2. 조소라 (지속가능한 개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환경보전)
----- 24
3. 이창우 (WSSD 와 Local Agenda 21) ----- 30
4. 박은경 (세계 여성 환경운동의 어제와 오늘) ----- 40

IV. WSSD 요하네스버그회의 보고

1. WSSD 세계민간포럼 회의일정 ----- 51
2.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팀 활동보고(이상헌) ----- 51
3.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팀 참가자 명단 ----- 59
4. 참가자 보고서
1) 이상헌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NGO 의 활동과
향후과제) ----- 60
2) 강희영 (여성환경위원회 활동) ----- 66
3) 공정옥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와 우리의 과제) ----- 72
4) 김미경 (세계시민운동과 지역운동) ----- 76
5) 남은경 (WSSD 와 도시주거환경 활동전망) ----- 82
6) 배장환 (이제 다시 시작이다) ----- 88

7) 이숙례 (지속가능한 개발은 가능하다?) -----	91
8) 이정우 (지속가능한 교통과 WSSD) -----	96
9) 조윤미 (WSSD 한계와 가능성) -----	100
10)태영은 (WSSD 를 계기로 새롭게 바라본 환경문제) ----	104

[부록 1] WSSD 결과 및 향후 과제 (외교통상부) -----	110
[부록 2]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요하네스버그선언문(한글) ---	119
[부록 3] 지속가능한발전에 대한 요하네스버그선언문(영문) ---	124
[부록 4] WSSD 이행계획 (주요내용) -----	128

I. 환경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소개

사업명	환경활동가 교육프로그램 -WSSD 국제동향 교육 및 국제회의(요하네스버그) 파견
사업기간	2002. 4 ~ 10 월
주최	환경사회단체회의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공동주최
대상	한국 환경활동가 10 명
사업취지 및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우리가 당면한 환경문제의 해결과 친환경적인 사회건설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감에 있어 환경주체로서의 개인의 자발적 각성과 그에 따른 범시민적 운동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환경문제는 한 나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환경 이외에도 다른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Global Agenda 에 대한 신속/정확한 이해가 환경활동가들에게 요구되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 따라서 본 사업을 통해, 범시민적 운동의 리더로 활동할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환경분야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여 현장 활동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특히 올해에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세계정상회의(WSSD)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6 만~10 만 참가예상) 환경활동가들이 이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그들의 운동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한다. ○ 본 사업은 2002 WSSD 요하네스버그 회의 참가를 시작으로 하여 환경활동가들을 국제적 리더로 양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자 한다.
추진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크게 3 개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한다. 1) 환경 및 WSSD 관련 워크샵 참석 2) 환경 관련 이슈 국내/외 동향 파악을 위한 교육 3) WSSD 요하네스버그 회의 참가

<p>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SSD 및 환경 관련 워크숍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에서 개최되는 WSSD 워크숍 참석 2) 국내에서 개최되는 환경 관련 국제회의 참석 ○ 환경 관련 이슈(Issue) 국내/외 동향파악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환경 관련 이슈 교육 2) 국외 환경 관련 이슈 교육 ○ WSSD 요하네스버그 회의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개회식 전원참석 2) 특정회의 전원참석 3) 2~3 워크숍 조별참석 4) 회의 종결후 미팅 5) 요하네스버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주요 환경단체 부스를 방문하여 활동내용, 애로사항 등을 듣는다. 또한 한국의 환경 운동에 대한 소개를 한다.
<p>사업효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업을 계기로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와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환경교육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환경활동가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 환경활동가들이 향후 한국시민운동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들이 환경분야에 대한 국내/외의 동향을 파악하고, 전문적 지식을 함양하여 현장 활동가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 WSSD 요하네스버그 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 시민사회 활동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외 NGO 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한국 시민사회 운동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다.

II. WSSD 관련 워크샵

‘2002 환경활동가 교육’의 주요 목표가 올해 가장 중요한 환경회의인 WSSD에 대한 이해를 통한 한국환경활동가들의 국제적 마인드 함양이기 때문에, 이들이 국내에서 개최되는 WSSD 관련 워크샵에 참석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동향을 분석하였다. 각 워크샵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WSSD 준비 2차 세미나

주최: PCSD
일시: 5.3(금) 14:00-18:00
장소: PCSD 강당 (불광동)

[프로그램]

- 14:00-14:10 개회식
인사말씀: 강문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 14:10-16:50 1부: WSSD 논의동향, 쟁점 및 정책대응
좌장: 박영숙 위원 (WSSD 실무위원장)
기조발제: 손성환 심의관 (외교통상부)
“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의의와 과제”
토론 1: 세계화와 빈곤문제, 재원조달
이찬근 교수 (인천시립대)
윤창인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토론 2: Good Governance에 대한 입장
이삼열 교수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장)
김혜경 사무총장 (지구촌 나눔운동)
토론 3: 파트너십/이니셔티브
조영숙 실장 (여성단체연합)
조명래 교수 (단국대)
이창호 전문위원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 16:50-18:00 2부: WSSD 참가대책과 주요그룹의 역할
사회: 김재옥 위원 (WSSD 실무위원,
Rio+ 10 한국민간위원회 공동대표)
- 각 영역별 발표: 진행상황, 역할, 과제 등
 - 참가준비상황 및 현지동향 보고 (홍준석 지속위 기획조정실장)
 - Rio+ 10 한국민간위원회 (남부원 상임집행위원장)
 - Rio+ 10 한국여성환경위원회 (이상영 여성환경연대운영위원장)
 -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김귀순 국제담당 자문위원)
 - 산업계 (엄기웅 대한상의 상무)
 - 전체토론: 참가대책, 협력 및 현안과제 등

[주요내용]

요약: 이용래 (녹색미래 지속가능사회팀장)

1.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의의와 과제 (손성화 심의관, 외교통상부)

국제사회는 지금 21 세기의 새로운 발전 모델로 “지속가능발전”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개발의 3 축을 균형있게 고려할 것을 요구하는 지속가능발전은 과거 경제성장 위주의 개발 패러다임을 버리고 환경과 빈곤, 보건 등 사회개발 측면도 동시에 고려한 균형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2002 년 9 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될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는 리우 회의 이후 10 년간 의제 21 에 따른 국제사회의 노력과 이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고, 리우회의 이후 세계화로 인해 변화된 환경에서 의제 21 의 이행을 가속화할 ‘정치적 선언문’과 ‘행동계획’,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부, 주요그룹간의 구체사업을 담은 파트너쉽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빈곤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은 지난 30-40 년간 개발 경험을 통해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퇴치가 경제성장, 환경보호, 사회개발의 3 축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지속가능발전의 중요한 전제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한 국가이다.

지속가능발전은 이제 더 이상 국제사회의 구두선이 아니라 실천해 나가야 할 지침서라 하겠다. WSSD 이후 한국은 지속가능발전 지침서를 정부, 기업 및 산업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하여 한국사회 전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갈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2. 세계화와 빈곤문제: 자원조달의 관점 (이찬근, 인천시립대 교수)

세계는 전 지구적 빈익빈 부익부 심화 현상에 놓여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들은,

- FDI 보다는 국내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외자동원보다는 내자동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공적인 재원지원의 새로운 방안으로 ‘토빈세’ 도입을 강구하거나 unsustainable debt 에 대한 과감한 탕감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3. 세계화와 빈곤문제, 자원조달 (윤창인 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화로 인해 빈곤이 악화되고 불평등이 심화되며,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조달 문제에 있어서, 개도국을 포함한 북구의 원조 모범국들은 최빈개도국에 대한 부채탕감, GDP 대비 0.7%의 원조 이행 등에 대한 선진국의 약속을 촉구하였다. 미국은 향후 3 년간 50 억달러의 원조증여를 약속하였으나, 이러한 원조증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조는 GDP 대비 0.2% 미만으로 UN 의 권고수준 0.7%에 크

게 미달하고 있다.

빈곤문제는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와 직결되나 특정 국가 내에서도 해결이 어려운 문제이므로 일과성이 아닌 자생력을 키우고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4. Good Governance 에 대한 입장 (김혜경 사무총장, 지구촌나눔운동)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Good Governance’를 제공할 수 있느냐가 핵심 요소이다. 정부가 정책입안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국민의 요구에 얼마나 민간하게 대응하며, 책임성이 있고 투명하며 효과적으로 일하느냐 하는 거버넌스의 문제가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거버넌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민주적 지방분권화, 입법부 강화, 정부의 정직성과 성실성, 정책의 집행, 구민관계 등 다섯 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렇게 선진국들이 개도국에게 좋은 거버넌스를 주문하는 것에 대해,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내정간섭적인 조건을 앞세우지 말고 국제회의에서 합의한 합의사항을 충실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5. 지속가능한 사회-경제-환경을 위한 협력과 과제

(조영숙 실장,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협력실)

공평성, 인권, 정의, 민주주의 및 지속가능성의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에 대한 한국의 기여방안을 찾아보자. 첫째, 한국은 급속한 경제 중심의 개발모델이 지닌 한계를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사회와 환경, 인권이 통합되지 않는 경제개발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증언해야 한다. 둘째 외환 위기를 경험한 국가로서 IMF, WB, WTO 등 국제기구의 새로운 개편에 대해 주장해야 한다. 셋째, 평화와 안보 및 사회안정에 관한 최근의 남북대화 와 남북협력의 경험을 객관화하여 동아시아의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확인시키고 나아가서 미국의 무기수입 압력 등으로 이슈화된 군산 복합체가 무기생산과 소비 강요에 대한 대응을 촉구해야 한다. 넷째,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장주도의 경제논리와 환경 및 사회발전, 그리고 인권 및 Gender-perspective 를 통합하는 새로운 개발 및 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국내적 논의를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 참여와 책임을 보장하고 추동하며, 실천을 위한 행동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6. 파트너십/이니셔티브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여방안과 정치적 선언문에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한 제안 (조명래, 단국대 교수)

파트너십/이니셔티브 (partnership/initiatives, 이하 PI)는 지방의제 21, 유엔새천년선언의 목표, 요하네스버그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문건들을 국가, 국제기구, 이해당사자, 엔지오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해 추진하는 실천사업을 지칭한다. PI 는 실행계획을 세워 WSSD 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해당

사자의 자발적 이니셔티브에 의한 실천만큼 정부간 협상대상이 아니다.

WSSD 를 위한 제 3 차 준비회의에서는 PI 의 내용, 형태, 조건 등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있었다. 이 회의에서 정부간 협상을 통해 공식적으로 채택된 원칙이나 선언을 근거로 추진되는 협력사업을 ‘type1’ 파트너십으로 부른 반면, 이를 이해당사자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협력사업을 ‘type2’ 파트너십이라 불렀다.

Type2 파트너십은 자발적, 자기조직적, 참여적이어야 하며, 자원과 역량이 공유되고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 나라가 차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PI 사업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동북아 황사방지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동북아 빈곤퇴치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동북아 환경평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도시거버넌스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지속가능한 생산-소비네트워크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동북아 물관리를 위한 민관협력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 및 구매 네트워크를 위한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이전을 위한 동북아 네트워크

7.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및 ‘정치적 선언문’에의 기여내용

1992 년 Rio 회의 Agenda21 의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선진국이 유엔이 권고한 공적개발원조(ODA) 약속(GDP 의 0.7%)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최빈 개도국에 대한 부채탕감도 무산되었고,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실천성 또한 결여되었다. 개도국 또한 주인의식이 결여되었고 일관성, 투명성을 잃은 정책 추진으로 선진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한 점이 있다.

지난 10 년간 WTO 체제의 강화, Global Governance 의 확대, 새로운 국제 테러리즘 등장, 인종/종교적 파편화 확대 등의 국제사회 변화를 감안할 때 Rio 회의에 대한 반성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즉, 지나치게 경제/사회/환경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제정치적, 종교문화적 시야를 넓혀야 하며,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대결’로만 문제를 몰아가서도 안된다. 개도국 국민들에게 통신 지원을 하여 인터넷 시대에 맞는 개도국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법과 개도국의 빈곤의 원인이 대부분 권력집중, 부정부패에 있는 만큼 개도국에게 민주화 지원 등의 우회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2. WSSD 2 차 준비세미나

주최: 유엔환경교육(UNEP) 한국위원회

일시: 5.9(목) 15:30-18: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프로그램]

- 15:30-16:00 개회식
사회: 박종세 (UNEP 한국위원회 기획위원)
개회사: 강영훈 (UNEP 한국위원회 총재)
축사: 이정일 (국회환경포럼 회장)
- 16:00-17:30 주제발표
사회: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UNEP 한국위원회 이사)
발표 1: 안기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리우회의 이후 우리 정부의 역할 및 평가”
발표 2: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 리우회의 이후 NGO의 역할 및 평가”
발표 3: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 국제사회에 있어서 리우회의 평가와 그 한계”
- 17:45-18:30 자유토론

[주요내용]

요약: 이용례 (녹색미래 지속가능사회팀장)

1. 리우회의 이후 우리 정부의 반성과 회고

(안기희, 중앙대 행정대학원 교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부정책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성공사례로 동강댐 건설백지화, 쓰레기종량제 도입 등을 들 수 있으며 실패사례로는 시화호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은 대책의 총괄/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정책적 고려, 지방자체단체 환경관리계획과의 연계, 지속가능한 개발 논의에 있어서 주요그룹의 참여 등이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은 정책의 조화와 통합적 접근의 확산, 수요관리/효율 중심의 정책추진, 사전예방적인 정책강화, 시민참여와 파트너십에 바탕을 둔 정책추진, 환경기술산업의 국가 전략산업화, 국제사회 파트너십 구축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2. 리우회의 이후 NGO의 역할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리오 UNCED 10년을 평가하는 대부분의 논의를 보면 선언적 역할을 넘어서는데는 실패했다는 인식이 보편적이다. 그 10년동안 지구적 환경위기는 심화되고 있으나 기후협약과 가튼 핵심적인 합의가 제 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제는 선언을 넘어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 실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분명한 정치적 결의와 재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자국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

는 정부 스스로 그러한 변화를 이뤄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민간단체들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도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환경보전과 형평성의 실현이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정부, 기업 등과의 파트너십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리오 이후 10 년에 대한 평가가 외부만을 향하지 않고 NGO 자신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비약을 준비하는 과정이 될 때 앞으로의 10 년을 선언을 넘어선 행동의 과정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3. 리우회의 이후 국제사회의 노력과 과제

(전재경,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지난 20 여년간 국제사회는 일련의 회의들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하고 지켜나가야 할 미래의 약속으로 정립하였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환경과 경제의 통합, 개발협력, 감시와 평가, 환경이행의 평가, 소비와 생산양식의 변화, 환경과 무역, 에너지, 운송, 농업, 화학물질, 기후변화, 도시와, 생명공학 등 세부 분야별로 나누어 그 접근방법과 대안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현재와 미래세대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환경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OECD 회원국들에 의해서 성취된 것 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정부의 부문별 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이 필요하며, 결과 지향적인 정책,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확대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환경적 차원을 충분히 고려하고 처음부터 환경에 관련된 요건을 구체화한 광범위한 전략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3. WSSD 준비 워크숍

주최: 여성환경위원회

일시: 5.10(금) 13:00-5.11(토) 11:00

장소: 두산연수원

[프로그램]

5월 10일 (금)

13:00-14:00 여는 마당

14:00-15:00 주제강연: 이정옥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신자유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젠더”

15:00-15:30 자유토론

워크숍 1: WSSD의 주요 의제와 의제 21의 성 관점화를 위한 세계 여성들의 노력

15:40-16:30 발표 1: 한화진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WSSD의 주요 의제와 한국의 전략”

- 16:30-17:00 발표 2: 김양희 (여성개발원 책임연구원)
 “ WSSD 의 성 관점화를 위한 여성들의 지구적 노력”
- 16:30-17:00 지정토론: 성수호 (환경부 지구환경과 심의관)
 김애령 (여성부 정책개발평가담당관)
 조영숙 (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
- 17:00-17:30 자유토론
- 17:30-19:00 식사

워크숍 2: 의제 21 의 성 관점화를 위한 한국여성의 전략
 주요 이슈별 평가와 과제 (한국여성 NGO 보고서 초안)

1. 거버넌스와 여성 (여성환경연대)
2. 지속가능한 도시와 여성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3. 여성, 환경, 건강 (여성민우회, 환경정의시민연대)
4. 녹색소비와 생산 (녹색소비자연대)
5. 지속가능한 농업과 여성농민 (여성농민연구소, 전여농)
6.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YWCA, 평화여성회)
7. 지속가능한 발전과 여성 인권 (여성단체연합)
8. 환경교육과 정보 (환경연합, 원불교여성회)

21:00-22:30 주제별 그룹토의

5 월 11 일 (토)

- 08:00-09:00 식사
- 09:00-11:00 종합토론 (그룹토의 발표, 전체토론)
- 11:00-12:00 WSSD 참가자 오리엔테이션(경과보고, 국내외 활동계획 등)

[주요내용]

요약: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간사)

‘ WSSD 와 한국여성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리우+10 을 위한 한국 여성환경위원회'가 주최한 워크숍은 지속가능한 발전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시각을 공유하고, 젠더 관점에서 환경과 개발문제를 볼 수 있는 여성지도력을 발굴하는 장으로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성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장이었다. 그리고 WSSD 한국여성 NGO 보고서에 대한 의견 교환과 WSSD 참가활동의 의미와 계획에 대한 공유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녹색연합 공동대표인 이정자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의 인사말로 마당을 열었고 "신자유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젠더"라는 주제로 이정옥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주제강연을 하였다. 시민사회에 따가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충실한 내용의 강연이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본 보고자는 다음 프로그램 준비로 청강하지 못했다. 약속시간을 훨씬 넘긴 주제강연을 듣고 나오는 참가자들의 얼굴에는 흥분과 진지함이 가득하였고 10 분간의 휴식시간에도 여기저기서 작은 논의의 장들을 열고 있었다.

끝이어 "WSSD 의 주요의제와 의제 21 의 성관점화를 위한 세계 여성들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워크숍 첫마당이 열렸다. 'WSSD 의 주요의제와 한

국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선임연구위원이 그동안 진행되어온 지역회의와 지구차원의 준비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제기된 주요의제의 내용과 우리나라의 전략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WSSD의 성관점화를 위한 여성들의 지구적 활동'을 여성개발원 김양희 책임연구원이 발표하였다. 여성과 연계되는 부분에 초점을 두어, WSSD의 성관점 주류화를 위한 여성들의 활동과 여성의 국제적 환경활동과 WSSD 준비과정, WSSD를 위한 여성들의 활동 등에 관하여 강연하였다. 발표자는 여성정책과 환경정책 연계 부재, 환경정책에 성관점 통합, 여성환경단체의 국제활동 역량 구축 지원 그리고 국제회의의 정부대표단의 여성참여 확대, 각종 국제회의에 관한 정보 확산 등을 WSSD 후속활동과 관련하여 고민해야 할 국내 여성환경분야의 숙제라고 하였다.

현재 Rio+10 한국여성환경위원회에는 8개의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거버넌스와 여성, 지속가능한 도시와 여성, 여성·환경·건강, 녹색소비와 생산, 지속가능한 농업과 여성농민, 지속가능한 발전과 평화, 지속가능한 발전과 여성의 인권, 환경교육과 정보이다.

두 번째 마당에서는 8개 분과로 대표되는 주요 이슈들의 평가와 과제들을 분과 활동 보고와 함께 공유하는 장을 가졌다. 10시를 넘겨서야 워크숍 첫째날의 프로그램을 마칠 수 있었다.

이 워크숍은 다음날 주제별 그룹토의 발표와 전체토론을 마지막으로 1박 2일의 일정을 마쳤다.

4. WSSD 준비 심포지움

주최: Rio+10 한국민간위원회

일시: 5.21(화) 10:00-17:00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프로그램]

10:00-10:30 개회식

인사말: 박영신 (Rio+10 한국민간위 공동대표)

보고: 김제남 (Rio+10 한국민간위 상임집행위원)

“Rio+10 한국민간위원회 활동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각 그룹별 발제: 각 그룹별 발제자

10:30-12:00 1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우리 공동의 과제

가. 사회경제 이슈 그룹

-주요쟁점: 빈곤, 인간정주, 건강과 보전, 소비패턴, 금융과 무역, 정보, 문화도시

-사회: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기획실장)

-발제: 이근행 (도시연구소 사무국장)

-지정토론: 김자혜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사무총장)

정기용 (문화개혁시민연대공간환경위원장)

나. 자원보전 및 관리 이슈 그룹 (1)

-주요쟁점: 토지이용 및 사막화, 생물다양성, 생명공학, 산림 및 산악, 생태관광

- 사회: 김혜애 (녹색연합 기획홍보국장)
- 발제: 오성규 (환경정의시민연대 정책실장)
- 지정토론: 엄형철 (댐반대국민행동 집행위원)
- 김정훈 (서경대 행정학과 교수)

다. 자원보전 및 관리 이슈 그룹 (2)

- 주요쟁점: 유해화학물질 및 고형폐기물, 방사능폐기물, 해야, 에너지와 교통, 대기보전, 물
- 사회: 이상현 (녹색미래 사무처장)
- 발제: 김미화 (쓰시협 사무처장)
- 지정토론: 김정인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 오용선 (쓰시협 정책위원)
- 민만기 (녹색교통 사무처장)

라. 주요그룹

- 청소년, 여성, 노동, 농민, 지방정부, 장애인
- 사회: 이미영 (여성환경연대 사무국장)
- 발제: 엄태영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사무처장)
- 지정토론: 김양희 (여성개발원 사회문화연구부장)
- 유병홍 (민주노총 정책실장)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2 부: 리우환경회의 10 년간의 평가와 과제
분임토의 결과 발표와 종합토론
사회: 이상영 (여성환경연대 으뜸살림꾼)
-각 분임 그룹별 발표 및 종합토론

15:00-17:00 3 부: 지속가능한 지구공동체를 위한 시민사회 전략
사회: 서왕진 (환경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발제 1: 조명래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발제 2: 남부원 (Rio+ 10 한국민간위 상임집행위원장)
“ 지속가능성을 위한 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과
NGO 의 과제”
-지정토론: 정금희 (환경부 지구환경과장)
조영숙 (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협력실장)
이회수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17:00 폐회

[주요내용]

요약: 이용례 (녹색미래 지속가능사회팀장)

WSSD 회의에 대응하기 위해 NGO 는 시민사회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주요그룹별 이해당사자회의 (Multi-stakeholder Dialogue), 지도자회의

(Caucus)에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역회의 및 준비회의가 개최될 때마다 정부회의가 열리는 곳에서 별도의 민간포럼 (NGO Forum)를 조직하여 NGO의 입장을 개진하여 왔다.

WSSD는 지속가능한 지구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각국의 민간단체를 비롯한 9개 주요그룹과 한 자리에 모여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조정/결정하는 지구차원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이룩하는 회의이다. 따라서 한국의 민간단체들도 이러한 지구적 흐름에 발맞추어 지속가능성 의제에 관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간의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Rio+10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한국시민운동의 지평을 넓히고자 한다.

본 워크샵에서는 사회경제 이슈, 자원보전 및 관리 이슈 및 주요 그룹(여성, 노동, 청소년, 소비자, 지방의제, 장애인) 별로 리우회의 이후 10년간의 평가와 향후 과제들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2002.5.21(화) 개최된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 심포지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평가와 과제’ 자료집 참고 바람.

III. WSSD 교육

1. 제 1 강

일시: 6.7(금) 10:00-12:00

장소: 교보빌딩

강사: 차명제 (PCSD 연구위원)

주제: 리우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환경과 개발논쟁을 중심으로-

1. WSSD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를 앞두고

2002 년 8 월과 9 월에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Johannesburg)에서는 올림픽, 월드컵 등과 함께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가장 큰 규모의 세계적인 행사가 열리게 된다. 세계의 약 190 여개 국에서 6 만 이상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WSSD) 또는 Rio+10 회의로 불리는 이 대회는 스포츠와 문화 축제인 위의 두 행사와는 달리 21 세기 인류의 생존과 공영을 논의하기 위한,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인 지구차원의 대규모 행사인 것이다.

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세계 각국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면밀한 준비를 해왔고, 여기에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이 대회를 주관하는 UNCSO 는 이미 오래 전부터 수차의 준비모임을 가졌고, 동시에 세계 각국들은 이 대회에 제출할 정제된 문건들을 작성하고 있다.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들이 WSSD 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들 모두가 안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에 대한 논의 외에, 21 세기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할 발전방향을 결정짓고, 비록 낮은 수준이 될지라도 그 결과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해 각국이 준수하도록 구속력을 갖는 그리고 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될 국제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 열렸던 대규모 국제회의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방안이 제시된 획기적인 계기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이 WSSD 를 계기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여 함께 인류 공영을 위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창출한다는 시도 자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WSSD 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90 년대에 연속적으로 개최되었던 각종 국제회의의 연속선상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 회의들은 냉전체제 해체 이후에 개최된 것으로 과거의 이런 종류의 회의들과 명백한 차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2. 1990 년대의 대규모 국제회의

1990 년대에 접어들면서 글로벌 회의 내지 대규모 국제회의가 연이어 열렸고, 이 국제회의들의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었다. 세계 어린이 정상회담을 시발점으로 하여 리우 환경회의, 세계인권회의, 세계인권회의, 세계사회정상회의, 세계정주회의를 거쳐 UN 밀레니엄 포럼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매머드 국제회의는 주로 UN 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글로벌 차원의 이슈들이 다루어졌고, 그 회의의 성과에 따라 해당 이슈를 관장하는 UN 산하 기구가 창설되어 이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다루어졌다. 그밖에 지역회의들도 그 참가국이나 참가자들의 수에 있어 매머드 국제회의를 능가하기도 한다.

이렇게 90 년대에 개최되었던 일련의 대규모 국제회의들을 언급하는 것은 이들 회의가 과거의 그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에도 이런 종류의 국제회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90 년대 이전의 대규모 국제회의들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하는데 만족하는 수준이었다면, 90 년대의 회의들은 그 입장 확인을 통해 제기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제로 노력한다는 것이 그 차이이다. 리우 환경회의를 비롯한 몇몇 회의들이 역시 글로벌 수준과 규모로 그 후속 회의들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이들 국제회의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또한 과거의 국제회의 참가자들의 대부분이 각 정부의 대표들이었고 NGOs 가 참여하더라도 이들의 역할은 단지 관람자 내지 관찰자의 위치에 불과했었는데 90 년대에 접어들면서 NGOs 는 적극적 참여자로서, 때론 정부 대표들과 협조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혹은 정부 대표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면서 이제 국제회의에 중요한 대화 파트너 (stakeholder)로 그 위치를 확고히 굳히고 있다. 이들의 역할은 한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보다는 글로벌 차원의 문제제기와 그 대안을 제시하려 한다는 점에 있어, 정부 대표와 확연히 구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카이로에서 열렸던 세계인구회의에는 3 천 5 백여명의 정부대표, 3 천 8 백여명의 언론인, 그리고 4 천여명의 NGO 대표들이 참가했다. 리우 환경회의는 카이로 세계인구회의보다 참가자들이 거의 두 배에 이르렀고, 90 년대 열린 글로벌 회의 중 가장 큰 규모였다.

이와 같이 90 년대의 대규모 국제회의가 그 전의 회의와 비교하여 질적/양적으로 발전한 데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첫째로 동서 냉전 체제의 종식을 들 수 있다. 냉전 체제 하에서의 국제회의장은 일종의 체제 선전의 장으로 이용되기 일쑤였다. 동서가 서로 체제의 우위를 선전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이런 대규모 국제회의는 각자의 체제 우위를 국제적으로 선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또한 이념 분쟁으로 인해 글로벌 내지 사회적 이슈들이 무시되거나 왜곡되기 일쑤여서 진지하게 논의되지도 못했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의 원자력 발전소는 인민의 희망이었지만, 자본주의의 원자력 발전소는 자본 독점의 한 현상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공해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앞세우며 문제의 본질을 왜곡시켰다.

두 번째로 개도국들은 빈곤과 질병 등의 사회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

하지 않아도 각 진영의 우방국들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려는 경향이 압도적이었고, 동시에 국제사회도 이러한 문제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냉전 체제 종식 후, 개도국들로부터 후진국들이 사라지고 원조가 중단되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사회 문제들의 실상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과거 국제회의가 선전의 장이었다면 현재의 그것은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요한 장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다.

세 번째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확대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과거 각 진영의 동맹국들은 그 동맹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그러므로 그 틀을 위협하는 어떤 시도들도 용인되지 않았으며, 이는 당연하게도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권위주의 체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 권위주의 체제는 동서 냉전 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체제를 유지하는 유용한 틀일 수 있었으나, 냉전 체제 와해 후에는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여 각 나라들에서 축출되고, 민주화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 문제들이 전면에서 부각되자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이 국내외적으로 배가되었다.

네 번째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었다는 점이다. 우리들 삶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글로벌화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역과 금융노동과 산업, 그리고 사회 제도와 의사소통 제 분야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환경부분도 예외가 아니다. 즉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적 위기 상황도 바로 이 글로벌화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오존층 파괴, 사막화, 생물종다양성 감소 등이 그것이며, 이 문제들이 극복하려면 한 국가의 범주를 넘어 지구적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현실은 지구촌의 구성원이 운명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적대적 관계에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의 발전을 촉진하여,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인 국제회의들이 비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는 대중 매체의 역할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인들의 주요 관심사들이 수천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인 대규모의 국제회의에서 다뤄지고, 결정 여부에 따라 새로운 세계 질서와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유수의 대중매체가 이를 외면할 수는 없다. 항상 새로운 볼거리의 제공과 끊임없이 대중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해야만 하는 언론의 속성상 이 대규모 국제회의 자체가 취재의 대상인 것이다. 여기에 언론의 정보 전달 기능까지 첨가되면서 세계 여론을 주도해 나갔고, 세계인들도 이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세계 여론의 관심은 다시 국제회의의 참가 대표들로 하여금 대회에 진지하게 임하게 하는 압력으로 작용하여,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루어 내기도 하였다.

여섯 번째는 대규모 국제회의가 비록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기는 했지만 역시 대회의 선언문이나 성명서 채택을 넘어 점차 실행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리우 환경회의 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 과거 선진국들이 완전히 무시했던 개도국들의 ‘발전의 권리’가 점차 수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발전의 권리란 개도국들의 저발전의 원인이 선

진국들의 수탈과 착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이를 반성하고 앞으로 개도국 발전을 위해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기여해야 한다는 선진국들의 의무 이행을 강조하는 개도국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선진국들의 기본 입장은 매우 완강했으나 90년대, 특히 리우 환경회의 이후 구체적인 틀로 제시된 ‘의제 21 (Agenda21)’을 통해 남/북간의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는 사실에서 그 변화가 잘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변화된 현실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회의들은 이제 단순히 지구 차원의 문제를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회의 자체가 지구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구조와 제도로 전환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 위상도 과거와 매우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회의의 관통하고 있는 중심 내지 핵심 주제는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으로 이는 비단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성-인권-평화-사회와 경제 발전 등의 중심 화두가 되고 있다.

그 밖에 이런 국제회의의 비중이 점차 증대하는 원인 중의 하나를 바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까지 국제회의의 주체였던 국민 국가의 한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요한 글로벌 문제인 환경, 이민과 난민, 빈곤과 질병 등의 문제들은 국제사회를 혼란시키는 요인이며, 이들은 한 국가 차원이 아닌 지구 차원에서 다루고 해결해야 할 사인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 전통적 국민 국가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며, 이는 한 특정 국가의 이해관계의 수준을 넘어 전지구 차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새로운 집단의 출현을 요구하게 되고, NGO 와 언론, 그리고 기업들이 이에 적합한 주체들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회의들은 이제 국가 간의 협상의 틀에서 세계 협치 (global governance)로 전환되기에 이르렀고, 바로 이 틀이 글로벌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3. 리우 환경개발회의

세계 협치 (global governance)는 불변하는 고정된 틀이 아니며, 동시에 어떤 특정 계기로 인해 구조화된 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협치의 개념은 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던 글로벌 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결정적인 계기는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UN 환경과 개발을 위한 세계회의” 가 될 것이다.

3.1 스톡홀름에서 리우까지

점차 증대되고 있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972년 스톡홀름에서 첫번째 UN 회의가 ‘인간과 환경’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회의에는 113개국에서 400여명의 정부 대표와 NGO 들이 참여했으나 여기서 다뤘던 주제

들은 그리 새로운 것들은 아니었다. 1972년까지 이미 전 세계적으로 58개의 환경 관련 협약이 맺어진 상태였고, 이 회의에서는 다만 이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을 뿐이다. 당시 국제 질서는 냉전 체제에 의해 주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회의는 남북 문제와 동서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났었던,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던 자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세계 차원에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점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회의였다. 또한 스톡홀름에서 채택된 성명서는 70년대와 80년대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시행된 환경정책과 환경법을 제정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스톡홀름 회의가 거둔 성과는 1972년부터 1992년 사이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96개의 환경협약이 체결된 것과 UN 체제 하에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UNEP (UN Environmental Program)의 창설을 들 수 있다.

1983년 UN은 ‘환경과 개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는 통상 ‘브룬트란트 위원회’로 불리기도 하며, 이 위원회는 1987년 소위 “우리들의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전 세계적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환경과의 조화를 통한 발전이라는 ‘지속가능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은 21세기의 키워드가 될 정도로 인류 미래 발전에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 위원회는 향후 3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제 2차 환경회의 개최를 권고하였고, 그 기간 동안 각국의 대표와 NGOs, 그리고 환경 관련 국제기구들이 합의할 수 있는 문안 준비작업에 참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회의에는 전세계 187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가했고, 115개국의 정상이나 대표가 참가한 당시까지 열렸던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였다. 1천 4백 개 NGOs의 대표들이 회의에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었고, 7천여 언론인들이 취재 경쟁을 벌였다. 이 회의의 키워드는 물론 ‘지속가능발전’이었다. 이 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정치적 환경도 지난 스톡홀름대회 때보다 훨씬 우호적이었다.

3.2 목표

- 21세기 빈국과 부국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방향 모색
- 글로벌 차원에서의 파괴 정도와 빈곤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를 기초로 한 구체적 해결방안 마련
- 글로벌 차원에서의 부의 정의로운 분배 문제를 다룰 것 등

3.3 회의의 반성

- 글로벌 차원에서의 책임과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없었고, 대신 근시안적인 정치와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한 논의만 무성했다.
- 선진국들, 특히 미국은 개도국들의 빈곤 문제 해결에 매우 소극적이었다.
- 국제 경제협력, 외채 문제, 물과 토양 오염 등의 주제들이 논의에서 제외되었다.
- 동구권 국가들이 매우 소극적으로 참여했다.
- 석유수출국들에 의해 화석연료의 문제점이 확실하게 다뤄지지 못했다.
- 초국적 기업의 폐해를 최소화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들 기업들의 로비에

의해 봉쇄되었다.

3.4 행위 주체와 그들의 입장

주로 동서 이념 분쟁과 남북의 빈곤 문제가 중심적인 주제였던 스톡홀름 회의에 반해 리우 환경개발회의의 참가 주체들은 그 수에 있어서나 그들이 주장하는 관점에 있어서나 그 전 회의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다. 이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구체적 제안들도 참가자들의 각기 다른 이해관계로 인해 거부되기 일쑤였다. 남의 개도국들은 이 회의에 우려와 희망을 동시에 갖고 임했는데, 우려한 것은 환경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들 국가들의 경제발전을 제한하는 조처와 이를 위해 선진국들이 그들의 입지를 이 회의를 통해 강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고, 희망은 후진국의 환경 문제는 결국 빈곤 문제와 직결된다는 인식의 공유를 통해 선진국들로부터 보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후진국들의 의제보다 선진국들의 의제인 글로벌 차원의 환경문제들이 주로 논의되었다.

이 회의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선진국과 후진국 모두 그들의 입장을 초진일관 대변해 줄 수 있는 협상단을 조직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참가자들은 다뤄지는 주제에 따라 입장을 달리했고,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와 발전 문제에 대해서는 각기 매우 상이한 입장들을 견지하였다. 각국의 개별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해 공동의 이해가 걸린 주제들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화석연료 사용 제한에 대한 논의는 미국과 산유국들에 의해 저지되었고, 생물종 다양성 협약에 미국은 서명을 하지 않았으며, 무역장해를 받지 않기 위해 삼림지원이 풍부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삼림협약에 조인하지 않았다.

이 회의에는 정부 대표 외에 세계은행과 IMF, 초국적 기업과 은행등이 참가하였다. 이런 경제 주체들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정치 분야에서 관철시키고자 하였다. 예상치 못한 뜻밖의 소득도 있었는데, 이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에 관심이 많았던 선진국들과 도서 국가들의 노력에 기상 이변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던 보험 회사들이 적극적 지지를 보낸 것이다.

3.5 주요 참가 주체로서의 NGOs

이 회의에서 NGOs의 활동은 당시까지 열렸던 국제회의 중 가장 활발하였다. 도합 1420 개의 세계 각국 NGOs는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주요 중재자로서 이 회의의 공식적으로 참가한 NGO가 회의에 직접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기회는 매우 한정적이었는데, 이들은 대개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NGOs는 이 분과회의에 동참할 수 없었다. 이러한 NGOs의 제한적 참여는 그 이후에 열렸던 후속회의에서도 계속되었다.

UNCED와 동에 NGOs는 리우에서 ‘글로벌 포럼’을 조직하여 공식회의에 대한 일종의 대안회의를 개최하여 공식회의에서 다루졌던 주제들에 대해 NGOs의 입장을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 UNCED에 대응하기도 했다. 이 대안

회의에서 NGOs 들은 상징적으로 30 개의 협약을 제안하였고 공식 결정 단위에 NGO 와 같은 기초 단위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이들은 또한 대안적 발전 모델과 외채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원주민들과 여성들의 정치 참여 내지 현실 참여의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NGO 들도 역시 정부 대표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영향력 있는 NGO 들의 이해관계가 다수의 이해관계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UNCED 의 가장 큰 성과는 NGOs 를 중심으로 지방과 지역, 그리고 세계를 연결하는 연결망을 구축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연결망을 가동하여 NGOs 는 UNCED 후속 회의를 착실히 준비할 수 있었다. 이런 NGOs 의 활동은 대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NGOs 본연의 기능인 그들이 속한 사회의 변화의 동력으로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는 위험성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부정적 평가를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3.6 리우 회의의 결과

리우 회의의 핵심은 “의제 21(Agenda 21)”이다. 이 의제는 21 세기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행동계획인 것이다. 이 지속가능 발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행위 주체인 국가와 기업 외에 여성과 원주민, NGOs, 지역사회, 노조, 학자들과 농민들의 참여가 촉진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환경과 발전을 위한 리우 선언은 원래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진 지구헌장의 성격을 부여하려고 했으나 참가국들의 반대에 의해 단순한 선언문에 만족해야만 했다. 그러나 NGOs 와 몇몇 국가들은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진 헌장의 채택을 주장하였고, 1995 년 이 지구헌장에 지구평의회 (earth council) 와 국제녹십자 (International Green Cross), 그리고 네덜란드 정부가 서명하였다.

『 기후변화협약 』

리우 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하려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고, 이 협약은 1994 년 3 월 21 일에 조인되었다. 1995 년 4 월 베를린에서 개최된 1 차 조약당사국 회의에서 온실가스 감축 실행계획을 구체화 하려던 시도도 역시 미국의 방해 작업으로 무산되었고 실무소위 구성에만 합의를 볼 수 있었다. 이 당사국 회의에서 2 년 내에 구체적 감축안을 명시하는 의정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는데, 가능하다면 2000 년부터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을 합의하였다. 2 차 당사국 회의가 1996 년 6 월 제네바에서 열렸고 이 회의에서는 온실가스의 감축계획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5 년에서 10 년 사이에 실현하도록 결정했으나 역시 구체적 감축 계획안에 대해 이견을 좁하지 못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실패했다.

1997 년 교토 회의에서 구체적 감축안이 마련되었고, 온실가스 총량 거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는 등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미국이 이 교토의정서에서 일방적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2002 년 Rio+10 회의의 논의과제로 남겨졌다.

『 생물종 다양성 협약 』

이 협약은 1993 년 12 월에 발효되었고 이 협약에 비록 바이오 기술을 이용한 제품에 대한 특허권이나 DNA 원산지에 대한 사용료 지불 등과 같은 문제들이 미결로 남아 있지만 생물종의 보호와 적절한 이용에 대한 최초의 협약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5 년 11 월 자카르타에서 열린 두 번째 회의에서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 있어 성공적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이 외에도 리우 회의에서는 삼림협약이 채택될 예정이었으나 삼림자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도국들의 반대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단지 삼림성명만을 채택하였다. 이 밖에 아프리카 국가들이 중심이 되어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약이 준비되고 있었고, 참가국들은 이를 지지하였다.

3.7 리우 회의 후속조치를 위한 기구 창설

리우회의의 결과 매우 중요한 국제조직이 만들어졌는데, 바로 CSD 가 그것이다. 2000 년 9 월 한국에서도 만들어진 ‘지속가능발전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PCSD)’는 ECOSOC (UN 경제사회이사회)의 산하기구로 이 기구의 과제는 UNCED 의 후속 회담과 특히 의제 21 의 실천을 관장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UNCED 는 리우선언과 의제 21, 기후변화협약, 생물종다양성협약, 사막방지협약의 준비작업 승인, 그리고 삼림성명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4. WSSD

4.1. 개요

UN 환경개발회의 (UN conferenc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가 열린 10 년 후인 2002 년 8 월 26 일부터 9 월 4 일까지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는 백여개국의 정상들을 비롯한 전세계 180 여개국에서 약 6 만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서도 6 백여명이 참가할 예정이 이 대회는 각국의 정부대표와 민간, 그리고 기업대표들이 참가하여 지난 1992 년 리우의 UNCED 가 그랬듯이 앞으로 10 년 간의 지구촌 차원의 발전 전망과 실천계획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 WSSD 회의가 열리기까지 5 차례의 지역모임 (아시아/태평양, 유럽과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 서아시아)과 4 월 27 일부터 인도네시아의 발리를 마지막으로 4 차례의 준비모임을 가졌으며, 이러한 일련의 준비 과정을 통해 이번 WSSD 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와 성명서를 포함한 각종 문서들에 대한 사전 조율과 합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다.

이 WSSD 를 리우+10 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1992 년 UNCED 에서 참가국들이 합의했던 사안들이 지난 10 년 동안성공적으로 실현 되고 구체화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WSSD 에서는 단지 과거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생존을 심각 하게 위협하는 새로운 요인들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 하기 위해 앞으로 10 년간 우리가 노력해야 할 과제들을 선정하고 논의하게 될 것이다. 즉 검토와 수정보완, 전망과 실천계획 수립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2 WSSD 의 핵심 주제: 지속가능발전에서 빈곤 극복으로

이번 WSSD 에서는 단지 UNCED 의 결정된 합의사항에 대한 단순한 점검과 보완 차원을 넘어 새로운 이슈의 발굴과 결정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 이행 계획과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 있어 구속력이 없었던 UNCED 보다 진일보한 면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방안 으로 환경문제 해결에 접근하기 보다는 보다 본질적이고 실용적인, 그리고 지구촌 모든 국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슈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아공이 선정한 이번 WSSD 의 주제로 제시된 “people, poverty and prosperity (인간, 빈곤, 번영)”는 우리 인류가 현재 당면하고 있는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지난 Rio 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가능발전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과 의견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사실 빈곤문제는 1992 년 UNCED 에서도 그 해결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었고 지난 10 년동안 빈곤을 타개하려는 실질적 노력이 있어 왔으나 글로벌 차원에서 이 문제가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확대되었고, 남북문제, 빈국과 부국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가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문제의 해결 없이 지속가능한 발전 또한 실현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지난 92 년 개도국들에 의해 주장되었던 “빈곤은 환경오염의 주범이다!”라는 슬로건이 10 년이 지난 현재에도 정당했음이 그대로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빈곤퇴치에 대해서는 지난 2000 년 UN 특별총회에서 채택된 “밀레니움 선언 (Millennium Declaration)”에서 2015 년까지 절대빈곤 인구를 반으로 감소시킬 것을 회원국들이 합의했을 정도로 92 년 UNCED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차원의 핵심 이슈라 할 수 있겠다.

이 빈곤이슈는 의장보고서의 주요 10 개의 주제 중의 하나이다. 이 외에도 의장보고서는 “지속가능한소비 및 생산패턴”,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 (담수자원, 대기 및 기후, 사막화 방지, 생물종다양성 및 생물자원 삼림생태), “세계화와 지속가능발전”, “보건과 지속가능발전”, “군소도서국가 및 아프리카 지원”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행수단으로 재원마련, 무역부분에서의 개도국 혜택 조항 마련, 기술이전 등에 관한 부분과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의사결정 수단으로의 거버넌스에 대한 장도 포함하여 모두 10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의장보고서는 WSSD 에서 채택될 가장 중요한 문건이며, 2 차례의 준비모임과 지역모임을 통해 합의된 사항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UNCED 에서 채택된 “의제 21”에서 중요한 이슈들을 우선 순위로 분류하여 실천 이해할 방안에 대해서도 시술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의제 21”의 무려 800 여쪽에 달하는 문건과 달리 약 20 여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건은 이번 WSSD 에서 각 국 정상들의 실천 의지를 담은 “정치적 선언문”, 그 실천계획에 대한 정부간 합의문인 “행동계획”, 그리고 이해 당사자간의 자발적 공약인 “파트너쉽/이니셔티브”등의 3 개 문건과 함께 채택될 예정이며, 2002 년 5 월 27 일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 4 차 준비회의 (일명 각료급 회의)에서 최종적인 합의에 이를 전망이다.

4.2 쟁점 사항

의장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빈곤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고, 92 년 이후 이스탄불 선언문이나 하비타트 의제 (HABITAT Agenda)등을 통해 심도있게 다뤄왔기 때문에 그리 큰 쟁점사안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의제 21 실행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무역 및 재원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후진국들 사이에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상호 합의에 도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중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바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거버넌스 구성, 그리고 무역부분이라 하겠다.

『 재정지원 』

개도국들은 지금까지 선진국에 의한 재정지원이 별 성과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선진국들의 실질적인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이 재원문제에 관해서는 2002 년 3 월 멕시코의 몬테레이에서 채택된 합의문을 고수하려는 선진국과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공약을 얻어내려는 개도국 사이에 이견이 있다. 즉 몬테레이 합의문은 비록 기간을 설정하지는 않았지만 선진국들의 개도국에 대한 ODA 증액을 공약했고 최빈국에 대한 부채 탕감과 국제 금융체제의 개혁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들은 최빈국에 대한 부채탕감과 ODA 증액 부분에 관해서는 일정 정도 합의를 했으나 ODA 를 GDP 의 0.7%로 증액해야 한다는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피해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GDP 0.7%의 ODA 를 2010 년까지 실현시키려 하고 선진국들은 이를 꺼리고 있어 서로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질 것 같지 않다. 또한 개도국들은 의제 21 이행에 따른 자금 충당을 위해 별도의 기금조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이미 1992 년 UNCED 의 결과로 GEF (Global Environmental Facility)가 세계은행 산하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 조성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기술이전 』

개도국들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선진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와 지적재산권 완화 등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은 이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그 쟁점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도국들은 청정기술 이전의 촉진을 위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으나 특히 미국과 일본은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등의 기존 체제 이용을 통한 청정기술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청정기술 이전 촉진을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민간부분의 사적 소유라는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개도국측은 토착기술과 전통 지식에 관해 특허부여를 주장하고 있으나 선진국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 기술이전 』

지속가능 발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구수준, 지역수준, 국가수준의 다자간 협의/조정/의결 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인정하고 있다. 즉 재원이나 기술이전 등의 이행수단이 효율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의 운용주체인 국제기구와 개도국 개별 국가의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적 수준에서 UNCSD의 역할 강화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이 거버넌스가 사법제도와 민주주의 등에 대한 민감한 문제를 건드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권침해나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 파트너십/이니셔티브 』

지금까지 WSSD 준비과정에서의 성과는 정부간의 협의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형태의 당사자들 간의 협의 매카니즘인 파트너십/이니셔티브에 의해 논의가 활성화된 것이라는 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각국의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방식을 type2라고 하고 기존의 정부간 협의 형태를 type1이라 칭하고 있다. 그러나 type2는 type1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주체로 자발적이고 자율적 성격을 갖는다 하겠다.

그러므로 이번 WSSD에서 파트너십/이니셔티브에 대해서는 별도의 문서로 채택될 예정이다.

5. 21세기 지속가능 사회 건설을 위하여

21 세기는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한 세기가 될 것이다. 즉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지구차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인류의 미래는 희망적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의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즉 지구온난화, 종다양성 파괴, 오존층 파괴, 산성비 등의 각종 환경 재앙들은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구 차원에서의 빈부격차, 자원과 부의 독점, 인종과 종교간의 갈등, 터보 투기자본의 횡포 등에 의해 갈등과 혼란이 더욱 확대되고, 심화되어 가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실현되어야만 인류의 지속가능한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UNCED 나 WSSD 의 성공은 우리 인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이 WSSD 의 성공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화려한 말의 잔치 이외에 별다른 성과물이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이 그것이다.

이 같은 시각은 과거 UNCED 에서도 충분히 경험하였다. WSSD 와 동일한 형태로 4 차 준비모임을 가졌으나 환경과 보존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입장이 워낙 커서 좀처럼 의견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 것이다. 그러나 막상 회의에 임박해서는 이 두 진영 사이의 입장 차이를 어느 정도 극복하고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의제 21 과 지방의제 21 이 추진되었고, 교토의정서가 거의 실현되기에 이르렀으며, 종 다양성 협약도 이미 체결되어 실천되고 있다. 그리고 각국들은 UNCSD 를 중심으로 NCSD 를 설치하여 자국에서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물론 문제점도 있겠으나 지난 10 년 동안의 추진 성과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이었다 하겠다. 그러므로 현재 WSSD 를 불과 80 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당연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류 생존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의 필요성에는 대부분의 지구촌 구성원들이 동감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설적인 성과가 나오리란 기대가 앞선다.

다만 92 년에도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휘방꾼 노릇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 아들인 조지 W.부시대통령이 대를 이어 그와 같은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어 인류 발전에 미국의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금 생각해 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2. 제 2 강

일시: 6.7(금) 13:00-15:00

장소: 교보빌딩

강사: 조소라 (월드비전 팀장)

주제: 지속가능한 개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환경보전

1. 개발 NGO 와 환경문제

1991 년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세계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환경문제를 연구하는 NGO 들과 개발사업을 하는 NGO 들은 환경문제와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환경 NGO 들은 종종 산을 깎아 새로운 농지를 만들고 공해를 유발시키는 생활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환경문제의 일부분이라고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리오 회의를 통해 환경 NGO 들이 오늘날 선진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과소비에 대한 책임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져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같은 시각의 차이가 좁혀지기 시작했다.

다른 한편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NGO 들의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에 대한 관심은 환경문제를 개발사업 안으로 통합시키는 데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문제들은 여전히 주된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환경문제는 환경운동 전문기관인 그린피스, 지구의 친구들 혹은 세계 야생동물 기금 등이 알아서 하는 일로 생각되었다. 에티오피아나 브라질, 사하라 사막 주변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환경의 문제를 사업목표의 일부분으로 채택하기도 했지만, 지구의 온난화 현상 및 자원의 남용이 장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을 거시적인 차원의 세계적인 쟁점으로 만들어 나가는데에는 소극적이었다.

2. 가난한 사람들이 치르는 대가

(1) 빈곤의 문제

60 억의 인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21 세기의 세계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 전 세계 약 8 억 1500 만 명이 기아와 영양실조 등에 시달리고 있다. 매년 1100 만 명에 달하는 5 세 미만의 아동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데 이는 매일 3 만 명에 달하는 어린이들이 죽어가는 셈이다. 이 어린이들은 주로 결핵, 설사, 말라리아, 홍역, 에이즈, 영양실조 때문에 사망하는데 이런 질병들은 대부분 빈곤이 그 배경이다.

현재 지구 상의 인구 가운데 30 억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 2 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연명하고 있다. 하루에 2 달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단돈 1 달러만 더 생긴다면 교육을 받고,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하루 2 달러 미만의 생활비로 살아가고 있는 30 억의 사람들이 치르고 있는 빈곤의 대가는 매우 현실적인 것들이다. 빈곤은 비참한 생활 뿐만 아니라 조기 사망을 불러온다. 예를 들어 영아 사망률만 해도 잘사는 나라보다 가난한 나라가 10 배 정도 높다. 가난한 어린이들은 다른 현실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아동노동자가 되거나 소년병, 또는 아동매춘부가 되기도 한다.

빈곤의 결과로 나타나는 조기 사망, 착취와 성공적인 인간개발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에 있다. 소득원의 결여는 가족들에게 위기가 닥칠 때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착취를 당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고, 가족구성원들이 필요한 식량을 얻을 수 없게 하며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그만 둘 수 밖에 없도록 이들을 내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 매일 단 3 달러만 주어진다면 삶 자체가 바뀔 수 있다. 매일 3 달러 이상의 1 인당 GNP 를 올리는 어느 나라도 인간개발 하위국에 속해 있지 않다. 이들 나라의 영양상태, 교육현황 그리고 평균 수명은 주변의 그렇지 못한 국가들과 비교할 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한 끼 식사비에 불과한 수준의 소득만으로도 이들 개발도상국의 사람들에게는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통계적인 소득수치를 달성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소득의 균등한 배분 역시 사람들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불공정한 소득의 배분은 빈곤과 저개발을 심화시킨다. 몇몇 사람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는 부는 대부분의 경우 해외투자라는 명목으로 자본의 유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치품이나 수입품에 대한 과소비를 불러오게 되어 그 나라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

불평등한 소득분배가 한 나라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들간의 불평등 역시 개발과 무역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세계 인구의 25%가 전체 소득의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가장 부유한 1%의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57%의 사람들과 같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2) 환경 파괴와 빈곤

빈곤은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무분별한 벌목을 행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산지에 농사를 짓고, 공해를 일으키는 생활방식을 택할 수 밖에 없도록 함으로써 환경파괴를 가속시켜 왔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토양의 악화, 지구 온난화 현상, 생태계 다양성의 파괴로 대표되는 환경문제 역시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왔다. 환경 파괴는 가난한 사람들의 적응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 파괴는 식량 부족과 자원의 남용, 공해를 가져오면서 가난이 심화되고 보건상태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산림 황폐와 사막화 때문에 장기적인 농업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의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 깨끗한 식수원이 공해로 오염되고 지구 온난화 결과로 식수 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50 개 국이 넘는 나라들이 물부족 또는 물위기 국가로 분류되어 미래에는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예견까지 나오고 있다. 안전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아니라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되면서 환경파괴의 결과를 가난한 사람들이 먼저 치르고 있다. 즉 환경파괴의 대가 역시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환경 파괴의 결과는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자연재해의 규모와 빈도에도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의 터전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1996 년 기후조건과 관련된 피해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600 억 불이었으나 1998 년도에는 이보다도 53%나 증가한 920 억 불에 달했다. 1999 년 중국 양쯔강 주변지역과 인도, 방글라데시에서는 3 억에 달하는 인구가 폭풍과 홍수 때문에 집을 잃었다.

지금도 짐바브웨, 모잠비크, 말라위, 레소토, 잠비아, 스와질랜드 등 6 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남부 아프리카에서는 2~3 년째 계속된 극심한 가뭄으로 최소 1 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기아선상에 허덕이고 있다. 이는 근 십년 간 최대의 기근사태로 홍수, 경제난, 곡물 보유량의 고갈, 곡물가격의 급등 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당장의 긴급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1 백 2 십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며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5~6 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실정이지만 현재 남부 아프리카의 실태가 서구 선진국가들의 구미를 당길 만한 이슈가 되지 못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에도 현재의 악조건들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가 조만간 엘니뇨가 닥쳐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 가운데 올 7 월까지 이렇다 할 조치가 없다면 이들 1 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아사상태에까지 이르는 엄청난 위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3.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환경보전

(1) 지속적인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

환경운동 종사자들은 자원의 소비야말로 환경파괴의 첫 번째 주범이 니만큼 소비가 환경보존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해답은 소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

선진국 사람들이 자연이 생산해 내는 것 이상으로 과도한 소비를 하여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 전문가들의 주장도 부분적으로는 옳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이 무차별적으로 화전을 일구고 벌목을 하기 때문에 사막화와 같은 생태학적인 재난이 발생한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가난의 원인은 도외시한 채 가난의 결과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식량과, 의복과, 거처와 땀감이 주어진다면,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생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벌목이나 화전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의 소비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사실 지속가능한 소비란 NGO 에게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많은 NGO 들은 이 사실을 인식해왔던 아니었던간에 항상 지역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해 왔다. 식량 증산, 식수사업, 교육사업을 통해 아동과 그 가족들이 보다 건강하고 성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발사업의 물리적인 측면은 결국 지속가능한 소비의 다른 이름에 불과하다. 따라서 개발 NGO 와 환경 NGO 들은 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소비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연결시켜 지속가능한 개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NGO 간의 이러한 연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정책과 방향을 수립하는 데에까지 발전되어야 한다.

(2) 전세계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공공물자 (Global public goods)

경제학 이론에 의하면 진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공공 물자는 독점될 수 없고, 경쟁적이 될 수 없다는 2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즉, 내가 어떤 물건을 소비하게 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또한 나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이 이 물자를 소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포장할 수도 없다. 세계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 물자의 예는 깨끗한 공기와 집단 예방접종 같은 것이다. 즉, 내가 깨끗한 공기를 마신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깨끗한 공기를 못 마시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 식수, 치안, 교통 같은 대부분의 공공물자와 서비스는 '순수한' 공공물자는 아니다. 이러한 준 공공물자는 정부 뿐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자국민들의 복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월드비전을 비롯한 많은 개발 NGO 들은 정부가 지원할 수 없거나 비용을 부담하지 못하는 교육, 식수, 보건 등의 준 공공물자들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서로 연결된 지구촌이다. 무역과 관광이 국가간의 국경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것처럼, 오염된 공기와 산성비도 국가간의 국경을 넘나들고 있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가난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중의 하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공공물자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물자의 제공을 통해 환경을 보호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비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3) 개발 NGO 들의 노력

1950 년 한국전쟁 중에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92 개국에서 긴급구호사업 및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 최대의 기독교 NGO 인 월드비전은 환경문제를 미래의 어린이들이 영위하게 되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지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중 하나의 예는 유엔개발계획으로부터 1998/99 환경보전에 관한 상을

수상한 케냐 모룰렘(Morulem) 관개사업이다. 모룰렘 사업의 주 목적은 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도 나이로비에서 700 km 떨어진 투르카나 지방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유목민으로 만성적인 식량부족에 시달리다가 최근에 들어서 소규모의 농업활동을 시작하였다. 목초지 파괴와 식수원 부족, 잦은 가축 약탈 때문에 목축으로는 더 이상 필요한 식량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투르카나 지역은 케냐에서도 가장 심한 사막지대인데다가 계속적인 기근으로 고통받아 왔다. 연간 강수량은 150~300 mm에 불과하지만 여름에는 기온이 37℃까지 이른다. 투르카나 지방에는 우기에만 형성되는 강이 2 개가 있는데 모룰렘 사업장은 그 중 하나인 케리오 강의 물을 이용하였다. 케리오 강은 1 년 중 6-7 개월 동안 물이 흐른다.

모룰렘 지역주민들이 이 케리오 강을 이용해 관개사업을 시작한 것은 1979 년으로 유목민들의 목축수입원을 보조할 수 있는 곡물을 재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1991 년에 이르러서는 관개사업계획의 문제점과 비효율적인 사업운영, 기술부족과 토질 및 수질의 악화로 사업 자체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고 지역주민들은 월드비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월드비전은 주민들과 협력하여 모룰렘 관개사업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1992-1994 년 간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1,240 km²의 농지를 개간하여 각 농가마다 약 1 km²의 농지를 활용할 수 있었다. 주민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운영체제 확립과 기술지도가 함께 이루어졌으며 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1997-2001 년에는 관개지를 2,500 km²까지 확장하여 애초의 사업목표대로 식량 필요량의 80%를 자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룰렘 사업의 일차적인 목표는 주민들의 식량 자급이었지만 환경보전과 식수 개발, 보건영양, 그리고 소득증대의 여러 요소들이 통합되어 실시되었다. 농작물 생산량 증가를 위해 다양한 종자를 소개하고 이 지역에 가장 적절한 농사방법을 선별, 도입하였으며 이는 다시 토양의 생산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환경보전에도 주력하여 이를 위한 주민 위원회를 따로 설립, 운영하였으며 모든 농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을 받고 각자 농지에서 식수사업을 개시, 총 12,350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 이외에도 관개수의 재활용, 케리오 강 수질 보존, 유기비료의 활용 등 이 지역 환경 전반에 미친 영향을 인정한 유엔개발계획은 모룰렘 사업장의 농민들에게 환경상을 수여하였으며 투르카나 지방의 다른 지역에도 모룰렘 사업모형을 도입할 계획에 있다.

모룰렘 관개사업으로 이 지역 주민들은 가뭄 기간에도 식량을 얻을 수 있게 되어 5 세 미만 아동들의 영양실조율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한 식량 자급문제를 환경보전문제와 통합함으로써 장기적인 주민들의 자생력 강화를 이룰 수 있었다. 모룰렘 사업은 전세계적인 환경파괴로 잦은 가뭄에 시달리던 지역에서도 식량 부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가능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특히 환경보존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예시가 되고 있다.

[참고자료]

UNDP, 2002, Human Development Report 2001
World Vision, 2000, Morulem Irrigation Scheme(Morulem Project), KENYA
World Vision, 2000, Sustainable Development: The Environment for the Poor, CEO Briefing Number 10, Don Brandt
World Vision, 1999, Urgent Issues for the Children of the New Millennium

3. 제 3 강

일시: 6.18(화) 10:00-12:00

장소: 교보빌딩

강사: 이창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주제: WSSD 와 Local Agenda 21

1. 서론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금년 8월 26일에서 9월 4일에 걸쳐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이하 WSSD라 한다)에 전세계에서 약 65,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WSSD는 의제 21의 성과를 평가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함을 재차 확인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는 회의가 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WSSD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지난 5월 27일에서 6월 7일에 걸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이하 WSSD라 한다) 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공식적으로는 WSSD 준비를 위한 마지막 회의였다. 그런데 재정지원, 교역조건, 세계화 등의 이슈에 대해 참가자들간에 갈등을 빚음으로써, WSSD 이행계획 초안(Draft Plan of Implementation for the WSSD)이 확정되지 못함으로써 WSSD 자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보고가 있다. 그리고 파트너십의 정의를 두고도 참가자들간에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고 한다. 예를 들면 미국 대표단은 타입 2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타입 2 파트너십을 선진국들이 강조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함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하간에 이번 발리회의의 지방의제 21을 다루는 지방

정부 세션에서, 지방정부가 대부분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부문과 정부 및 시민단체간를 서로 연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특히 이번 발리회의 둘째날인 5월 28일에, 사이드 이벤트 중의 하나로 요하네스버그+10이란 주제의 회의가 있었는데,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이 주관한 이 이벤트는 WSSD 이후의 의제 21 이행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진행되었다.

요하네스버그+10이 너무 앞서나가는 논의라면 여기서 잠시 눈을 뒤로 돌려 요하네스버그-10을 살펴보자. 1992년 리우회의 이후 지난 10년간의 성과에 대한 평가는 논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구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면서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 다양한 모범사례와 성공경험의 소개와 교환, 행동계획의 실천, 행동과 의식의 변화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리우회의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점에서 리우회의 이후의 성과는 나름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들린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첫 번째 지구차원의 환경위기를 알리는 알람 시계고, 1992년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가 두 번째 알람 시계였다면,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WSSD는 세 번째 알람시계이면서, 마지막으로 울릴 알람 시계일 수 있다는 점에서 WSSD의 중요성은, WSSD 자체가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글은 WSSD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한 후, WSSD 준비과정에서의 지방의제 21를 둘러싼 쟁점과 새로이 제기된 이슈를 설명하고, 향후 과제와 전망을 제시한다.

2. WSSD의 의미와 한계

가. WSSD의 의미

WSSD 본회의를 중심으로, 지방정부 포럼(Local Government Forum), 시민사회단체 포럼(NGO Forum), 청소년 회의>Youth Summit), 도시녹화회의(Urban Greening Congress) 등 주요 이해관계자별 회의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WSSD 회의기간 중에 열린다. 특히 시민사회단체 포럼은 WSSD 개최일보다 일주일 앞선 8월 19일부터, WSSD가 열리는 곳에서 자동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Expo Center에서 열리는데,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전회의를 통하여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 선언문을 통하여 정상회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고 있다.

WSSD는 국가원수, 정부대표단, 시민사회단체와 기업 등 주요그룹의 대표를 포함하는 수만명의 회의참가자들로 하여금, 삶의 질을 증진하면서 자연자원도 보전해야 한다는 어려운 과제에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면서 이에

도전하도록 할 것이다. 한편 WSSD 는 세계 각계각층 지도자로 하여금 의제 21 을 더 잘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계량화가능한 목표치를 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데 회의 개최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WSSD 의 의미는 한마디로 말하여, 리우회의 이후 이루어진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다. 사실 리우회의에 의해 의제 21 의 이행성과를 모니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구가 UNCSO 이다. 이 UNCSO 는 매년 장관급 회의를 열어 의제 21 의 이행상황을 점검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UNCSO 는 이번 WSSD 의 준비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다.

WSSD 는 bottom-up 방식으로 회의를 준비하고 있는 독특한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전세계를 5 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을 다시 하부지역으로 나누어 이해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WSSD 준비회의를 개최하여 의제를 정하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역별로 정해진 의제들이 WSSD 에 모여지는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이제껏 지구차원의 정책결정과정에서 시도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방식이다. 창의적이기는 하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문제도 없지 않다. 하지만 WSSD 는 이러한 bottom-up 방식이 지방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지구적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WSSD 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자는 다음의 다섯 가지 감상 포인트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미국의 지구환경정책 변화 가능성
- 2)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정의 시도
- 3) 경제 세계화에 대한 논쟁
- 4) 의제 21 의 이행상황 평가와 9 개 주요그룹별 활동 논의의 통합
- 5) 핵심 의제와 새로운 의제

나. WSSD 의 한계

WSSD 와 같은 대규모 국제회의를 준비하면서 bottom-up 방식을 취하다보니 회의 준비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정확한 세부 프로그램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몇 가지 중요한 의제와 이와 관련한 문건과 행동계획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00 년 12 월 20 일 유엔총회 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WSSD 가 리우회의에서 채택된 의제 21 을 재협상하여 그 내용을 대폭 수정하거나 리우선언의 정신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이번의 WSSD 에서는 새로운 의제 21 이나 리우선언과 같은 주요 선언이 제안되지는 않을 것이며, 바로 이 점이 WSSD 의 한계로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즉 새로운 것이 별로 없는 회의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에너지가 WSSD 의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지만 그 중요성에 비하여 크게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의제 21 의 40 개 장에

에너지를 주제로 한 독립적인 장이 없으며, 종합적으로 에너지문제를 다루는 UN 산하기구나 국제환경협약도 없는 실정이다. 유엔산하 위원회에서 에너지 정책을 처음으로 다룬 것이 2001년의 제9차 CSD 회의였다는 점은 지금껏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문제가 얼마나 등한시되어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UNEP 와 유엔인간정주센터의 이사로서 있는 클라우스 토퍼(Klaus Toepfer)는 1992년 당시 자신이 독일의 환경부장관으로서 리우회의에 참가했을 때의 속마음을 최근 밝힌 바 있다. 자신은 물론이고 일행들 중 그 어느 누구도 리우회의가 그렇게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인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클라우스 토퍼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리우회의 참가자들이 그러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리우회의의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환경운동은 리우회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논의해야 할 정도가 되었다.

4월 22일 현재, 유엔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WSSD에의 정부 및 정치지도자의 참여가 매우 미약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내 시민사회단체가 부시 대통령이 WSSD에 참석하도록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 중 영국의 토니 블레어 수상과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WSSD 참여를 발표한 정도에 머물러 있다. WSSD가 리우회의에 비견할 만한 특별한 이슈를 다루지 못한다면 세계 주요국 정치지도자가 대거 참석할 유인은 그리 크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지구의 날 네트워크 위원장인 캐서린 로저스(Kathleen Rogers)가 금년 지구의 날을 맞아 한 이야기처럼, WSSD는 기회이면서 또한 위험도 안고 있는데, 이 회의가 아무런 성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위험이라는 것이다.

WSSD는 지난 10년간의 의제 21 이행성과를 재검검하고 향후 10년간의 의제 21 실천계획을 재수립할 전망이다. 이 때 선진국의 후진국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 실천계획의 실현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이다. 리우회의 당시 의제 21 이행을 위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매년 약 1,250억 달러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공적개발원조의 규모는 1992년의 583억 달러에서 2000년의 531억 달러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따라서 의제 21 이행을 위한 획기적인 재정보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WSSD의 성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WSSD를 지배하는 이념은 여전히 지속가능한 발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말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사용되고는 있으나 아직 일반대중의 인식 속에 뚜렷하게 자리잡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대중언론매체 종사자들에게도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이 이념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지 못하였다거나, 대중매체 종사자들이 이 용어를 충분히 홍보하지 못한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여하간에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도는 10년전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WSSD 에서는 다른 공용어도 있지만 주로 영어로 회의가 진행될 것인데, 우리나라 참가자들 중 각종 회의에서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면 언어 장벽으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게 될 우려도 있다는 점도 지적해두고 싶다.

3. WSSD 준비과정에서의 지방의제 21 논의

이 장에서는 우선 2000 년 11 월부터 2001 년 12 월까지 ICLEI 가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의제 21 현황조사결과를 잠시 살펴본 다음 WSSD 준비과정에서 지방의제 21 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113 개국의 633 개 지방자치단체와 146 개 지방자치단체 연합체가 본 조사에 응했다. 1997 년 조사시에는 64 개국 1,812 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5 년 뒤 이루어진 이번 조사에 의하면 113 개국 6,416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제 21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지방의제 21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80% 이상인 5,292 개가 유럽 36 개국이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18 개국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의제 21 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국가들이 수립한 지방의제 21 은 전세계 지방의제 21 활동의 41%에 이른다. 지방의제 21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61%가 지방의제 21 행동계획을 수립완료하였고, 수립된 지방의제 21 행동계획 중 46%는 환경문제 중심이고,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이 통합된 지방의제 21 을 수립한 곳은 36%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향후 3-5 년간에 걸쳐 가장 중시해야 할 의제로 자연자원 관리, 대기질, 수자원관리, 에너지 관리 및 교통을 들었다. 지방의제 21 과정이 59%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제도적으로 통합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제 21 이 가장 큰 성과를 거둔 분야는, 쓰레기 감소, 환경교육, 수질개선, 도시미화 분야이다. 지방의제 21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장애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 지원과 정치적, 행정적 지원 부족을 들었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에는 세제 혜택을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많았다.

지난 5 월 27 일에서 6 월 7 일에 걸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던 WSSD 준비위원회 제 4 차 회의에 제출되었던 지방정부 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이 보고서는, WSSD 가 다음과 같은 사항의 중요성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첫째,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훌륭한 지방 거버넌스
- 둘째, 도시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상호 의존성
-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 증진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넷째, 중앙정부,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
다섯째, 지방차원에서의 다양한 행동을 증진하고 장려할 기회
한편 모든 단계의 정부들에 의한 공동행동전략으로 다음의 5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 첫째, 지방정부의 강화
- 둘째, 정부간 및 정부내 협력 강화
- 셋째, 국제 연대와 협력 증진
- 넷째, 새로운 지속가능성 문화 형성
- 다섯째, 지속가능한 사회 및 도시로의 전이 가속화

그리고 앞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벌일 주요한 운동으로 지방의제 21, 지방행동 21, 기후보호, 지속가능한 물 이용,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 재앙의 관리와 예방의 6 가지를 들고 있다. 특히 지방의제 21 과 관련해서는, 매년의 예산계획이나 법정 계획활동과 지방의제 21 을 연계시킴으로써 지방의제 21 을 지방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참여적 계획과정으로서 발전시켜나가는, 장기적인 국가적인 캠페인을 벌어나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행동 21 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방의제 21 을 수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의제 21 행동계획의 이행을 확대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특정한 전략으로서의 지방행동 21 을 만들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를 들면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업을 선택하고 계획을 세울 때의 투자 프로그램의 기준을 도입하는 것들이 지방행동 21 작업의 일환이 될 것이다.

WSSD 의 지방정부 세션은 "지방의 행동이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8 월 27 일(화)부터 30 일(금)까지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다. 지방정부 분과(Local Government Session: LGS)의 주목적은, "모범 사례, 성과, 문제점, 대안 제시 등에 관한 발표 및 토론과 각국 중앙정부 대표단과의 접촉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ICLEI 는 이것을 이른바 이번 WSSD 의 타입 1 성과라고 부르고 있다.

WSSD 에서의 지방정부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첫째, 지방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한 전달 주체이며 따라서 지구적 차원에서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은 지구, 국가, 광역, 지방 차원에 걸친 모든 차원의 정부간 협력 강화를 필요로 한다.
- 셋째, 지방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 넷째, 지방적 차원에서의 리더십 개발에의 투자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킬 것이다.
- 다섯째, 새로운 지속가능성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는 이와 관련된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서 실현시키는 수단을 제공한다.
- 여섯째, 지방정부는 지속가능성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WSSD 에 참여하는 많은 참석자들에게 제대로 전달

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번 WSSD 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세부적 활동이 전개된다.

첫째,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지방정부 대표들에게 브리핑을 잘 함으로써, 그들이 이번 WSSD 회의과정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

둘째, 새로운 행동지향적인 파트너십 이니셔티브와 책무를 제시한다. 이것은 UN 산하기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연합체 등과 협력하여 이행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이와 같은 공식 조직에 한하지 않는다. 다부문간 파트너십이 장려되고 촉진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타입 2 성과'다.

셋째, 지방의제 21 의 새로운 단계로서의 지방행동 21(Local Action 21)을 출범시킨다. 이 지방행동 21 은 요하네스버그 회의 이후 향후 10 년간 추진할, 효과적인 지방정부 프로그램과 캠페인을 위한 기반을 닦는다. 지방행동 21 은 이른바 요하네스버그 요청(Johannesburg Call)을 지지함으로써 승인될 것이다.

넷째, 지방정부 선언(Local Government Declaration)을 승인한다. 이 지방정부 선언에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무뿐 아니라 국제적 지방정부연합체, 중앙정부, 유엔기관 및 기타 국제사회에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

여기서 지방정부 선언에 대하여 잠시 살펴보자. 아직 초안상태인 이 선언문은, 서문, 배경, 원칙, 지방정부의 책무, 국제 도시 및 지방정부협의체에 대한 요구, 중앙정부에 대한 요구, 유엔 및 국제사회에 대한 요구,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언문 초안 중 몇가지 특기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선언문 초안의 배경 부분에서, 의제 21 의 이행을 위한 조치들이 의제 21 문건에서 확인했던 도전들에 대처하는 데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지방의제 21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칙 부분에서는 4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속가능한 발전, 민주적(혹은 효과적) 지방분권화, 굿 거버넌스, 협력과 연대의 원칙이 그것이다. 지방정부의 책무 부분에서 특기할 점은 발전의 경제, 사회, 환경 및 문화적 측면을 통합하는 도시 및 지방개발 전략을 발전시킬 책무가 지방정부에 있음을 천명하면서, 지난 10 년간의 지방의제 21 경험에 기초하여 지방행동 21(Local Action 21)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는 데 부합할 것이라는 점을 제안하고 있다. 국제 도시 및 지방정부 연합체에 대한 요구 부분에서, 이러한 연합체들이 유엔지방자치단체자문위원회(UN Advisory Committee of Local Authorities: UNACLA)가 유엔과 세계 여러 나라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 일종의 포털(portal)의 역할을 하도록 이 조직의 활동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엔 및 국제사회에의 요청 부분에서, 유엔 및 국제사회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동등한 자격을 가졌으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굿 거버넌스의 성공에 있어 중요하며, NGO 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지방정부 분과에 참여할 수 있는 참석자의 수는 제한된다. 따라

서 시장, 도지사, 지방정부의 선출직 공무원 및 고위 공무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연합회 대표 들에게 우선적으로 회의에 참여할 기회가 제공된다. 회의 참석자를 배정할 때, 지역 및 성별 안배에도 특히 신경을 쓰도록 하였다. 지방정부 분과는 제한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는 보안조치가 심한 제 1 지역에서 열린다. 공식적인 인가증을 가진 대표단만이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 대표단 및 이에 준하는 분과의 참석자들은 지방정부 분과에 참석할 것이 장려된다.

4. WSSD 및 지방의제 21 의 과제와 전망

가. WSSD 의 과제와 전망

WSSD 가 가진 몇가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제 21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수단이 강구될 WSSD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부문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WSSD 에서 기후변화협약을 비롯한 6 개 국제환경협약 및 의정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무역과 환경의 연계성에 대한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아래에서 WSSD 에서 다루어질 주요 이슈들을 전망해본다.

우선 WSSD 에서 세계환경기구(World Environment Organization)와 같은 국제환경기구 설치의 필요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UNCSD 의 위상 및 향후 운영방향과 연관되어 있다. UNCSD 가 유엔기구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 현 조직의 효과성, 현재의 기능과 앞으로 다루어야 할 사업계획의 범위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이다.

WSSD 에서 가장 어렵고, 그래서 의미 있는 논의는 경제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계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지구환경금융(Global Environmental Facility),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질 것인가 하는 점들이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WSSD 는 세계경제 및 무역질서를, 환경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원칙을 기초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편 WSSD 에서는 리우회의와 관련된 6 개의 주요 국제협약 및 의정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있을 전망이다.

세계화, 빈곤,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에너지, 건강, 생물다양성, 담수, 자원조달과 확충, 기술이전, 거버넌스 등의 부문으로 나뉘어 WSSD 에서 부문별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여성, 청소년, 원주민, 비정부민간조직, 지방정부, 노동자 및 노동조합, 기업 및 산업, 과학기술계, 농민 등 9 개 주요그룹별로도 해당 그룹의 핵심주제별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bottom-up 접근방법이외에 WSSD 는 다부문간 통합적 논의구조를 통한 접

근방법이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세계화라는 주제를 다룰 때 이를 빈곤, 소비와 생산, 에너지 등의 부문별 문제와 연계시키는 한편, 여성, 지방정부, 기업 등 주요그룹과도 연관시키는 부문간, 그룹간 통합적 접근방법이 WSSD의 모든 관련회의에 공통되는 접근방법이 될 전망이다.

WSSD에서 새로이 다루어질 과제로는 우선 환경안보 문제를 들 수 있다. 물, 어업, 식량안보 및 환경난민과 관련된 환경안보 문제가 WSSD에서 중요한 이슈로 제기될 전망이다. 그리고 WSSD가 성공적인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재원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좀 더 명확한 프로그램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개도국의 과도한 외채문제도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다.

나. 지방의제 21의 과제와 전망

WSSD는 지방의제 21 운동사에 있어 새로운 획을 긋는 중요한 회의가 될 전망이다. 지방의제 21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계획체제로 발전해나갈 것인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로 뿌리를 내릴 것인지는,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지방의제 21이 21세기의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계획 시스템으로 발전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면, 이제 도시계획가는 기술자가 아니라 정치가로서 그 역할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多發聲都市(multi-vocal city)내에서 어린이,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점점 크게 들리게 될 것이며, 기존 기득권층의 목소리는 점점 잦아들게 될 것이다. 지방의제 21은 그러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담는 그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이다. WSSD를 계기로 하여 지방의제 21이 과정으로서, 운동으로서의 이미지를 버리고 실체로서, 제도로서 자리잡아갈 것을 기대한다.

지방의제 21이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잡았지만, 아직 제도화되지는 못하고 있다. 지난 약 10년간의 지방의제 21 운동을 통하여 우리나라 시민사회단체가 확실히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해관계자 대화의 장에서 중요한 한 축으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지방정부 정책결정과정의 새로운 절차로서의 패러다임 변화로까지는 아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의제 21 운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며 아직은 실험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지방의제 21 운동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즉 지방의제 21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계량화하고 어떻게 그 성과를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에 하루빨리 도달하는 것이 그 전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제 21 활성화를 저해하는 제도적 장애요인들을 제거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지방의제 21 실천협의회 사무국장 및 직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 부여의 문제, 지방의제 21 활성화 조례 제정, 지방의제 21 담당부서를 현재의 환경관련부서에서 기획예산담당부서로 전환시키는 문제 등의 과제가 놓여 있다. 지방의제 21 전담부서를 과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이

과를 시장 직속에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WSSD 를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 지방의제 21 의 그간의 성과를 여러 측면에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의제 21 이 우리나라의 제도적 자본 형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지적 자본, 사회자본, 정치자본의 셋으로 나누어 지방의제 21 의 성과를 평가함으로써 지금까지 가지적 성과만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제 21 평가의 단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지방의제 21 활성화를 위해, 유명인사를 지방의제 21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많은 사람에게 홍보하는 한편, 대학 및 대학원의 관련 학과 교과목 개편도 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WSSD 는 지난 10 년간의 의제 21 이행성과를 평가하는 것을 기조로 하는 국제회의이다. bottom-up 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의가 향후 국제경제, 사회질서를 개편할 수도 있는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ICLEI 는 WSSD 의 지방정부 세션을 준비하고 주관하는 조직으로서 지난 수년간 많은 일을 해왔다. 그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이 선언문 중 이제 지방정부를 더 이상 NGO 라고 부르지 말 것을 유엔에 요청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유엔의 위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번 WSSD 에서 지방행동 21 이 제안되고 있다. 지방행동 21 은 일종의 지방의제 21 후속편으로서 2002 년 이후 10 년간에 걸쳐 지방적 차원에서 의제 21 을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이 지방행동 21 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어떠한 형식에 담겨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지방의제 21 과 관련하여 이번 WSSD 가 가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WSSD 에서 파트너십이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는 점이다. 아직 타입 1 파트너십과 타입 2 파트너십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며, WSSD 기간 내내 이 파트너십 문제는 계속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WSSD 에서 경제, 사회, 환경에 문화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발전 이념이 정립되면서 파트너십과 통합의 원칙이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게 되어 지방의제 21 이 제도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4. 제 4 강

일시: 6.18(화) 13:00-15:00

장소: 교보빌딩

강사: 박은경 (환경과문화연구소 소장, 세계 YWCA 부회장)

주제: 세계 여성 환경운동의 어제와 오늘

식민시대이후에 소위 개발, 발전이라는 대 목표를 놓고 달려온 세계 각국이 지구차원에서 맞닥트린 암담한 공동 문제는 환경의 잘못된 운영과 파손이다. 발전과정은 풍요와 안정을 보증하는 수표가 아니고 세계의 빈곤층을 증대시켜서 경제와 성불평등의 아픔을 확대시켰고, 환경파손은 빈곤층의 생계와 건강을 위협하게 되어서, 결국 지구공동체는 부도처리 되어서 공멸되는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를 맞고 있다.

이것이 바로 환경문제가 환경의 북.남 국가간의, 이념간의, 남녀간 및 세대간의 공동 과제일 수 밖에 없는 까닭이다. 특히 개발의 한계속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통제와 여성의 통제가 직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인식이 남쪽 국가들에서는 여성, 환경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논의를 촉진하였고, 북쪽 국가에서는 페미니즘과 생태여성학의 도래를 가져왔다(Charkiewicz & Wieringa 1994:1).

이 글에서는 여성을 환경과 지속 가능한 개발등과 연계하여 생각하면서 여성이 어떻게 자연을 살아 움직이게 하고, 인간사회의 서로간의 건전한 관계 확립으로 지구공동체의 공존을 지속시키기 위해 노력한 세계 여성환경운동의 역사와 활동을 UN의 작업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생태여성학은 필자가 다루기에는 벅찬 분야이기에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

1. 세계 여성환경운동의 추이

근래 환경운동의 효시는 아마도 Rachel Carson 의 Silent Spring(1962)의 출간일 것이다. 미국의 야생보호국의 한 직원이 DDT 를 사용하게 되면 새들이 전멸되어서 봄이 와도 새들의 지저귀이 없는 봄을 맞을 것이라는 이 충격적인 보고는 당시 케네디 정부의 DDT 사용금지(1971)라는 획기적인 정책을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직적인 세계 여성환경운동은 UN 활동으로 전개되어졌다. 1992 년 지구환경정상회의같은 UN 환경회의의 시발점인 1972 년 스톡홀름의 UN 인간환경회의는 산업화로 줄달음치는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장이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은 놀웨이 수상 Gro Brundtland 가 의장으로 있던 WECD(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Development)가 1987 년 출간한 ' Our Common Future'는 환경운동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이 선언에서 지속불가능한 발전과 남/북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를

환경위기와 연계되었고, 여성과 어린이들이 세계 빈곤과 문맹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환경분야에 여성의 문제가 정식으로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UNEP(UN Environmental Program)가 설립되면서 여성과 연관된 자원과 환경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UNEP의 이러한 역할은 1986년 여성과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한 Committee of Senior Women Advisors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그 내부에 설립되면서 고위급 여성자문관들의 전문적인 의견이 세계 환경운동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환경관련회의에서 여성의 관점이 부각되는 동시에 UN이 주최한 세계 여성대회들도 지속적으로 열리었다. 1975년 멕시코시에서 국제여성의 해 세계대회(World Conference on the International Women's Year)가 개최되어서 전세계 여성들의 대화의 장이 열렸고, 동시에 <1975 세계행동강령>을 작성하였다. 1980년의 코펜헤이겐 회의에서 <1975 세계행동강령>을 점검하는 작업이 시작되었고, 1985년 나이로비에서는 10년을 되돌아보는 여성평등, 발전, 평화를 위한 UN 10년간 활동을 점검하는 세계대회(World Conference to Review and Appraise the Achievements of the UN Decade for Women Equality, Development & Peace)가 지속되었다. "평등, 발전, 평화"라는 주제로 세계여성에 대한 관심은 연이은 세계 여성대회를 거치면서 조금씩 확산되어 갔으나 각 국가, 지역, 지구 차원에서의 여성의 영향력은 크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다. 나이로비회의에서는 NGO Forum 85가 동시에 개최되었는데, "Women Nurture the World"라는 주제의 다양한 워크샵에서 일반 여성들의 입장이 반영되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다.

1990년이 되면서 UNCED(United Nations Conferenc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가 <의제 21>라고 불리우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강령을 만들기 위한 준비과정에 사회각계각층의 참여를 강조하자, 여성도 그 중의 한 당사자 집단으로 참여할 당위성을 갖게 되었다.

UNCED 준비과정을 여성의 비전과 지도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유일한 기회로 본 미국의 두 여성지도자인 국회의원 출신인 Bella Abzug와 언론인으로 활동가인 Mim Kelber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90년 4월에는 정치인, 활동가, 학자를 비롯한 40여명의 세계지도자가 모여서 IPAC(International Policy Action Committee)를 구성하여 세계여성들의 연결 고리를 만들었다. IPAC은 전지구 여성운동이 공통의 '행동의제'를 일제히 채택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려는 자리가 필요함을 절감하고, 1991년 11월 드디어 행동의제를 전 세계여성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당시 Bella Abzug 중심으로 새로 구성된 국제여성 조직인 WEDO(Women's Environment & Development Organization)는 미국 마이아미에서 World Women's Congress for a Healthy Planet를 열었다. 다양

한 주제의 워크샵이 열렸고, 5 명의 여성판사가 15 명의 여성전문가들로부터 환경 오염과 개발의 위기가 어떻게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쳤으며, 여성들에게 어떻게 연계되느냐에 대한 증언을 듣는 법정도 열렸다. 83 개국에서 온 1500 명의 여성들은 이 자리에서 결국 만장일치로 <여성행동의제 21>을 채택할 수 있었다. 21 세기 지구와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여성들의 제안인 <여성행동의제 21>은 당시 UNCED 사무총장인 Maurice Strong 에게 전달되어서 리우환경정상회의에 반영되어서 <의제 21>의 24 장에 '지속적이고 평등한 개발을 위한 여성의 지구적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등재되었다.

2. 여성행동의제 21

IPAC 이 제안하였던 <여성행동의제 21>은 1991 년 세계여성의회에 모인 다양한 남/북, 동/서 여성들의 일, 가치, 생각들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여성과 남성들이 함께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도전을 도출해 냈다. <행동의제 21>은 건강한 위성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자신, 우리 가족, 미래세대들을 위하여 수행하려는 맹세이다.

행동의제 21 은 또한 각국의 NGO 와 정부, 기업에게 다양한 행동을 수행하도록 권고한다. 그 행동강령들은 다양한 주제로 여성에 관련된 토지권리, 신용, 외국 빛과 교역, 빈곤, 여성의 건강과 성, 재생산권리, 생물다양성과 생물기술, 환경 윤리및 환경과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성의 소비능력등의 문제를 다루는 실질적인 지침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노동력을 국가 경제력에 포함시켜야 하고, 여성들이 평화운동의 주역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군대경비의 50%만 줄여서 환경 친화적인 목적으로 쓰고, 군대를 자연체계를 점검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자연재해때 시민구조대로 활동하는 환경보호부대로 전환시키라는 지적도 있다. 토지 및 다른 자원에 대한 여성의 제한적인 권한, 인구 폭발로 빚어지는 환경피해, 자연 및 인간재해, 친환경적인 생산활동과 화석연료사용을 줄이도록 장려하는 소비자로서의 여성의 권한 행사가 충분히 지적되어 있다.

1992 년 리오데자네이로의 지구정상회의에서 다양한 여성 단체들--지역중심집단에서 국제조직에 이르기 까지--은 그들의 독특한 삶의 경험, 관심사, 관점, 총체적인 분석등을 PLANETA FEMEA 라고 칭해진 대회에서 건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 자리에서 국제 여성 환경운동조직체들은 <여성행동의제 21>에 기초한 ' 행동프로그램' 을 만들어 냈다.

리우회의에서 NGO 들의 화려한 역할이 있었다. 1,700 여개의 NGo 와 3 만여명이 참여한 비정부기구 포럼에서 특히 <Global Women's Treaty for NGOs Seeking a Just and Healthy Planet> 이라는 협약도 만들어 냈다.

<여성행동의제 21>은 지구정상회의에서 지속가능 사회와 지구적 책

임을 위한 환경교육에 관한 조항, 소비와 삶의 유형에 관한 조항 및, 인구와 환경조항에도 반영되었다.

특히 <제 21>의 24 장에 ‘ 여성과 지속가능한 개발’ 의 내용은 2000 년까지 각국 정부는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개발과 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헌법, 법적, 행정적, 문화적, 행동, 사회, 경제적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의제 21 은 건강과 환경의 기본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생태계의 자정능력안에서 자원을 효과있게 사용하여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자연속에서 건강하고, 안전하며 생산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선도하고 있다.

1992 년 6 월의 리우회의 직후인 9 월에 <의제 21>을 전세계 여성들을 중심으로 세력화하기 위하여 NGO 들의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지역차원의 여성과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The Interregional Workshop on the Role of Women in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가 북경에서 열렸다.

1993 년에는 International Congress on Women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이 <의제 21>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전략을 만들고 동시에 연대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모스크바에서 열렸다. 여성환경의 문제를 사회문화적으로 접근하고 에코페미니즘의 이론적 접근을 가시화하였다. 2000 년 7 월에는 독일의 Dessau 에서 ICLEI 와 함께 WEDO 는 세계 각지역의 의제 21 에 반영된 여성의식과 여성들의 참여를 조사하고 권고 하는 워크샵을 열었고, 앞으로 세계 여러 지역을 의제 21 의 여성화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계획하고 있다.

3. 최근 여성환경 협약의 내용

1) 베이징 행동강령

1992 년의 리우 지구정상회의후 설립된 UNCSO(UN Commiss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는 <의제 21>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가, 지역, 지구차원에서 진행되도록 지원, 검토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히 1991 년 조직된 세계 여성 환경 NGO 인 WEDO 의 역할이 두드러 졌다.

WEDO 는 제 4 차 UN 여성대회의 행동강령도 작성하여 CSW(Commission of Status of Women)에 제출하였다. 이 문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여성건강과 복지 증진,2) 평등한 환경관련 의사결정권, 3) <여성행동의제 21>로 구성되어 있다. 1985 년 나이로비대회 이후 10 년만에 베이징에서 1995 년에 열린 제 4 차 UN 여성대회가 열렸다. 베이징 행동강령의 k 장은 여성과 환경이 특별히 여성에 관련된 조항이다.

베이징 행동강령은 전략적 목표와 여성의 발전을 저해하는 기존방

해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 국제조직, 비정부조직, 사적인 영역등이 취해야 할 행동을 구체화 하였다. 이는 `나이로비 여성발전 미래전략'의 이행 촉진에 목적을 두고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의사 결정등에 충분한 몫을 차지하는데 장애요소들을 제거하도록 촉구하였다.

베이징강령의 목표는 1)전세계적 양성 평등의 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2)여성의 힘을 증진시키기 위해 강령을 마련하였고, 여성의 세력화를 통하여 여성문제가 고립된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인권과 사회정의차원의 문제임을 인식시켰다. 3)동시에 행동하기 위한 중대분야를 여성과 빈곤, 여성의 교육과 훈련, 여성과 건강, 여성에 대한 폭력, 여성과 군사갈등, 여성과 경제, 여성과 정치, 의사결정, 여성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여성의 인권, 여성과 미디어, 여성과 환경, 소녀문제등의 12 개 주요 관심 분야로 선정하였다.

특히 전략목표 3 항을 두어서 위의 12 개 주요 관심 분야를 점검하였는데, K 부문에 분류된 환경분야는 전략목표는 1)모든 수준의 환경 의사결정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2)성에 대한 관심과 관점을 지속 가능한 개발정책과 프로그램에 통합시키고, 3)개발과 환경정책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안을 국가, 지역및 국제적 차원에서 강화 혹은 설정하려는데 두었다.

베이징 행동강령은 일반적인 환경과 여성의 연계를 환경파괴가 여성을 생산활동에서 제외시키고, 안전한 환경에서 제외할 뿐 아니라 가난과 환경악화가 직결됨을 강조하였다. 산업사회의 지속 불가능한 소비생산유형은 가난과 불균형을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위에 기술한 3 전략목표에 따라서 정부와 국제조직, 비정부 조직, 사적인 조직들이 취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246-258 까지 9 쪽에 걸쳐서 장대하고 세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2). 베이징 + 5 결과문서: UN 특종의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이행을 위한 조치와 발의

"여성 2000: 21 세기의 성 평등, 발전 및 평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2000 년 6 월 5-9 일간 뉴욕에서 UN 특별총회가 열렸다. 이와 함께 세계 NGO 들의 회의도 6 월 2-9 일간 열렸다. 1995 년에 베이징에서 열렸던 제 4 차 세계 여성대회에서 전 세계 여성들의 평등, 발전, 평화를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적 도약으로 베이징 선언과 행동강령이 채택되었었다. 189 개국 대표가 설정하였던 이 강령은 여성의 세력화와 성평등이 가장 큰 의제로 등장하였다.

UN 특별총회에서 빈곤,건강,여성폭력, 세계화, 소녀문제등에 비하여 환경문제는 소홀히 다루어 졌다고 말할 수 있다. NGO 쪽에서도 환경회의가 두 번 열렸지만 물과 여성건강문제를 미국의 Kansas 대학의 연구기관이 NGO 들과 공동으로 다루려는 시도를 보이는 정도에 그쳤다.

마지막 결과문서작업은 환경에 관한 성취되어진 요소와 장애요소로 II 장에서 집약하였고, III 장에서는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의 전적인 이행을 위한 도전을 다루고 있다. II 장의 성취요소와 방해요소는 아래와 같다.

성취요소(24 조): 1) 국가 환경정책과 프로그램이 성의 관점을 반영하였고, 2) 성 평등, 빈곤 퇴치,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간의 연계를 인식한 정부가 여성의 수입을 가져오는 활동은 물론이고, 동시에 자연자원과 환경보호와 발전전략을 위한 훈련까지도 포함시켰고, 3) 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전통적인 원주민여성들의 생태적 지식을 포함한 여성의 전통지식을 간직하고 유용하게 사용하는 프로젝트들이 나왔다.

장애요소(25 조): 1) 환경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여성과 성 평등 혜택이 당면한 환경위기의 공적인 인식이 부족하고, 2) 여성들의 기술, 자원 정보에의 접근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특히 저개발국가의 성불평등으로 인하여, 여성들의 국제차원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환경에 관한 의사결정의 효과적인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3) 남성과 여성에게 환경문제의 영향과 의미가 상이함을 다루는 연구, 활동, 목적 전략 및 대중인식 제한이 지속되고 있고, 4) 환경퇴화를 포함한 환경문제의 진정한 해결방안은 외국점령과 같은 문제의 근원적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고, 5) 환경정책과 프로그램이 성의 관점이 부족하고 환경 지속가능성에 대한 여성의 역할과 공헌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성취요소와 장애요소 외에 이 결과문서에서는 III 장 베이징선언과 행동강령의 전적인 이행을 위한 도전에서 환경에 관련된 조항은 47, 106a,b, 129g, 136f 등의 5 개조에 그치고 있다.

47 조는 세계 여성의 대다수가 자급자족농업에 종사하고 환경자원의 이용자이므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자원보전과 이용에 대한 이들 여성들의 지식을 인정하고 통합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환경, 생활안전, 일상생활의 기본적 필요를 위협하는 재난과 위급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 관련 프로그램과 하부구조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106 a 조는 전통의학, 생물다양성과 원주민 기술에 관련된 원주민과 지역사회여성들의 지식, 발명과 행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 조약에 합치되는 국가법 제정을 필요에 따라서 고려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106 b 조는 성의 관점을 농민, 특별히 여성 농부와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환경, 농업정책과 방법을 시민사회와 협력하여 채택하도록 촉구하였다.

127 g 조는 지속가능하고 생태학적으로 건전한 소비와 생산유형에서 또한 자연자원 이용과정에서 성 관련 발전과 여성의 역할을 지원하는 공약을 재인식하고 있다.

136 f 조는 지속 가능한 환경과 자원이용수단, 프로그램에 성의 관점을 접목시킴으로서 의제 21의 이행과정에 여성과 여성 NGO 와 CBO 들의 중대한 역할과 지원을 인정하였다.

4. 여성환경 운동의 다각화

UN 여성회의(멕시코시티, 코펜헤이겐, 나이로비, 베이징회의)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여성의제 21>, <의제 21> 24 장, <베이징행동강령> K 장을 기본으로 한 세계여성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오고 있지만 여성이 주제가 아닌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다양한 UN 회의에서도 1990년대 후반부터 점차 여성의 지위, 역할, 활동등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기 시작하였다. 여성에 관한 세계적 논의는 여성 회의 외에도 지난 10년간의 주요 UN 이 주선하는 주제별 회의는 지속 가능한 개발(리우회의), 인권(비엔나회의), 인구(카이로회의), 사회개발(코펜헤이겐 회의), 주거 및 정착(이스탄불회의), 세계식량(로마회의)등의 회의이다. 이들 UN 회의는 각 회의마다 5년후에 그 후속회의를 소집하여서 그 후속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세계 각국이 이를 수용, 채택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사이 모든 자료에 여성의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미 2.3 절에서 언급했지만 UN 여성회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여성의 사회,경제, 정치적 권리와 건강문제가 거론되어왔다. 특히 1985년 나이로비 제 3 차 여성회의에서 여성의 도약을 위하여 세운 전략은 찬란하다. 세계 각 지역에서 식량, 물, 농업의 주역인 여성들이 이루어 낸 경제적 발전에 끼친 결정적인 공헌을 인정하여야 하며 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들에게 에너지의 접근을 보장해 주고, 물, 건강, 교육, 효과적인 서비스와 교통시설을 가능하도록 제도화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성을 주류집단으로 인정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1995년의 베이징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행동강령에 여성의 관심과 관점을 접목하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에게 여성의 지식과 관점을 중시하고, 모든 정책결정과정과 연구에 참여하고, 이러한 여성관련 연구가 지속 가능한 자원과 환경 경영의 발전에도 잘 반영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부, 지역, 국제조직 및 NGO 들에게 여성들의 ‘ 힘 만들기(세력화)’ 운동을 인정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 개발위원회(CSD)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서 여성의 문제가 다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2000년 4월에 열린 지속가능 개발위원회(CSD)에서 다룬 에너지, 교통, 대기, 의사결정과 참여 관련정보 및 활성화된 환경을 위한 국제적 협력에서도 여성의 참여와 권리를 주장하는 조항이 삽입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에너지분야에서 거론한 <의제 21>의 4 장 ‘ 소비형태의 변화’ 에서 분명하게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여서, 지속 가능한 소비형태와 생

활양식을 부각시키는 가치 창조에 정부, 소비자와 생산자의 노력 외에 여성과 가정의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중시하였고, 이들의 미래 구매력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치고 있다.

또한 <의제 21>의 32 장에서 농민의 역할 강화를 다루고 있는데, 이 사항에서도 여성 농민들이 땅과 다른 자원의 투자과정에서 겪게 되는 경제적, 법적, 제도적 불이익과 불안감의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1997 년의 지속가능개발위원회(CSD)에서도 1995 년 베이징 행동 강령을 재 강조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숨씨와 지식은 물론 여성의 세력화와 동원이 긍정적으로 채택되어 져야 함을 재 강조하고 있다.

근래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에서 NGO 여성회의(Women Caucus)가 모든 지속가능개발위원회 회의마다 여성의 관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으로 각 대표들의 주의를 끌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0 년에 지속가능개발위원회가 토지이용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자, 여성회의는 1999 년 가을부터 여성과 토지사용에 관한 캠페인을 시작하였다. 여성회의는 UNCHS 와 협력하여 '여성과 주거' 프로그램을 정부, 정부간 기구, 여성집단, NGO 들에게 토지자원을 확보에서 성 평등적 접근을 유도하는 글을 보내고, NGO 뉴스레터인 OUTREACH 에도 실리면서 각국 대표들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켰다. 토지관련 CSD 초기 문서에는 여성관련 조항이 없었으나 이제 토지사용에 대한 여성의 권리와 접근에 대한 한 단락이 포함되었다. 2001 년 4 월 열린 CSD-9 차 회의에서 아난 UN 사무총장은 토지원리에 대한 정보와 의사결정과정과 관련된 여성의 요구를 언급하였다. 이는 주거회의에서 이미 여성, 소수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및 빈곤 노인층의 필요에 따른 우선권을 주도록 중용한 전례를 강조하였다

여성지위위원회(CSW)에서도 1997 년 여성과 환경이라는 주제에서 정부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여성의 빈민화를 막기 위하여 생산, 소비, 유형을 변화시키고 여성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세력화를 통하여 지역발전계획, 기본적인 설비, 통신, 교통 및 안전에 관련된 정책등에 참여하도록 중용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여성의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므로 정부측의 배려를 촉구하고 있다. . 이렇게 각종 UN 회의에서 공통된 주제에 여성의 관점을 부각시키는 연계가 활발해지면서 여성운동의 다각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5. 여성환경운동의 오늘의 과제:Rio+ 10/2002 여성의제

여성환경 운동은 세계 여성 운동과 맥을 같이 해 왔다 1970 년대 (1972 년 스톡홀름 UN 환경회의와 1975 년의 멕시코 UN 여성회의)에 동시에 시작된 UN 여성회의와 환경회의들은 점차 여성의 주류화와 세력화가 결국 인간사회가 지속 가능한 속성을 가진 사회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길임을 확인해 가고 있다.

경제적 안정이 성 평등의 가장 예민한 주제로 등장하는 까닭은 세계 절대 빈곤자 13 억명중 70%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있다. 빈곤을 퇴치하지 않고는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하여 UN 이 주관하는 국제 사회가 내 놓은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보존, 몬트리올 의정서등의 각 종 환경 협약은 물론, <여성차별 철폐협약>, <의제 21>, <베이징 행동강령>등의 각 종 여성 관련 협약들이 실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 4 월 30 일-5 월 2 일에 "2002 지구 정상회의" UN 준비회의(Rio + 10)가 뉴욕에서 열렸다. 내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부르크에서 열리게 될 200 개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환경 최대의 회의는 최근 환경 분야의 최대 관심사이다. 환경 보존에 여성의 역할이 날로 부각됨을 인식됨으로 세계 여성계에서 Rio + 10 준비에 각 국가, 지역, 세계 차원에서의 준비는 당연하다. 제 1 차 UN 준비회의에 9 개의 주요 집단으로 등장하게 된 "여성, 아동과 청소년, 원주민, NGO, 지방권력가, 노조, 기업과 산업, 과학과 기술, 농부등의 집단" 대표들이 공식적으로 10 분씩 주어 진 시간에 자신들의 집단의 소신을 밝혔다. <2002 지구 정상회의> 에서 각기 자신들이 어떻게 환경 정책과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려는 준비사항을 제 1 차 준비회의에서 발표하였다.

9 개의 주요 집단중 가장 큰 집단인 여성집단은 세계적 여성 환경운동단체인 WEDO(Women'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rganization)의 사무총장인 June Zeitlan 가 대표로 발표하였다. " 빈곤퇴치, 환경 정의 및 성 평등"의 세가지 관심사가 <2002 지구정상회의>의 여성들이 초점을 맞출 분야라고 피력하면서 새로운 <여성의제 2002>를 요하네스부르크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새 의제 2002 는 세계 남녀가 자신들의 입장을 각 지방, 국가, 자역정부들에 반영시킬 수 있게 기여할 수 있는 삶의 법칙이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될 문서이다. WEDO 를 비롯한 세계 여성조직들은 위의 세 관심사가 의제 2002 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CSD 의제 선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세계 절대 빈곤자의 70%를 차지하는 여성들이 빈곤 퇴치 없이는 과연 환경을 보호하고 성의 평등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내년 회의에서 던져 질 것이다. 한 사회에서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이 존재할 때 과연 기득권을 가진 집단만으로 건전한 사회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의 탈 빈곤화는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등장한다.

성의 평등의 사회평등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성, 인종, 종교 집단의 차별 및 종교,정치이념, 성등이 사회불평등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어느 집단의 소속이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된다면 그 사회는 결코 지속가능한 사회라고 볼 수 없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는 성의 평등화가 결국 경제적 지위와 환경보존에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될 수 밖에 없음이 남.북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지역의 사회를 돌아 볼 때 더욱 확실시되어가고 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세계 각 지역에서는 "의제 21의 성 관점화(engendering)"의 연구와 워크숍이 활발히 진행되리라 기대한다. 이제 한국의 여성환경운동가들도 세계의 환경과 여성의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한국내의 운동과 접목시킬 수 있는 길을 모색하여 전지구화 시대에 걸맞는 지구인의 역할을 담당해 내야 할 것이다.

[부록]

1990년대 이후 활발한 국제 여성환경기구 활동이 전개되었다. 세계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여성들이 국가 의사결정의 주류과정에서 배제된 역사 속에 살아 왔으므로 여성환경운동 NGO의 역할이 미래 환경운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대로 우리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지표가 될 것이다. 가부장적인 사회제도로 인하여 사회운영의 체계적인 연결망을 갖지 못하고 가정속에서 소외된 채, 소위 디아스포라로 살아 온 대부분의 여성들이 시민사회의 새로운 운영방법을 터득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 정치, 복지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들이 기존 체제에 갑자기 뛰어들 기제가 없으므로 자발적인 공동체인 NGO를 통한 사회운영에 여성들의 힘을 모으는 일이 현실적 일 것이다.

여기 부록으로 여성들의 환경관련 활동을 통한 사회 참여 단체를 소개하려고 한다. 여성 환경 운동은 대개 지방, 국가, 지역 차원의 정책과 의사결정과정의 참여를 촉구하는 여성주의적 시각과 개인차원에서 건강이나 소비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는 차원,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활발한 활동을 펴는 세 단체를 소개하려고 한다.

세계적인 여성환경기구의 대표격은 아마도 WEDO(Women's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rganization)라고 할 수 있다. 앞서도 언급된 바 있지만 1991년 Bellah Abjug와 Mim Kelber가 설립한 WEDO는 초창기부터 UN과 관련된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여성행동의제 21을 준비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였고, 여성지위 위원회(CSW)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1991년 마이아미에서 열린 World Women's Congress for a Healthy Planet를 통하여 <여성행동의제 21>을 작성하였는데 1995년 북경여성대회를 위한 준비위원회에 문서보고를 하였고 제 2회 World Women's Congress for a Healthy Planet를 북경대회에서 열어서 <여성행동의제 21>와 함께 의제 21의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각 지역에서 보내는 제안을 전문가들이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였었다.

이렇게 WEDO는 UN의 CSW를 통하여 환경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UN 회의마다 환경 집회를 주관하고 있다. 지난 6월의 Beijing + 5 UN 특충에서도 3번의 집회를 통하여 여성의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국제적 연대를 중시한다. WEDO는 이번 Rio+10 UN 제 1차 준비회의에서도 여성집단을 대표하여 준비사항을 보고하였고, <여성의제

2002>를 준비하고 있다.

WEDO 는 이러한 정책적면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일에 앞장서지만 유방암, 숲, 금연, POP(Persistent Organic Pollutant), 토지사용등의 주요 주제로 한 다국적 연구도 시도하면서 출판하는 사업도 하고 있다. 근래에는 ICLEI 와 함께 "지방의제 21 의 여성화"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열었고, 이 주제를 현재 Women Caucus 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조직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세계 각 지역의 연구 목적으로 대상 여성환경 단체와 연대를 펼치고 있다.

2)WEN(Women's Environment Network)은 10 년전에 몇 명정도의 여성들이 시작한 영국에 있는 여성환경단체이다. WEDO 와는 달리 가정내와 지역사회에서 긍정적이고 실질적인 캠페인을 하도록 지원하고 안내하는 운동을 주로 벌이고 있다. 자신들의 지역중심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캠페인을 확산하는 운동을 성공적으로 일구어 내고 있다.

chlorine 없는 종이/ 과잉포장/ dioxins/종이기저귀/ 초콜렛 농약/쓰레기/ 유방암지도 그리기/ 지역생산 식품/유전자조작 식품등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널리 퍼져 있고, 개선책을 찾기 위한 지역민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환경운동 단체이다.

3)EVE(Ecofeminist Visions Emerging): EVE 는 1991 년 뉴욕에서 McGuire 쌍둥이 자매가 중심이 되어서 이지적이고 정신적인 차원의 에코페미니즘을 찾아내기 위한 휴식처를 마련하는 의도로 시작하였다. 한 달에 한번 토론의 장이 열려서 에코페미니스트의 관점에 나오는 환경문제들을 점검하여 기록한 글 25 개를 편집하여 이들의 home-page 에 실리고 있다.

문화, 인종, 종족, 종교등 다양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에코페미니즘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주가 된다. 이는 현실감 있는 표현들로서 공통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내는 방법을 모색하는 집단이다. 이 모임에서 풀뿌리운동으로 개발해내는 지적인 에코페미니즘 이론을 학자들이 연구실에서 주장하는 에코페미니즘과 차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IV. WSSD 요하네스버그회의 보고

1. WSSD 세계민간포럼 회의일정

- 세계민간포럼(Global People's Forum) : 8.19(월)-9.4(수)
- 8.19-22 : 자체 워크숍. 사전 정상회의 (청소년, 장애인, 여성, 원주민, 시민, 노동, NGO 들이 각 그룹별로 모여 최종 의제 설정)
 - 8.24-25 : 국제전략개발 (관련 이해 당사자회의, 정치행동 및 결과, NGO 대표단 오리엔테이션)
 - 8.26-28 : 공통이슈 워크숍
 - 8.29-9.4 : 테마 워크숍
 - 8.31 : 국제 공동 행동의 날 (International Solidarity Rally)
 - 한국환경회의팀은 Rio+ 10 한국민간위원회의 주요활동에 동참하는 한편, 우리 팀에게 꼭 필요한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2.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팀 요하네스버그 활동보고

요약: 이상헌 (한국환경회의팀 지도 및 인솔자)

8월 22일(목)

오전 6시 30분 요하네스버그 공항 도착. 민간위원회 사무국이 있는 Ekudeni 숙소에서 일단 짐을 부림. Global People's Forum 이 열리는 Nasrec 에 가서 등록절차를 밟음. 사무국의 준비는 상당히 허술함. 나중에 내는 사람은 등록비 130불만 내도 되는 이상한 구조. 진행에 혼선이 상당함. 진행요원은 굉장히 많고, 친절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별 도움이 안됨. 무엇보다 전체 프로그램을 나눠주지 않고 있음. 그래서 상황 파악이 어려움.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가서 매일 상황을 체크해야 할 필요 있음. 저녁에야 원래 우리 숙소로 감. 숙소는 대체로 만족스러움.

8월 23일(금)

아침 식사 후 일단 Nasrec 에 도착함. 버스 바꿔 타고 Ubuntu Village 에 감. 역시나 길을 에둘러 가서 45분이나 걸림(원래 20분 거리임). 우분투 빌리지는 전시회가 많이 열리고 있음. 노점상도 많고, 각 국 정부, 유엔기구, 기업들의 전시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각종 문화 행사들이 열리게 되는 장소임. 자료 수집하고 독일관에 가서 Waterdome 에서 열리는 회의에 대해 정보를 얻음. 일정이 잘 맞지는 않지만 최대한 가보도록 해야 할 것 같음. 2시에 개최된다는 NGO opening ceremony 에 참석하러 이동. 우분투 빌리지에서 Newtown(도심)으로 뉴타운에서 Joburg Stadium 으로 이동. 도심을 처음 구경함. NGO 개막식은 종교 집회를 연상시킴. 종교단체 지도자들의 축

사로 시작됨(힌두교, 아프리카 전통 종교, 불교, 기독교...). 아프리카에서 종교의 중요성 다시 인식함.

8 월 24 일(토)

파라솔 여행사의 주선으로 SOWETO(South West Town)방문. 대표적인 흑인 빈민 주거지. 흑인 인권 운동의 발생지. 우리가 방문한 곳은 7000 여명이 25 개의 수도꼭지를 씀. 전기는 없음. 실업률은 무려 80%. 거주지 내의 탁아소도 돈이 없어서 이용하기 어려움. 아이들은 걸어서 학교에 다님. 방문한 한 가정의 경우 6 명이 한 침대에서 생활하고, 조리나 난방 연료로는 파라핀을 이용한 곤로를 씀. 엉성해서 무척 위험해 보임. 흑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별로 나아지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음. 소웨토 입구에 제대로 된 병원이 들어선 것이 그나마 개선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듯. 시장은 우리 시골의 5 일 장과 비슷한 분위기. 마당에서는 흙먼지를 날리면서 아이들의 전통 무용 공연이 벌어지고 있었음. 오렌지, 바나나는 넘쳐남.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험해보이지는 않은 곳이었음.

ANC 가 Freedom Charter 서명하고 행진을 벌였던 곳 방문. 소웨토 중에서도 가장 상황이 열악해보이는 곳임. 내리지는 못하고 차에서만 볼 수 있었음.

Regina Mundi(Queen of the World)를 방문. 아파르트헤이트 시절 ANC 운동의 중심지. 일체의 집회를 금지했기 때문에 교회나 가정에서 집회를 함. 레기나 문디는 그 대표적 교회. 과달루페 성모 신앙. 데스몬드 투투 주교도 이 교회에 관여하였음. 1976 년 6 월 16 일 과달루페 성모상 모시는 기념식 도 중에 300 여명의 어린이가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함. 교회 곳곳에 총탄 흔적이 있었음. 인권 운동가 스티브 비코의 이야기를 다룬 Cry for Freedom 이라는 영화가 생각남. 우리나라 명동성당과 같이 민주화의 산실임.

저녁에는 Lesedi 라는 민속촌을 방문하였음. 마림바(전통 타악기) 소리가 들기 좋았고, 줄루족과 보어전쟁 등을 통해 남아공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음. 전통 무용 공연도 인상적이었음.

8 월 25 일 (일)

환경회의 참석자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한 하루 여행을 떠남. 참석자는 이상현, 이정우, 남은경, 김미경, 강희영, 민남희. 중간에 장터 같은 곳에서 선물들을 샀. 선시티 방문. 인공적으로 만들어놓은 휴양지. 소웨토와 대비되어 무척 충격적임. 마이클 잭슨이 일정 지분을 투자한 Palace Hotel 은 말 그대로 궁전 같음. 한 나라안에서 이렇게 심한 빈부 격차가 있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음. 우리나라 캐러비안베이가 이곳을 본 판 것 같음.

점심 식사 후 조그마한 사과리로 감. 사자만 키우는 곳이었으며 사자 새끼를 직접 안아볼 수 있었음. 귀엽긴 했지만 발톱이 날카로워서 조심스러웠음. 농장에서 나온 후 시내의 카지노로 와서 저녁 식사함. 카지노 역시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유럽도시의 골목길이 있었음. 낮과 밤으로 되어있는데, 특이한 느낌이었음. 관광가이드 비용은 이 나라 물가를 생각하면 좀 비싼 느낌.

8 월 26 일 (월)

오전에 Nasrec Expo Center 에서 Openning Plennary 에 참가하였음.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잔뜩 기대했지만 오지 않았음. 주최측이 사전에 제대로 조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임. 대신 Global People's Forum 의 운영위원장인 Gordon Bispham 이 기조 연설을 함. 빈곤의 경감이 아니라 빈곤의 퇴치, 지구화(세계화), 협치(governance), 교육이 회의의 주요 주제가 되어야 한다고 함. 경제적 발전이 사회적, 문화적, 영적 발전을 과도하게 지배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물은 경제적 상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박수 받음.

환경회의 참석자들은 각자 Parallel Event 에 참석하였음. 나는 Climate Change & Poverty 에 참석함. 주로 자원과 빈곤의 문제, 여성과 빈곤의 문제가 이야기 되었음. 한편, HIV 바이러스가 만연하게 되는 것은 문화적 특징(형사취수제 등)에서도 기인함. 따라서 교육이 HIV 예방에 중요한 과제임. 케냐의 경우,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임. 여기에 대한 비디오 시청. 나이로비에서 불과 50킬로미터 떨어진 Kibera 는 극빈지역. 땅이 없어서 쫓겨난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음. 물, 먹을만한 음식, 화장실이 없음. 인구는 5만-6만 정도인데, 화장실은 전체로 52개 뿐임. 이런 화장실을 Flying Toilet 이라고 함.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과 실업문제. 아이들은 돌보는 사람이 없어서 street children 이 되고 있으며, 어른들 평균 하루 일당이 미국 달러로 50센트임.

AMREF(African Medical Relief)의 필름을 시청함. Forest Slump: squatter moving people 에 의해 삼림파괴가 진행되고 있음. 이들은 정부가 정착할 수 있는 토지를 제공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음.

Water: 물부족은 빈곤 상황을 더 악화시킴. 가뭄이 들게되면 음식과 물을 살 돈이 없음. 물부족은 위생상태의 저하로 질병을 야기하고 수질오염도 초래함. 아파도 병원이 너무 멀어서 가기 어려움.

Food: 강우와 외국의 원조에 의존해 있음. 현재 절대적인 식량 부족 상태. 강우량도 부족하며, 경작지도 없음. 물이 민영화되면, international market 에 접근할 수가 없어서 상황은 더 어려워짐.

HIV: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다니는 트럭 운전사들의 매매춘 때문에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음.(간선도로가 HIV 바이러스 감염 경로). 배고픔과 가난이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킴. 인터뷰를 한 여성노동자들은 굶어죽는 것보다 10년쯤 HIV 보균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대답했음. 즉, 여성 실업과 빈곤이 HIV 의 확산에 매개 역할을 함.

농촌에 소득이 있으려면 생산된 것이 시장에서 소비되어야 함. 그러나 시장 접근이 어려움. 경쟁력도 없음.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음.

저녁에는 Heinrich Boel 포럼에 참석. 그날 토론회는 Wolfgang Sachs, Richard Navaro(FOE International 사무총장), Sunata 등이 주제 발표자였음. 제목은 "Zombie Categories: Rio+ 10 & North-South Divides"였음. Sachs 는 남북이라는 범주가 실제 별 도움이 안되는 외교적 범주에 불과하다고 주장. 실제로, North, South 안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음. 따라서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 범주가 아님. 오히려 Global Consumer Class(North 의 다수 부유층과 South 의 소수 부유층)와 Marginal Majority(North 의 소수 빈곤층과 South 의 대부분 빈곤층)로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그리고 주변화된 다수의 목소리가 외교 협상 테이블에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Sunata 는 여기에 대해 민족국가 정부 수준에서 국내 문제에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봄. 지구적 수준에 대해서는 비관적. 따라서 national level 과 local level 에서 역량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우리가 가진 공간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라고 봄.

Navaro 는 빈곤이라는 것은 세계화와 국제무역의 결과일 뿐이다. 빈곤의 퇴치(eradication)가 아니라 부의 퇴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현재 South 의 국가는 무관심하고, 시민사회는 무능력한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진행된 근대화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세미나 참석후 한국환경회의팀원들과 다른 한국 참가자들이 서로 세미나 내용을 공유함.

8 월 27 일 (화)

Nasrec 에서 열리는 Public Services International(PSI) 주최 세미나에 참석함. PSI 는 물의 상품화, 민영화를 반대하고, 이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는 조직. 그리고 현재 물의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파급 효과나 영향에 대한 조사를 전개하고 있음. 현재 아프리카에서 시장 지향적인 민영화(market oriented privatization)이 진행되고 있는데, 물과 같은 공공재의 경우 이러한 시장 접근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였음. 대신 강력한 공공 물관리(공급) 시스템을 강조하였음. 물은 공공(public)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한다고 봄.

브라질 Porto Allegros 시(市)의 사례가 발표되었음. 발표자는 Toreskim (Director of Water Company of Porto Allegros). 포르토 알레그로시의 물 관리의 특징은 물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지면서 water municipality (물의 도시자치성?, DEMY 라고 함)이 형성된다는데 있음. 즉, 시가 출자한 물 회사(water company)가 있고, 그 회사의 운영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예산이나 관리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임.

포르토 알레그로시는 인구 134 만명이고, 하수의 84%는 수거하고, 그 중의 27%는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한다고 함. 이는 브라질 다른 지역 보다 3 배 가량 높은 비율임. 현재 하수처리율을 높이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며, 5-6 년 이내로 하수처리율을 70%로 높이고자 함. 포르토 알레그로시의 인간개발 지표(Human Development Indicate)는 높은 편. 브라질의 평균 유아사망률은 38/1000 명인데 포르토 알레그로시는 14/1000 명. 노동당 집권 이후 행정에 집중적인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음. 그 결과 나온 것이 참여예산 (participatory budget)임. 행정의 내용이나 어려움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여 예산을 결정하는 시스템. 서비스의 질과 행정처리 속도 등에 대해 시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음. 예산의 25%는 생활의 질 개선사업에 쓰도록 만들어 놓았음. 그 결과 시의 물/위생 전담 부서가 만들어짐.

포르토 알레그로시의 물 행정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4 등급으로 나뉜 수도세(Water Tariff) 체제임(cross-subsidization). 80%의 인구가 수도세액의 50%를 책임짐. 나머지는 대형 소비자가 내는 social tariff (일반 수도값보다 비쌌)에 의해 충당되고, 인구의 4-5%를 차지하는 빈곤계층은 세금을 내지 않음. DEMY에는 두 개의 물관리위원회가 있음. 하나는 기술측면을 다루는 위원회이고, 다른 하나는 참여예산을 다루는 위원회.

플로어에서 질문이 나옴. ①DEMY의 관리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었나? ② 기업들은 사회적 Tariff를 내는 것에 저항했을텐데 어떻게 유도했나? ③시행정의 투명성을 위한 사회적 통제 메카니즘은 무엇인가? ④물이용의 효율성은 이전보다 증가했는가? 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는?

여기에 대한 답변은 ① 시민들 중에서 20,000-30,000 명이 44 개의 소분과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일주일에 한번씩 1년간 행정에 참여함. 여성이 60%를 차지함. ② 기업의 저항은 없었음. 설문조사 결과 88%의 인구가 행정서비스에 만족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이라고. ③ 투명성은 시민대표가 관료들과 매주 협의하기 때문에 보장됨. 그리고 어떤 문서나 정보, 결정결과도 시민들이 요구하면 무조건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④ 물이용의 효율성은 점차 나아지고 있음. ⑤ 수도물값을 낼 수 없는 계층의 경우는 단수를 하지 않음. 대신 낼 수 있으면서도 내지 않으면 단수함. 물은 공공재산임. 물관리서비스에 대한 계획과 감독에 시민사회와 노동자들의 참여를 제도화함. 시정부가 공영 물공급을 지원하였음. 그리고 부패를 추방하였음. 가장 중요한 것은 cross-subsidization 시스템.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물관리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민영화에 대한 대안은 Publicly owned company, municipal services 등이 될 수 있음. 수질을 향상시키고, 효과적이고 신뢰할 만한 물공급서비스가 되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물공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공공영역이 더 강화되어야 함.

오후에는 한국환경회의팀원들을 소집해서 간략한 브리핑을 하고, 참석했던 세미나에 대한 견해들을 서로 공유하였음. 무엇보다 교통이 불편하고, 서로 각 단체의 중견이어서 단체활동 때문에 한국환경회의 주관 미팅을 자주 소

집하기 어렵다고 생각함.

8 월 28 일 (수)

아침에 버스 안에서 Eco-equity 와 ENB 를 나와 정경란씨가 브리핑함. 오전에 요하네스버그 시청으로 가서 PSI 가 주관한 물 세미나에 참석. 그러나 어제 열렸던 사례와 동일한 사례가 발표되는 바람에 빨리 나옴. 오후에는 한국의 날 행사에 참여함. 나스렉 행사장을 돌면서 홍보전을 벌임.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고등학생들과 더불어 북을 치고 "대한민국"을 연호하였음(여기에 대해 나중에 정경란씨가 문제제기 하였음. 미국이 USA 하면서 돌아다니면 우리가 어떻게 느낄 것인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외치고 다니면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이 문제로 비키네 집에서 저녁에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음). 한국의 날 문화행사는 비교적 잘 치러짐. 장사의 공연도 훌륭했음. 최병수 화백의 퍼포먼스는 며칠째 계속되었는데, 지구 온난화를 상징하는 얼음조각은 큰 호응을 얻었음. 한국환경회의팀원들도 모두 행사 진행을 도움. 행사 끝 무렵 오후에는 개별적으로 Sandton 에 가서 뒤늦게 등록을 함.

8 월 29 일 (목)

오전에 물과 관련된 행사가 열리는 Waterdome 에 감. 물에 관련된 기업이나 NGO 가 다 결집된 장소여서 그런지 몹시 화려함. 기업들이 향후 중요한 산업으로 물 관련 사업을 드는 것을 반영하는 느낌. Hydrosolidarity-Tomorrow's life saver (seminar for journalists) 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참석하였음. 이 세미나는 Stockholm International Water Institute(SIWI) 에서 조직한 것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열리는 세미나였으며, 내가 참석한 시간대의 주제는 Urgent Action for Water security-The Stockholm Statement 2002 였음. SIWI 는 1990년부터 10년간 Stockholm Water Symposia 를 운영해왔음. 심포지움의 결과 4개의 원칙을 제시하게 됨. 원칙 1: 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수자원 협치(governance)에 반드시 개입되어야 한다. 원칙 2: 경제성장과 수질악화의 연결고리는 급히 끊어야 한다. 원칙 3: 도시 물 서비스는 도시의 안정성과 안보(security)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다. 원칙 4: 정책, 계획 그리고 실천은 통합적 해결책(integrated solution)에 근거해야 한다. 한편, 댐건설로 인해서 가장 고통 받는 사람들은 빈민. 댐은 social structure 를 파괴할 수 있음. 따라서 물 관리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물 관리는 모든 사람들의 번영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럴 때 사회적 연대가 형성될 수 있음. 물 관리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 참여는 결정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지 몰라도 결정의 질을 바꿀 수 있다. capacity building 이 중요함.

점심 이후에 다시 나스렉에 옴.Commission on Forests 에 참석함. 이행계획 para43 이 숲에 대한 내용임. 세 가지 주제의 어젠다를 논의하기로 함. ① 누가 세계의 숲을 관리해야 하는가? ② 어떻게 WSSD 가 실천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 ③ 당신은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숲에 대한 몇 가지 사실. 지구표면상에 39억 헥타르가 숲. 그 중에서 47%가 열대우림이고 33%가 온대림. 1992년 이후 1억 6천만 헥타르의 숲이 없어짐. 매년 1천 6백만 헥타르가 없어진 셈. 열대림과 망그로브 숲의 50%만 남음. 숲의 상실로 매일 100여종씩 멸종되고 있음. 숲의 벌목은 이산화탄소 배출의 두 번째 큰 기여자임. 16억의 인구가 숲에 의존하고 있음. 회의는 fishbowl method 로 진행됨. 동그렇게 몇 겹으로 앉은 후 맨 앞줄의 한 자리는 비워둠. 토론을 하다가 뒷 줄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은 빈 자리로 와서 앉아있다가 발언을 하면 됨. 하고 나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감.

첫 번째 주제는 ‘ 누가 숲을 관리해야 하는가?’ 였음. 대체로 community 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 과테말라는 35%의 숲을 커뮤니티가 관리하고 있음. 나이지리아에서 온 사람은 커뮤니티 관리가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었음을 제시하였음. 중국의 경우, 소수민족들이 각기 독특한 방식으로 숲을 관리하고 있으며, 약 80%는 커뮤니티에 의해 관리됨. 국가에 의해 관리될 때 보다 소득이 8-9% 증가하였는데, 이것을 간과하면 안된다고 함. 말라위의 경우 정부가 아무런 통제를 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상업용 벌목이 성행하고 마을에서는 빨감용 나무가 많이 베어지고 있음. 그래서 정부와 커뮤니티가 공동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왜냐하면 커뮤니티에만 맡길 경우 불안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기 때문. 미국의 경우 70%의 숲이 사유림. 그래서 커뮤니티와 지역정부의 파트너쉽이 중요함. 캐나다는 원주민들의 숲에 대한 권리를 지지하는 정책을 채택하도록 노력하고 있음. 인도네시아는 커뮤니티가 숲을 관리하는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정교한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주체로 되기에는 역량이 부족함. 네팔의 경우도 커뮤니티가 가진 전통적인 관리방식을 계승하여 숲정책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함. 공통적인 것은 초국적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숲을 관리하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함. 그 동안 숲을 관리할 능력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계속 소외되었다. 물론 모든 숲을 커뮤니티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그러나 관료들은 지금까지 특정한 계층만 대변하였고 오직 커뮤니티만이 마을 주변의 숲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음.

우간다의 경우는 에너지의 95%가 나무에서 나옴. 항상 나무가 풍부했기 때문에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사실을 홍보하는데 애를 먹음.

남아공의 경우 숲과 동물(특히 나비와 뱀)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 이에 대한 인식부족이 큰 문제. 연료로 나무를 많이 쓰고 있음. 숲보전의 문제와 물의 문제는 불가분의 관련이 있음.

8월 30일 (금)

오전에 Sandton Convention Center 에 가서 freshwater caucus 에 들어감. 여기서는 International Citizen's Statement 의 문안을 검토하였음. 팔레스타인 사람이 참석해서 물에 대한 국가주권에 대해서 강조해야 한다고 하였고, 나는 지나친 강조는 국제 하천간 분쟁을 어렵게 하므로 중재에 대해서도 분

명한 권한이나 주체에 대해서 언급해놓아야 한다고 말함. 코커스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전문가들임.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시민사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적극적으로 로비하는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음.

오후에는 나스렉에 다시 돌아와서 환경회의의 참석자들과 외국 NGO 부스를 방문하였음. 덴마크의 NGO는 옥수수에서 나온 기름으로 청정 연료(매연이나 쓰레기 없음)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간이 콘로를 개발하고 전시했음. 남아프리카 지역은 원거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많기 때문에 야외에서 조리해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옥수수에서 나온 기름을 채운 콘로를 보급함. 그 이후에는 대만 NGO를 방문. 대만은 UN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Sandton으로 가지 않고 나스렉에만 치중. 여러 단체들이 연대하여 옴. 국제적인 NGO들과 소규모 NGO 사이의 전략 차이나 소외 문제 등을 이야기 함. 로비 중심의 국제 NGO의 전략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었음. 철저히 주민 중심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 역시 인상적이었음.

저녁에 비키네 집에서 주인이 마련해준 바비큐 파티는 아주 즐거웠음. 서로 선물도 교환하였으며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음.

8월 31일(토)

아침에 Kruger 국립공원으로 출발. 중간에 프레토리아에 들리고, 보어인 기념탑과 대통령 집무실을 관광함. 크루거 공원 주변의 호텔에 숙박함.

9월 1일(일)

하루종일 사파리 차를 타고 크루거 공원을 구경함. 지평선이 인상적이고, 야생동물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는 진기한 체험함.

9월 2일(월)

새벽에 출발하여 곧장 요하네스버그로 직행. 비행기 탑.

3.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팀 참가자 명단

- 지도/인솔 : 이상헌 (녹색미래 사무처장)
- 총무: 이용례 (한국내 총무역할, 출장안감)
남은경 (남아공 현지 총무역할)

이름	소속단체	시민단체 상근경력	주요 관심분야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약 2년 8개월	- 여성환경운동 역량강화
공정옥	대구환경운동연합	약 6년	- 에너지 문제 - 골프장 문제
김미경	청주 YWCA	약 13년	- 여성 문제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약 2년	- 도시, 주거분야 - 소외계층을 위한 도시운동
배장환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약 1년 9개월	- 미디어를 통한 소비자운동 -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상담
이숙례	녹색연합	약 2년 9개월	- 도시문제와 환경
이정우	녹색교통운동	약 2년 1개월	- 교통, 대기환경 - 시.도간 연대를 통한 시민운동 확대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약 2년	- 보건, 소비자 건강과 환경
태영은	환경정의시민연대	약 2년 1개월	- 토지정의 운동 - 도시공동체 운동

4. 참가자 보고서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에서 NGO의 활동과 향후 과제

이상헌 (녹색미래 사무처장)

■ 들어가는 말

2002년 8월 26일에서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이하 WSSD라고 함)가 열렸다. 1992년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서 열렸던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이후 10년이 지나서 가장 크게 열린 지구적 규모의 회의였다. 그래서 이 회의를 별칭 Rio+10 회의라고도 한다. 그러나 회의의 결과에 대해서는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이나 유럽연합(EU)의 긍정적인 견해도 불구하고, 세계 시민사회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특히 WSSD의 표어가 "사람, 빈곤, 번영"(people, poverty, prosperity)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말하는 지속가능발전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표적 주체인 WTO의 2002년 1월 도하 어젠더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내용을 담게 된다면 사람을 소외시키고 빈곤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의 번영만 가져오는 지속가능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회의가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행계획서의 아주 일부분이라도 목표 년도를 설정한 부분이 있었고,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토의정서의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비준계획을 밝히고, 캐나다가 금년내 비준을 약속함으로써 미국 없이도 의정서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이 전 인류의 보편적인 목표라는 점에 이의를 달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속가능성이라는 말은 논의의 여지가 많은 모호한 개념이다. 따라서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남은 과제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WSSD의 배경과 쟁점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세계의 주요 NGO들과 한국의 NGO들이 WSSD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소개한 후 그 활동들을 평가해봄으로써 향후 NGO들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WSSD의 배경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90년대 들어와서 열리게 된 대규모 국제회의는 그 이전에 열린 국제회의들과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 가장 큰 차이는 그 회의의 성격이 냉전 체제의 영향 하에서 각국의 입장만 확인하는 회의였다면 90년대 이후의 회의는 제기된 이슈들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회의라는 점이다. 이렇게 된 데는 냉전의 종식, 제3세계 국가들의 저 발전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문제의 표출, 지구온난화나 종다양성 파괴 같은 지구적 범위의 환경 문제 발생, 정보기술혁명과 대중매체의 발달 등에 기인한 바가 크다. WSSD는 2000년 밀레니엄 정상회의 이후 21

세기 벽두에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환경과 개발을 둘로 나눠서 보지 않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통합적 개념을 주제로 한 첫 유엔(UN)회의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WSSD 는 개별국가 차원이 아니라 몇 개의 집단에 의해 협상이 주도된다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 집단이란 크게 보면 선진국(the North/Developed countries), 개발도상국 혹은 최저개발국(Developing South/Least Developing Countries), 유럽연합(EU), JUSCANZ(Japan, United States, Canada, Australia, New Zealand), G77+ China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share-holder)나 권리담지자(right holder) 모델보다는 회원(membership holder)모델과 이해당사자(stake-holder)모델을 혼합한 모델에 기초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즉 정부간에 이루어지는 Type-I 파트너쉽과 9 개의 주요 그룹(Major group)으로 구성된 다중 이해당사자 회의(Multi-Stakeholder Dialogue)의 결과를 반영하는 Type-II 파트너쉽으로 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다. WSSD 가 이처럼 국가 간의 회의로 규정되지 않고 여러 집단들간의 협상으로 규정되며, 기업, 여성, 농민, NGO 등과 같은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포함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Neo-liberal globalization)로 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기존의 민족국가 단위로 이루어지던 자본의 축적과 노사관계와 달리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에 의한 세계적 자본주의의 등장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경향은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불평등을 초래한다. 자본은 보다 복종적이고 다루기 쉬운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반면, 그만큼 자유롭지 못한 노동자들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더 취약해졌고 불안정해졌다. 구조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진행된 민영화나 국가의 사회복지예산의 감소는 수많은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고, 많은 수의 실업자와 노숙자를 양산하였다. 그러나 이미 투기성 자본으로 변해버린 초국적 자본은 상상할 수도 없이 많은 부를 소수의 사람들에게 제공해주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20 대 80 의 사회는 바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인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결과 민족국가들간의 협상으로 진행되던 국제 회의가 이번 WSSD 에서는 여러 세력 집단들간의 협상으로 변하게 되었고,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이번 WSSD 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가 된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이번 WSSD 에서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이다. 회의가 열리는 장소 앞의 광장은 BMW 사(社)의 홍보 전시장처럼 활용되었고, 공식 박람회장도 기업들의 홍보관으로 변했던 것이다. 그리고 지구환경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구환경의 해결자인 것처럼 자신을 홍보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로 인해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가 퇴색되거나 모호해진 것 같다.

2. WSSD 의 진행과정과 쟁점

WSSD 가 개최되기 수 년 전부터 국가별로 WSSD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5 개 지역별(유럽 및 북미, 아프리카, 중남미, 서아시아, 군소 도서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준비회의도 열렸다. 총괄적으로는 유엔 지속발전위원회(UNCSD)가 WSSD 의 준비위원회 역할을 맡아서 2001 년 4 월부터 2002 년 6 월까지 총 4 차례의 준비회의를 개최하였다. 준비회의를 거듭하면서 회의진행방식, 의제 21 이행성과 평가, 의장보고서(이행 계획초안) 검토, Type-II 파트너쉽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WSSD 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행계획 초안인데 4 차 준비회의가 끝난 상태에서도 25%가 미합의상태로 남아 WSSD 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WSSD 에서의 협상타결이 결코 낙관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갖게 하였다.

이행계획은 의장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총 153 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한 항목을 살펴보면, 빈곤퇴치, 지속불가능한 생산과 소비방식의 변화, 경제와 사회발전의 기반이 되는 자원에 대한 보호와 관리, 지구화된 세계에서 지속가능한 발전,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 군소 도서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행수단, 제도적 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항목들 중에서 이번 WSSD 에서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번 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빈곤퇴치의 문제였다. 그래서 많은 관심이 이 문제에 집중된 결과 깨끗한 식수를 먹을 수 없거나 하수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2015 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인다는 것에 합의하였다. 두 번째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공통이지만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이라는 원칙 하에 정부차원의 10 개년 계획을 수립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세 번째, 에너지 문제는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는데,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 에너지 공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치와 시한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고 다소 모호하게 재생 에너지 비율을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식으로 마무리 하였다. 네 번째, Type-II 파트너쉽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Type-II 파트너쉽은 정부, 국제기구, NGO, 기업들이 참여한 파트너쉽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일견 긍정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결국 문제를 더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우선 정부들의 책임 회피 구실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을 시장 메카니즘에 의존하게 되고, 자본의 이윤추구 논리에 대다수의 인구나 자연이 포섭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빈곤과 불평등이 확대되고 제 3 세계의 환경파괴도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회의 자체에 대한 거부 움직임도 있었고, 정부간 협상이나 이행계획에 대한 합의를 제대로 도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이외에도 논란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합의가 된 사항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2020 년까지 유해화학물질의 생산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 '2010 년까지 희귀 동식물

의 멸종율을 현저히 줄여나가며, 이를 위하여 추가적인 재정 및 기술적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2015 년까지 어족자원의 감소를 막고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시킨다', '지구환경금융을 통해 사막화방지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을 설치하되 기금에의 기여는 자발적으로 한다' 등이다.

3. WSSD 에서 NGO 의 활동과 평가

이번 WSSD 에서 NGO 의 활동을 살펴보려면 우선 회의장의 공간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회의의 공간적 배치나 운영이 생각보다 훨씬 더 NGO 의 활동을 제약했기 때문이다. WSSD 회의장은 크게 네 곳으로 나뉘져 있었는데, 정부간 회의가 열리는 샌톤 컨벤션 센터(Sandton Convention Center), NGO 들의 회의장이었던 나스렉(Nasrec) 공원, 기업과 각 국 정부들의 박람회장인 우분투 빌리지(Ubuntu Village), 그리고 물과 관련된 기업과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전시회를 열고 토론을 벌였던 워터돔(Waterdome)이 그것이다. 각 회의장은 버스를 타고 약 30 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으며, 회의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마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시시각각 변하는 회의 진행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어려웠다. 게다가 급하게 지어진 샌톤 컨벤션 센터는 협소하기 이를 데 없어서 참가자 수를 제한하다보니 주최측이 NGO 활동가들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였고, 이에 대해 활동가들이 거세게 항의하여 결국 제한이 어느 정도 완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국제 NGO 들간의 협조마저 원활하지 못했다. 주로 북반구(the North)에 위치한 국제적인 대규모 NGO 들, 예컨대 그린피스(GREENPEACE)나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과 같은 국제 NGO 들은 주로 샌톤 회의장 로비에 집중하였는데, 나스렉 이외의 다른 장소에서 자체적으로 전략회의를 한 뒤 소수의 전문가를 회의장에 파견하여 로비활동-이를 내부전략(inside strategy)라고 한다-을 전개했다. 한편, 주로 남반구(the South)에 위치한 소규모 NGO 들은 나스렉 회의장에서 시위를 하거나 포럼을 개최하여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반대하고, 다른 나라들의 소규모 NGO 들과 운동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연대하는 것-이를 외부전략(outside strategy)라고 한다-에 치중하였다. 그나마 대규모 단체들 간의 행동 통일도 잘 되지 않아서 독자적인 행동을 하기에 급급했으며, WSSD 의 난항에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미국 정부에게 로비와 압박을 전개해야 할 미국 NGO 들에 대해서도 적절한 견인을 해주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NGO 의 위상과 힘은 기대했던 것보다 약할 수 밖에 없었다. 우선 지구시민사회포럼(Global People's Forum)이 열린 나스렉 회의장의 열기는 차분하다 못해 썰렁한 느낌마저 들었다. 대규모 국제 NGO 들이 다 빠진 상태여서 별다른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남아공 주최측도 나스렉 회의장의 운영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였다. 개막

식 행사에 오기로 했던 넬슨 만델라 전(前) 대통령도 오지 않았는데, 더 황당한 것은 주최측으로부터 연락이 아예 되지 않아서 만델라 대통령이 참석할 준비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나스렉 회의장의 전체 프로그램도 회의 시작 후 4 일이 지나서야 나왔으며, 포럼이나 워크숍도 자주 취소되었고, 그나마 열리는 것에 대한 공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NGO 들이 나스렉에서 무기력하게 있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특히 어업협정과 관련한 어민들의 생존권 투쟁 시위-도 계속 열렸으며, 심지어 WSSD 자체를 거부하자는 시위도 전개되었다. 하인리히 뵐(Heinrich Boel) 재단에서는 회의장 한 곳을 전세내어 계속 녹색정치, 빈곤, 남북(the South-the North) 격차에 대한 의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견해를 수렴하고자 노력했다. 여성 텐트(Women's Tent)에서는 여성적 시각에서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계속 포럼과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8월 31일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대규모 도심 거리 행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2001년 6월부터 준비하여 2002년 3월에 발대한 한국 민간위원회 소속참가자 180여명이 일곱 군데의 숙소에 나눠져 있었다. 그러나 마땅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서 버스를 세 대 대절하여 회의장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즉, 버스 한 대가 최소 3 군데의 숙소를 돌아서 사람들을 회의장(나스렉 공원)으로 데려다준 것이다. 그러면 거기서 셔틀버스를 타고 각기 필요한 회의장에 가서 회의에 참석하는 구조였다. 그나마 버스 운전사들이 길을 몰라 30분이면 갈 거리를 1시간 30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서로 시간을 맞춰서 움직여야만 하다보니 회의참가나 행사진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가 무척 어려웠으며 이를 조절하기 위해 민간위원회 실무자들은 그야말로 허리가 휠 정도로 고생을 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한국은 나름대로 한국적 주제(국가분단)를 효과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 각 단체별로 심포지움이나 사진전과 같은 활동을 나스렉 곳곳에서 전개하였으며, 특히 8월 28일 진행된 '한국의 날' 행사에서는 심포지움과 문화 행사 모두 성공적으로 치른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양적으로는 많이 참가하였지만 개별적 역량을 갖춘 참가자들을 찾기가 어려웠다. 즉, 외부전략과 내부전략을 분담하여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절대 다수가 외부전략에만 치중함으로써 샌튼회의장에서 전개되는 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소수의 사람에게 의존하는 구조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우선 준비단계에서부터 민간위원회라는 거대 조직의 틀을 구성함으로써 민간위원회가 불필요한 행정적 업무까지 다 떠맡게 되었다는 점, WSSD 준비단계에서부터 집단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한 두 사람의 대표를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도록 한 점, 이행계획에 포함되는 주제들에 대한 전문성과 언어소통능력을 다 갖춘 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향후 NGO 역할에 대한 제안

WSSD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은 무엇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따른 국가단위의 조정 능력 상실과 초국적 기업의 이익 관철, 그리고 국제 NGO 들간의 유기적 협조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가진 긍정적 측면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제 3 세계의 정치-경제적 후진성을 개혁할 수 있는 세계화의 영향력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리고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제 3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우선 '바람직한 협치'(good governance)가 선행되어야 세계연대 기금도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로 제 3 세계의 부유한 계층은 이미 세계화 된 계층들이며 초국적 기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와 그 사회에서 발생하는 부를 독점하는 계층들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구도 속에서 먼저 발견되어야 한다. 결국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어떻게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로 만들어 놓을 것인가가 앞으로의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맹위를 떨치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항하여 어떻게 우리의 삶과 환경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국제 NGO 들간의 통합적이면서도 유기적인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는 각 국가의 NGO 들과 정부간의 적절한 긴장과 협조가 동시에 필요하다는 점이다.

우선, 국제 NGO 들간의 통합적이면서도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서는 일단 행동 상의 목표를 동일하게 가져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목표는 대다수 지구 시민들의 삶과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대해 제동을 거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결코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계층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높은 생산력에 의한 낮은 생산력의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듯하지만 분배구조가 철저히 왜곡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장 구매력이 없는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이는 허구적인 구호에 그칠 뿐이다. 그리고 더 이상 물질적 풍요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지구의 수용 능력을 위협하게 되므로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이처럼 행동 상의 목표를 동일하게 설정하고 힘을 모아야 NGO 의 내부 전략과 외부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고, 그래야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사안별로 그 사안에 집중하는 세계 NGO 들간의 지속적인 연대가 필요하다. 급작스럽게 회의장에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전부터 사안별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전개해나가면서도 NGO 들간의 남-북 입장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협조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둘째로, 각국의 NGO 들은 자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와 파트너십을 가지되 적절한 긴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특히 미국과 같이 패권주의

적 외교로 일관하는 국가의 경우 미국 NGO 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자국 정부를 압박할 필요가 있으며, 다른 국제적 NGO 들의 도움을 얻어 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도 한국 정부는 국제관계 속에서의 다소 어중간한 지위 탓에 여러 협상에서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NGO 가 적절하게 압박을 가할 것은 가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으며, 심지어 오해하는 부분도 있었다. NGO 측에서는 회의의 각 주제에 맞게 집단별로 준비를 하고 그 단위에서 정부와 교섭을 하고 국제적 연대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채워가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의 내용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저지하는 NGO 들의 유기적인 연대와 각국 NGO 들의 자국내에서의 분별 있으면서도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생이라는 모습으로 채워져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춘이, 2002, "리우+ 10 한국 민간위의 WSSD 평가", <민간위원회 평가 회의 자료>
- 이성훈, 2002, "WSSD 의제-사회 및 경제 분야 이슈를 중심으로", 「경제 사회환경의 통합적 발전을 위한 한국사회의 과제 정책 토론회」(2002 년 7 월 31 일) 발표문
- 이정옥, 2002, "옥스팜(Oxfam) 시비를 통해 본 공정무역운동의 방향",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시민사회』 제 7 호, 2002 여름호
- 이창우, 2002, "리우+ 10 회의의 쟁점과 과제", <제 91 회 『이론과 실천』 세미나 발표문>
- 전태일을 따르는 민주노조운동연구소 편역, 1998, 『신자유주의와 세계 민중운동』 (서울: 한울)
- 차명제, 2002, "WSSD 의 본질과 쟁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중앙일보 시민사회연구소, 『시민사회』 제 7 호, 2002 여름호

여성환경위원회 활동

강희영 (여성환경연대)

1. 요하네스버그를 향하여

2001 년 9 월 13 일, '리우+ 10 을 위한 한국여성환경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한국 여성들의 2002 년 지구정상회담을 위한 준비는 시작된다.

리우+ 10 을 위한 한국여성환경위원회(이후 여성환경위원회)는 처음에

여성활동가들이 주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환경단체나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나 리우+10 회의가 환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치러지는 만큼 소비자, 환경 이외 다른 부문까지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와 여성, 평화, 농민단체까지 조직의 틀을 확대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여성, 환경, 평화, 소비자, 농민의 5개 부문 14개 단체가 결합되어 요하네스버그 회의를 준비하게 되었고, 이 중 여성환경연대는 간사단체를 맡아 관련한 활동을 지금까지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여성환경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묶인 단체들 중에는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한 단체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단체들도 있었다. 생태계 보전을 위해 환경농업과 여성농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는 현실에서 여성농민단체가 내용적으로 결합하지 못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거버넌스, 평화, 정보, 교육, 건강, 소비, 인권 이라는 주제로 단체가 혹은 개인이 분과를 나누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국내외 운동전략을 모색하고 실천적 행동과제를 발굴하는 등의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시작은 동북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여성의 역할 강화를 위해 동북아 여성환경회의를 개최하는 것이었다.

한중일 3개국이 참가한 동북아 여성환경회의의 성과로 동북아 여성환경네트워크(Northeast Asia Women's Environmental Network)가 결성되었고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다.

또한 'WSSD 와 Gender'를 주제로 두차례의 국내 워크숍을 진행하여 성관점(Gender Perspective)에서 본 지속가능한 발전의 주요이슈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소개하고 국내 활동을 여성시각,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각에서 평가, 정리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차 워크숍은 '신자유주의,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젠더'를 주제로, 2차 워크숍은 'WSSD 준비동향과 한국여성 NGO의 참여전략', '환경분야의 주요 쟁점 분석', '여성의 눈으로 본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여성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거버넌스와 젠더, 지방의제 21과 여성, 여성과 건강, 녹색소비와 생산, 평화, 여성인권 등 6개 분야에 대해 성관점에서 최초로 평가하여 보고서를 발간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 요하네스버그에서

50명의 YWCA 참가자를 포함하여 80여명이 여성환경위원회라는 이름으로 NGO 행사장인 Nasrec 과 유엔 회의가 열리는 Sandton 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주요활동으로는 여성환경위원회가 주최한 동북아 여성환경 워크샵, 평화캠페인, 여성 코커스, 해외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 여성행동텐트(Women's Action Tent)에서 진행되는 포럼 참가 등이 있다.

'동북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젠더'를 주제로 2001 년에 조직한 동북아 여성환경 네트워크를 확대, 강화할 목적으로 실시한 동북아 여성환경 워크샵은 여성텐트라는 말 그대로 거대한 텐트에 민예품을 파는 상인들이 즐비한 열악한 상황에서 진행하여야 했다. 그러나 일본과 대만을 포함하여 100 여명의 참가자들의 뜨거운 열기와 진지함은 열악한 주변환경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거두게 하였다. 비록 중국이 사정상 참여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지만, 일본과는 공감대를 더욱 형성하였다.

한국, 일본, 대만 3 국의 발제가 끝난 이후 가진 문화행사에서는 3 국의 흙을 항아리에 담아 동북아와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실타래로 그물망을 엮어 공으로 만든 지구를 띄우는 행사는 참가자 전원이 여성이 새로 짜는 세상을 몸소 체험하는 좋은 경험을 갖게 하였다. 이 행사는 여성텐트에 있었던 아프리카 환경단체 여성들도 대거 참여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3 차에 걸친 '지속가능한 지구와 평화를 위한 여성들의 행진'은 평화를 대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이 활동은 여성환경위원회이라는 이름의 여성들의 가장 적극적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참여를 자아냈다. 이 침묵시위는 NGO 공식신문인 GLOBAL FIRE 의 표지사진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8 월 28 일자)

센턴에서 진행되었던 여성코커스는 여성그룹 뿐만 아니라 NGO 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지속적으로 코커스에 참여하여 주제별 논의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행계획에 NGO 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로비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제한된 역량과 인원으로 인해 코커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다행히 여성환경위원회는 영어가 능통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어 이들의 발빠른 활동 덕분에 여성의체의 조항수정을 요구하자는 다른 나라 여성 NGO 들과 호흡을 맞춰 한국 여성부에 로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전체적으로 여성코커스는 아젠다 21 의 이행과정을 자세히 분석하면서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 여성들을 위한 문서가 작성되도록 문장 하나 하나를 자세히 검토하면서 수정을 하고 이를 위한 로비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매일 다뤄지는 의제에 한국 여성들의 입장에서 당당히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주로 내용을 파악하는 차원에서 참여하여 소극적인 활동을 펼쳤다는 것은 크게 아쉬웠다.

향후 국제 리더쉽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함을 몸으로서 직접 겪었다.

이상과 같이 여성환경위원회는 국내외 여성 그룹과의 네트워크 형성과 한국의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한 주요 주제들에 관한 성관점에서의 평가를 국영문 보고서로 가시화 한 것과 더불어 여성환경위원회가 주도적 역할을 한 동북아 여성환경 포럼은 동북아 여성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사회로의 큰 발걸음을 내딛게 하였다.

3. 향후 과제

이번 회의는 여성의제가 어떻게 논의되었는지 하나하나 내용을 파악하고 한국의 입장에서 실천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하여 과제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단순히 분리수거만 열심히 할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자로서 여성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도록 젠더 관점에서 국가 정책을 계획하고 이행 평가하고, 전망하는 국가차원의 여성환경포럼을 조직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번 회의에 참여하면서 몸소 뼈저리게 느낀 것이지만, 여성환경운동의 국제 리더쉽 역량 강화의 절실함이다. 국제활동은 영어 구사 능력, 내용과약, 적극적으로 견해를 펼치고 로비하는 등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만큼 활동가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고 했던가. 한국 여성들 역시 세계 여성들과 함께 고민하고 실천함과 더불어 아시아, 특히 동북아적 시각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풀어 갈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좀 더 고민해야 한다.

■ 내가 만난 해외 여성 NGO

1. WILPF

8 월 29 일 나스렉 여성텐트 옆 작은 공간에서 여성환경위원회는 WILPF(국제자유평화여성연맹)의 부대표를 만나 WILPF 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WILPF 는 제네바 본부를 비롯해 세계 42 개 지부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대부분 갈등분쟁지역에 지부가 있다. 42 개지부 가운데 북한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지부는 1999 년 북한을 방문한 이후 구성되었다고 한다. WILPF 는 1 차 대전때 여성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1000 여명이 모여 전쟁을 멈추는 활동과 여성투표권 확보를 위한 활동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유럽과 미국에 한정되어 활동했으며, 미국인이 40 명 정도 참여하였고 이중에 포드부인도 있어 재정과 정치 등의 활동근거 마련에 도움을 받았

다고 한다.

WILPF 활동에 대해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도보해협은 여성들이 건너기에 너무 위험하다'는 등의 말로 조롱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 당시 WILPF 의 구성원은 여성교육자, 여성의사, 여성사회운동가들로 각국 정상들에게 평화에 대해 협의하는 정상회담을 촉구하였고, 중립국, 전쟁국 등을 방문하기도 하고, 중립국에게는 전쟁을 중재할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는 평화교육, 분쟁조정교육, 환경에 관한 교육, 경제정의에 관한 교육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에는 주부, 여성정치인, 남성 등 약 8 천명의 회원이 활동중에 있으며 1 년에 1 회 IO 회의가 열린다고 하였다. 현재 주 활동은 군사비를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하는 운동전개와 콜롬비아 내전으로 강제이주민 지원활동, 일본 도쿄, 히로시마에 평화교육을 시키는 것과 평화협상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 등에 주력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2. Swedish Women's Lobby

Swedish Women's Lobby 는 1977 년 스웨덴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 조직은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1 명의 대표와 11 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40 개의 협력 조직과 150 만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진 큰 조직이다.

중요 이슈로는 여성의 정치참여율을 50%로 높여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젠더부분 예산 확보, 아젠다 21 중 23 장 이행요구, 2005 년까지 성 영향 분석, 모든 형태의 여성에 대한 차별퇴치를 위한 로비 활동이다. 요컨대, 여성과 경제, 건강, 비례대표 확보를 위해 일한다고 말할 수 있다.

스웨덴의 Gender Equality 의 상황은 한국과 비교가 될 수 없었다. 예를 들어 현재 의회에 진출한 여성은 43%, 50%의 여성장관을 둔 상태이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에 대한 견제와 흠집내기는 남아있다고 한다. 그들의 목표는 모든 분야에서 여성참여 50%를 이루는 것이었다.

놀라운 사실은 스웨덴 여성의 47%가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며 매년 20 여명이 이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사실은 민간 기업 등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경영진 중에 여성은 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평상시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스웨덴에 대한 데이터의 망상을 깨는 일이었다.

Swedish Women's Lobby 은 1997 년에 창설되었으며 현재 재정적인 문제로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스웨덴의 페미니스트는 3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여 급진적인 행동을 하는 '급진파'와 완전히 정부의 편을 드는 '보

수파', Swedish Women's Lobby 와 같이 하나의 문제를 찾아 좀 더 나은 여성의 삶의 조건을 가지려하는 '중도파'가 있다.

3. 키타큐슈 포럼

키타큐슈는 큐슈섬 북쪽 끝에 위치한 인구 1 만의 도시이다. 이 도시는 일본 4 개의 중요 산업센터의 하나로 발전해 왔다. 1945 년에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철강의 94%를 생산했던 도시이다.

일본 100 년 철강산업의 원산지로서 자부심이 강하던 이 지역 주민들이 굴뚝에서 쏟아지는 매연과 스모그가 더 이상 이 지역 주민들에게 행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이를 바꾸려는 이 지역 환경운동가들의 엄청난 헌신이 있었다고 한다.

철강 굴뚝이 상징하던 이 지역은 심각한 스모그와 매연으로 건물 창문을 열 수도 없었고 스모그가 심할 때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도 많았으며, 노약자와 여자들이 건강을 잃고 난 후에 이 지역 사람들은 기술발전이 자신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최고의 피해자도 역시 여성이었다. 여성들 자신이 건강악화에 시달렸고 아이들과 노인들을 돌봐야 하기에 공해 피해에 크게 분노했다. 스모그가 낀 날에 아이들의 결석률을 조사해 스모그와 아이들 결석의 상관관계를 조사했고 건물 바깥에 흰 로프를 달아 시간마다 오염도를 조사하여 이를 시의회에 보고해 전문적인 조사에 나서게 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통해 위험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한다.

일본의 단체들은 활동가들의 연령이 높은 편이다. 경제적인 이유로 주로 은퇴후에 일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여러 세대에 걸친 다양한 경험과 영향력이 섞여 있는 것 같아 매우 부럽다고 했다. 또 한국이 더 역동적이고 열성적인 것도 장점이라고 했다. 일본의 운동은 1 단체가 한가지 문제를 가지고 10 년, 20 년 활동하는 것이 특징이다.

키타큐슈시의 성공사례는 시 주민은 물론 시정부도 무척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 시 정부도 시정책에 있어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지금 키타큐슈가 많이 깨끗해지자 젊은 사람들은 환경에 관심이 없어 안타깝다고 한다. 이제는 전국적인, 지구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일본에 있어 오염의 기준을 국제기준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와 우리의 과제

공정옥 (대구환경운동연합)

1. WSSD 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지난 8 월 26 일부터 9 월 4 일 까지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개최되었다. 이번회의는 193 개국 16 개 유엔전문기구, 67 개 국제기구 등이 참가하였다. 참석인원은 정부대표 9 천명, NGO 8 천명, 언론 4 천명 등 총 21,000 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에서도 한국 NGO 의 참가는 두드러졌다. 국내에서 약 2 백명에 달하는 NGO 가 WSSD 참여를 위한 요하네스버그행에 올랐다.

남아공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인구를 가진 나라지만 국토면적은 우리나라의 12 배에 이른 넓은 땅을 보유하고 있다. 남아공은 지난 300 년간 억압과 차별의 슬픈 역사를 간직해온 땅이며, 그 중에서도 요하네스버그는 18 세기 세계 최대의 금광이 발견되면서 건설된 황금의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세계정상회의의 주요 이슈 중에 하나였던 '빈곤'의 문제는 이번 회의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한다. 이번의 WSSD 가 성과 없이 끝났다는 비판의 소리에 불구하고 실제로 남아공은 이번 회의개최를 통해 엄청난 흑자를 올렸다. 그래서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난한 나라에서의 국제회의개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웃지 못할 뒷이야기가 있기도 했다.

그 간 준비회의를 통해서도 빈곤퇴치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져왔다. 2015 년까지 빈곤층 인구나 안전한 먹는 물을 이용하지 못하는 인구를 각각 절반으로 줄이고 빈곤층의 권리부여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개발과 빈민가 거주민들의 생활을 2020 년까지 대폭 개선하며, 미성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 실시와 국제협력을 권장하는 내용들이다.

이에 따라 빈곤퇴치를 위한 자발적 성격의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치에 합의를 이루었으나 EU 는 기금 설치에 은행계좌 개설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재원이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며 설치 문제는 유엔총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기금설립에 반대했다. 이렇듯 본질에는 동의를 하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이행계획에 있어서는 뚜렷한 목표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이번 WSSD 의 한계이기도 했다.

2. WSSD 와 재생가능에너지

전세계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퇴하였고 또

한 러시아, 캐나다, 호주 등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교토의정서 비준을 미루어 교토의정서 발효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WSSD 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번 WSSD 에서 기후변화를 비롯한 에너지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의제로 부각이 되었다. 유럽연합은 2010 년까지 전세계 1 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15%까지 높이고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대한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국제환경단체가 주장해 온 2010 년까지 전세계 1 차 에너지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10%까지 높이자는 제안이나 지난 해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2010 년까지 유럽연합에서 1 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12%로 높이자는 합의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제안이었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안에 대해 교토의정서마저 탈퇴했던 미국을 비롯한 OPEC(석유수출국 기구) 회원국들은 강력히 반대했다. 유럽연합은 다시 선진공업국을 중심으로 2010 년까지 1 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5%까지 높이거나 지금보다 2% 높일 것을 제안했으나 미국과 개도국들은 구체적 권고치의 설정을 반대하였다. 결과적으로 정상회의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한다. ▷빈곤인구에게 에너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보조 철폐와 세제 개편을 통해 에너지 시장의 왜곡을 제거하자는 식의 맥없는 결론을 내고 말았다.

3. WSSD 와 기업

세계정상회의는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었다. 각국 정부대표단과 유엔 회의장이 있는 샌튼회의장, 기업의 전시와 문화공연 등이 펼쳐진 우분트, 그리고 각국 NGO 들이 참여하여 진행한 포럼과 캠페인 등이 진행된 나스렉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NGO 들은 나스렉에서 각종 캠페인과 심포지움 등을 개최하며, NGO 의 주장과 목소리를 담아냈다. 기업의 전시와 홍보가 이루어졌던 우분트는 다국적 기업의 전시장으로 전략하는 느낌마저 들 정도로 기업들의 선전은 화려했다. 또한 전세계 물 문제의 심각성을 한자리에 논의하고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워터돔(Water Dome)에서는 물을 오염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생수회사들의 홍보장이 되기도 했다. 이번 WSSD 를 위한 기업의 준비는 철저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는 기업대표가 정부대표로 발언을 하기도 하였고, 기업의 준비와 로비는 상상이상으로 철저하고 치밀했으나, 상대적으로 NGO 의 활동과 대응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이번 WSSD 는 지구적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닌 돈과 경제라는 엄청난 권력을 앞세워 세계의 평화와 인권과 양심을 팔고있는 비양심적 다국적 기업에 대한 대응과 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 중요한 시점이었다

4. 리우회의 그리고 10년

WSSD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72년 스톡홀름에서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통하여 환경문제가 지구적 의제로 인식된 이후, 1984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 위원회가 발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미래세대의 충족분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개발)' 개념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환경문제는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및 선진국-개발도상국 문제와 연계되어 논의되었다.

10년이 지난 2002년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는 'WSSD IS DEAD'라는 문구가 유엔회의장인 센톤회의장에 한국 NGO에 의해 제기되었다.

리우회의이후 세계는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가지고 하나로 결집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그것은 자국의 이익, 또는 기업의 이윤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이번 WSSD를 통해서 여실히 입증되고 있다. 이것은 여러 부분에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자연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유럽 국가들은 2015년까지 훼손 경향을 반전시키고 사전예방원칙을 고려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개도국과 미국이 이를 반대해 결국 철회되고 말았다.

논란이 되었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이행수단 부분에 있어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몬테리이선언, WTO 합의문에 나온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조하는 선에서 합의됐다. 몬테리어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외개발원조 0.7% 미달성국은 그 달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가 되었다. 개도국은 그 이상의 재원출연을 요구하고 선진국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선진국이 승리를 거두었다.

리우회의를 시작으로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의 출발점을 마련이 되었으나 요하네스버그에서의 WSSD는 지난 10년 동안 출발점에서 얼마를 나아가게 했는지에 대한 의문만을 던지고 있다.

5. 환경 NGO 활동가로 바라본 WSSD

첫 해외출장이자 아프리카라는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된채 인천공항을 출발하였다. 인천에서 홍콩까지 3시간, 그리고 홍콩에서 무려 13시간을 날라 요하네스버그 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도착한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참가를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WSSD 참가자들을 위한 별도의 입국 창구가 마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을 줄 서는 일에 보내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숙소로 이

동을 하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방배정이고 뛰고 할 것 없이 정신없이 또다시 NGO 행사장이 있는 나스렉으로 이동을 하였다.

예상했던 것보다 남아공의 현지 사정은 훨씬 좋지 않았다. 이동할 수 있는 교통도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신수단도 여의치 않았고, 더구나 치안문제로 인해 체류기간 내내 자유롭게 다니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소수의 백인이 대부분의 기득권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남아공에서는 대부분의 흑인들은 백인집의 하인으로 일을 하거나 공사장의 노동자로 길거리의 영세상인으로 혹은 걸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주제별 논의가 알맹이 없는 수박겉핥기 식으로 끝나버리고 실행이 담보되지 않는 말 잔치에 그쳤다는 평가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다. 이를 비난하는 시위와 행진 등이 현지에서 진행되었고, 특히 NGO 행사장인 나스렉에서는 "STOP BUSH"를 외치며 오만한 미국을 질타하는 세계 각국의 NGO 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유엔최대규모라 일컬어지는 세계지구정상회의는 성과없이 끝나버리고 다국적기업의 홍보와 로비의 장으로 전락해 버린 지구정상회의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과연 인간본연의 윤리가 바탕이 된 지구환경 보존의 길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무력감과 회의가 들기도 했다.

이번 WSSD 는 지구환경회의라기 보다는 무역과 경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최소의 환경을 살리기 위한 장이 되어 버린지도 모른다. 세계는 빠르게 변해가고 있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뭉쳤다 헤쳤다를 반복하고 있다. 더구나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는 이런 회의의 경우 지구촌 공동의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자는 것은 어찌면 이상이 되 버릴지도 모른다. 지켜도 그만, 안지켜도 그만인 국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신뢰를 얼마만큼 충실히 이행하느냐는 국가의 몫인 것이다. 지구환경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회의체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간과 자연중심인 사고에서 출발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대안운동과 아울러 가치와 이념의 확립이 필요하다.

지구정상회의는 끝이 났고, 앞으로 남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어느나라 보다 많은 NGO 가 참여한 우리는 국제회의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 한국정부의 모니터를 통한 압박, 로비력 등 우리가 아직 극복해 나가야 할 부분은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는 많은 한국참가단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것은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었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어떠한 역할과 역량을 키워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번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서는 가난으로 인한 극단적 대립을 여실히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

며 우리는 그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NGO 행사장 앞에 깡통을 두고 아프리카 전통춤을 추고 있는 꼬마들에게는 우리는 그저 자기들에게 동전을 던질 수 있는 넉넉한 나라에서 온 한사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래세대를 살아갈 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저 동전을 던지는 일은 아니다. 요하네스버그에 참가한 NGO 들은 미래세대인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현명하게 사고하고 실천할 것을 세계 각국에 호소했다. 그러나 그런 세계 시민의 소리를 채 듣지도 담지도 못한채 WSSD 는 막을 내렸다. 그러나 회의는 끝이 났지만 각 국의 자각과 현명하고 올바른 실천 그리고 NGO 의 활동과 고민은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로 남고 있다.

세계시민운동과 지역운동

김미경 (청주 YWCA)

■ 떠남

처음 WSSD 참가제의를 받았을 때 나의 느낌은 생소함과 망설임이었다. 흔쾌히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선 적어도 국제적 회의에 참가하려면 최소한의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나는 이 부분에 대단히 수준 미달이었다. 또한 나의 운동적 지향이 전세계를 향하여 열려 있었던 적이 없었다. 언제나 나의 관심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역과 내가 속한 조직에 대한 것이었고 국제적 이슈에 관한 공감과 노력을 주체적으로 기울여 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망설임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WSSD 의 전망에 관한 의견들이었다. WSSD 는 시작 전부터 한계를 예고하고 있었고 이번 회의가 환경과 인간 삶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지구적 노력과 성과를 오히려 퇴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속출하고 있었다. 이런 점들이 나의 WSSD 참가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떠나는 순간까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8 월 22 일부터 9 월 2 일, 나는 요하네스버그를 중심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머물러 있었다. 또 400 여명 이상의 한국 사람들이 요하네스버그 회의에 참석했다. 거기에는 정부대표도 있었고, NGO 대표들도 있었으며, 지방정부 관계자도 있었고, 또한 자비를 들어 참여한 개인들도 적지 않았다. 지속가능한 삶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요하네스버그는 꼭 가야할 곳이였다.

결론적으로 이 회의의 성패 여부와 관계없이 이 '체험학습' 참가에 대

한 나의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첫째, WSSD 는 여성을 비롯한 전세계 민중들이 처한 전지구적 위기와 현실을 뼈아프게 체험하는 학습의 장이었고 둘째, 그동안 나름대로 한 지방 YWCA 에서 한 분야를 맡아 일해온 활동가에게 주어진 전지구적 임무를 확인하고 가다듬는 기회였다. 셋째,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반대운동과 국제적 환경운동·평화운동 등 전 세계적 시민운동의 흐름을 다소나마 이해하고 전망을 모색하려는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 만남

1. 건강한 지구를 위한 여성의 활동

1995 년 북경대회를 통하여 '여성과 환경'을 주요관심분야 중 하나로 설정한 세계여성운동은 WSSD 가 다루는 각각의 주제에 있어서 성주류화의 관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환경파괴와 빈곤과 세계화의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계층인 여성의 현실을 부각시키고 전 세계가 인식하도록 하는데 주력했다.

NGO 행사장 광장에 마련된 여성텐트(Woman's Tent)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포럼과 행사, 각종 시위를 조직하면서 활기있게 진행되었다. 각 포럼에서 토론에 나선 여성들은 '물과 위생시설의 부족' 빈곤' '에이즈'의 문제가 여성의 생활과 몸 속에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었으며 환경파괴에 의해 가중되는 여성노동의 현실이 빈곤과 결합되어 여성의 삶을 옥죄고 있는 이중삼중의 모순임을 한꺼번에 보게 해 주었다. 여성텐트에서는 아프리카 여성 포럼이 아침마다 열렸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여성농업 문제, 에이즈의 퇴치의 문제 등 생생한 주제의 호소력 있는 토론과 결의를 이끌어내 감동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여성텐트에서 논의된 핵심 주제는 빈곤퇴치·환경정의·성평등 이었다. 이에 따라 '평화와 안보를 위한 비무장의 확보'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위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 '환경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성별영향 분석' '환경관련 여성의 건강 위협에 대한 관심' '교육·정책과 의사결정에 관한 여성 역량 구축'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파트너십의 추구' 등 다양한 관심사가 논의 되었다.

한국여성위원회의 주관으로 동북아여성포럼이 열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북아 여성연대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봉건적 의식과 지리적 접근성 등 공통점을 가진 한국·대만·일본의 여성대표들은 환경과 지속가능 발전에서 성주류화를 실현하기 위해 여성의 역할을 더욱 높일 것과 서로 긴밀히 연대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 "여성이 새로짜는 세상"을 주제로 한 문화이벤트로 토론의 의미를 다지기도 했다.

2. 평화로운 지구를 위한 NGO 의 활동

한국여성참가자들이 벌인 '지속가능한 지구와 평화를 위한 여성의 행진' 캠페인과 녹색연합이 준비한 '한반도 분단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진전'은 전세계 활동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뜨거운 주제로 부각되었다. 이 두 행사는 최근 한국에서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압사 사건과 2000년 발생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을 알림으로서 전세계 민중들이 겪고 있는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 상황을 인식하게 하는데 성공적으로 기여했다. 이러한 활동은 NGO 행사 공식 신문인 [Global Fire] 8월 28일자 1면 전면을 통해 다루어졌다.

또 WSSD가 군사주의와 평화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치열한 비판이 일어났다. 군사주의 해결 없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NGO의 견해와는 달리 WSSD는 평화문제에 대한 접근을 전혀 이루지 못했다. 단지 원탁회의에서 평화와 안보를 언급한 것,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존중에 부합되는 평화와 안전을 위한 아프리카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동의한다는 합의사항 정도였다. (정치적선언문 초안 4번에 들어있던 '평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이 불가분의 관계이며 상호보완적임을 확고하게 믿고 있다'는 그야말로 '선언'적인 문구조차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여 녹색연합이 '해외에서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을 제안하여 이탈리아 필리핀 남아공 등의 참석자들의 지지의사를 확인한 것은 고유한 NGO 활동의 성과였다.

또 한국여성위원회가 세계적인 평화와 여성인권운동 단체인 WILPF와 간담회를 조직하여 세계 여성평화운동을 흐름을 소개받고 평화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도 나름대로의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한국 여성 참가자들은 WSSD를 계기로 여성평화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도 했다.

3. 지방의제 21과 지속가능한 발전

리우회의의 합의사항이 지역내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행된 것은 지방의제 21이다.

청주에서 처음 지방의제사업이 제안되었을 당시(1994년)에는 매우 의욕적으로, 다양한 구성원을 이루면서 출발되었다. 그러나 지역현안문제인 하천변 하상도로건설문제가 지자체에 의해 강행되고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지방의제 자체를 거부하면서 과행과 무기력을 거듭해 왔다. 그러나 최근 청주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을 수상함을 계기로 다시 지방의제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의미가 재조명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WSSD는 청주지역 환경활동가로서 지방의제 21의 의의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었다.

8월 26일, NGO 회의장에서는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주최로 한국을 비롯한 일본, 남아공, 호주, 말레이시아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지방의제

21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십 모색' 주제의 국제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영국의 경우 전략적 지방 파트너십(strategic local partnership)이 소개되어 관심을 모았으며, 하의상달식 접근(bottom up approach)의 특징이 소개했다. 호주대표는 지방의제 21은 주민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일하고 이들의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며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이 결정주체가 되도록 협의프로그램에 역점을 두고 있고,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다른 참여자들 대부분은 재정확보와 지방의제 21의 인식제고가 성공적인 지방행동 21 실천, 파트너십 구성 및 운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먼 이국땅에서 한국 지방의제 21이 우수실천사례로 선정한 푸른청주 21의 '용암동 녹색마을만들기 시범실천' 사례를 접한 것은 매우 색다른 감회를 주었다.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임을 몸소 경험하면서 지역운동 활동가로서 전지구적 책임을 느끼는 기회가 되었다.

4. WSSD와 미국

WSSD가 인류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는 평가를 받게 된 가장 주요한 원인은 미국의 부정적 역할에 기인한 것이다.

심각한 지구 환경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열렸던 이 회의가 알맹이 없는 수사만 나열한 채 폐막되었다든가 '리우+10'이 아니라 '리우-20'이라는 등 호된 평가가 잇달았는데 주요 쟁점 사항인 세계화와 공적개발원조(ODA) 제공 문제, 대체에너지 공급 비율 확대, 빈곤 퇴치를 위한 연대기금 조성 등에서 책임 있는 대안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미완의 이행계획서를 만드는데 그쳤기 때문이었다. 이행계획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앞으로 10년 동안 지구환경 문제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어 정치적으로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미국과 관련된 분야(대표적인 것이 대체에너지, 기후협약 등)에서의 협상이 어려웠는데, 이는 독선적이고 패권주의적인 미국의 태도에 의한 것이었다. 실제 발리회의에서 25%가 미타결된 채로 본회의가 열려 시작부터 절망과 우려를 낳은 것도 미국의 책임이었다고 한다.

NGO 행사장에서는 미국규탄의 시위가 연일 계속되었다. 특히 개막 직후부터 계속되던 환경운동연합의 'STOP BUSH' 시위는 8월 28일, 한국의 날 행사의 가수 장사의 노래공연과 결합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세계 시민의날로 정한 8월 31일에는 시민사회포럼 참석자 1만여명의 거리행진이 있었는데 정상회의 마지막 날에는 미국의 책임회피 규탄과 기업 홍보장으로 전락한 이번 회의에 반대하는 기습시위가 회의장 안팎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났다.

우리민족 분단의 원인 제공자이며 통일의 최대 방해자로 미국을 인식하여 왔고, 독재정권시절 목숨을 건 반미운동을 전개하는 세력을 늘 보아왔다. 동계올림픽이후 그 무시무시한 반미구호가 청소년들에게 자연스레 불려지는 것이 조금은 생경하게 느껴지기도 했었다. 그러나 WSSD 에서는 세계 시민으로서, 반미구호를 외치며 미국의 존재에 대하여 - 그 벗을 수 없는 죄과에 대하여 -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다.

5. WSSD 의 주제 '민중(People) 빈곤(Poverty) 번영(Prosperity)'

WSSD 는 리우+10 이라고 불리울 만큼 1992 년 유엔환경개발회의와 연관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환경운동을 진행해 온 그룹들이 가장 주체적이고 광범위하게 참여하기도 했다.

그러나, WSSD 는 지구환경의 문제를 인간안보, 환경보호, 사회정의, 인권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이루어 그 영역을 확장하였다. 특히 시장과 무역의 세계화가 기업의 자본투자의 세계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활동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빈곤의 심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을 명확하게 하는 기회가 되었다.

NGO 활동가들이 주로 활동하였던 지구시민사회포럼(Global People's Forum) 행사장인 나스렉(Nasrec)공원은 이러한 주제들을 드러내고 전 세계적 이슈로 공론화 하기 위해 노력하는, 치열한 활동가들의 노력을 한꺼번에 살펴보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자리였다. 매일 본회의장에서 전해오는 회의 소식을 해석하고 의견을 제시하면서 때로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과 토론을 조직하였으며 절망스러운 WSSD 를 그나마 살아있는 회의 분위기로 만들어 갔다.

이는 앞으로 지역에서 진행해 갈 시민운동에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 한동안 시민운동진영에서는 전문화된 환경운동이나 개혁적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적 시민단체의 활동에 비하여 다양한 회원 조직속에서 생활형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이 매우 위축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의 직업개발에서부터 주부들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실천운동, 청소년활동지원, 소비자운동, 자원봉사, 실업극복운동, 복지사업 등 다양한 주제를 다양한 계층의 회원들과 함께 해 온 운동진영은 '백화점식 운동, 전문성의 부재'로 일컬어지며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지구환경의 문제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사람의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전 세계적으로 합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지역운동에 있어 전망을 더욱 실천적인 생활형 주민운동의 관점을 긍정적으로 일깨우게 해주었다.

특히 빈곤의 문제, 에이즈 이슈로 대표되는 건강 문제, 한국참가자들

이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던 평화의 문제는 그동안 미처 관심하지 못했던 생소한 주제들이었지만 그동안 활동의 경험과 연관시켜 기꺼이 느끼고 이해할 수 있는 주제이기도 했다.

6. 아프리카 민중의 삶과 운동

WSSD 참가를 통하여 얻었던 또 하나의 소중한 경험은 소웨토 YWCA 방문과 케이프타운지역 선교현장 방문이었다.

요하네스버그 인근 흑인집단지주지역인 소웨토에서 활동하고 있는 YWCA 활동가들은 오랜 역사동안 흑인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여 왔다고 한다. 이들은 여성의 힘으로 억압과 차별의 굴레를 극복하고자 몸소 실천한 활동가들이었고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민주적 정권을 창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겪었을 고난과 항거의 역사를 통하여 YWCA 운동의 목표가 평등과 평화와 인권의 공공선을 지향하는데 있음을 실천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한 투쟁의 결과로 이루어낸 민주정부내에서 많은 여성들을 정치적으로 진출시키는 또 하나의 여성운동적 성과를 낳았다. 여성정치세력화의 진정한 의미는 억압과 차별을 극복하고자 실천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라는 당연한 진리를 깨우치게 한다.

백인 독재정권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YWCA 가 백인 YWCA 와 흑인 YWCA 로 분리되는 역사를 간직하게 된 것도 남아공의 상황속에서 나타난 특수하고도 절박한 현상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기독교 여성운동의 지향점 찾아가는 활동가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케이프타운 흑인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한국인 목회자의 삶은 우리에게 진지한 물음을 던져 주고 있다. 우리는 과연 운동속에서 주민과 함께 살고 있는가, 지역 주민들의 고유한 경험과 풍토를 이해하고 인정하되 더 나은 삶을 함께 일구어 내기 위해 헌신하는 존중과 희생을 정신을 잃지 않고 있는가 하는 점을 돌이켜 반성하게 한다. 주민들 스스로 자주성을 갖도록 인내하면서 돕는 역할모델을 잠시나마 만나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

아프리카는 내 삶 속에서 분리되어 있던 머나먼 지역이고 다른 세상이었다. 그러나 WSSD 를 계기로 이들도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성원이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야 할 소중한 이웃임을 느끼게 되었다.

■ 되새김

환경운동은 당연한 우리의 사명이고 평화정착, 여성평등과 개발은 언제나 우리 운동의 목표였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을 통해 열린 인식의 세계에서 나의 일과 조직과 지역을 바라본다.

그동안 YWCA 를 통해 진행되어온 각각의 운동들을 세계시민운동의 흐름속에서 인정하고 평가하고 반성해야 한다. 우리 자신이 세계 도처에서 보편적으로 정당한 가치관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세계시민운동 활동가의 대열에 부끄럼없이 설 수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청주 YWCA 가 전개하고 있는 생활협동운동은 주민들의 삶과 가치관을 개혁하기 위한 운동방침으로서 더욱 발전하고 확장되도록 노력해야 할 과제이다. 회원들과 함께 해 온 작은 환경실천의 노력들이 지구 한켠의 환경을 지키는 막중한 사명이었음을 인식하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평화운동 여성운동은 YWCA 가 지향해 온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교육과 조직을 통해서 보다 실천적인 주체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인식을 확장해 가야 한다.

청소년들이 다음세대의 이해당사자로서 당당히 자기권리와 환경을 지켜갈 수 있는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각각의 이행계획이 지방정부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실천되도록 협력하고 노력해야 한다. 자자체에 지방지속가능위원회 설치 실현해야 하고 지방의제의 실천을 위한 주민참여형 환경·사회운동을 강화해야 한다.

절망적이지만 희망을 버릴 수 없는 땅 끝 아프리카에서 얻은 교훈을 불씨삼아, 늘 새로워지는 노력을 꺼뜨리지 않는 삶과 운동을 살아가야 한다.

WSSD 와 도시·주거환경 활동 전망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1. 시작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어느새 그 실체도 뚜렷하지 않은 채 현실과 부딪쳐서는 합리적인 틀거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진부하다고 느껴질 무렵 요하네스버그회의 참가가 결정되었다. 환경적인 측면만이 강조되어 한국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통합적 개념이 적용가능할까하는 의문과 도대체 운동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등 많은 물음 속에서 준비가 시작되었다. 국제회의의 첫 참가라는 설레임도 잠시, 이번 회의에 대한 의미와 한국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사전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접하게된 보다 구체

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개념과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의미,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 등 이번 회의 참가를 마치면서 느낀 부분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지속가능한 발전과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지속가능한 발전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정상회의에서 의제로 채택된 이래 지난 10년 동안 지구적인 발전의 이념이 되었다. 십년간 세계 각국은 이 의제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리우회의 10년이 되는 2002년 올해 다시 모여 그 간의 성과를 점검하며 '이행방안'을 새롭게 하는 취지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도 44개의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리우+10 한국민간위원회'를 발족하고 1)리우 이후 의제 21의 이행상황 평가 및 정책대안제시 2)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한국정부발전정책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 3)WSSD 이행계획에 대한 한국시민사회의 입장정리 및 향후 시민사회의 과제설정 등 다양한 국내의 활동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환경, 소비, 여성단체 등 몇몇 주요 그룹 중심으로 민간위가 조직되고 운영되어 폭넓은 시민사회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미흡하였다. 이번 환경활동가 국제회의 참가교육 결정 이후 한국민간위의 의제 21 이행상황 평가에서 '지속가능한 인간정주개발' 부분 10년간의 한국정부의 이행계획 내용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1)한국의 지속가능한 인간정주개발

1990년대 들어 한국은 후기산업사회에서 고도산업사회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면서 경제구조와 사회구성 전반에 걸친 질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간 경제적 효율성 위주의 개발정책과 인간정주환경개선을 위한 저조한 투자로 인해 국토, 도시, 주택부문 부적절한 개발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부실건설에 의한 건물과 교량의 붕괴, 도시가스 폭발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지가의 폭등으로 인한 주거빈부의 격차 심화, 부적합한 토지이용으로 인한 생활환경의 악화, 극심한 교통체증과 환경오염, 자연생태계 파괴 등은 기존의 토지관이나 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었다.

주택의 양적인 공급에만 치중한 결과, 전체적인 질은 향상되었으나 획일적인 형태의 주택이 공급되었고, 과밀개발로 인해 교통혼잡,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의 질은 오히려 낮아졌다. 신규주택 공급중심의 정책은 기존 주택관리부문에 대한 인식을 저하시켜 자원낭비로 이어졌고, 거주자 중심의 도시주거환경 정비에 대한 지원미비로 인해 주거공동체는 파괴되었다. 주거복지 측면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고려부족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최소한의 주거권도 확보받지 못하고 있어 주거불안이 계속되고 있으며, 주거격차는 심화되고 있다. 국토와 도시개발에 있어서 단기적이며 집중적인 공간

개발로 인해 대도시권의 과밀 및 수도권 집중의 문제가 나타난 반면, 지방 및 농촌은 재원 및 투자미비로 인해 과소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결국 압축성장의 결과 삶의 기본적인 방식인 주거의 불평등과 물리적 공간의 불균형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인간정주환경의 근간을 이루는 주택, 주거환경, 국토의 불평등과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운동, 지역간 격차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전국적 차원의 운동을 펼쳐 물리적 공간의 계층간 지역간 격차완화를 통해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리오선언 이후 개발일변도의 국토, 도시 및 주택분야에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제기되었다. 여기에 시민단체가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최근에는 물리적 개발위주의 정책방향을 새롭게 전환하는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제부터는 그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적, 환경적 지속가능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속가능성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향후 지속가능한 인간정주환경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적정주거 공급

- 국민최저주거기준 이하가구 실태 파악 및 기준미달가구에 대한 대책마련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법적 틀 마련
- 기존 거주자들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회적 재개발 사업방안마련
-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서의 주거권을 확보하기 위한 주거기본법 제정
- 주택건설지원 중심에서 서민주거지원의 역할을 강화하는 공공주택금융 운용 개선
- 빈곤층, 노인, 장애인, 노숙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신 주거복지시스템 구축
- 중앙집권적 주택정책체제의 개편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 강화

■ 인간정주관리개선

-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 특정기능을 묶어 비수도권지역에 균형선도도시(pilot city, package city) 건설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방중심의 계획수립과 실행수단 제시
-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법제정

2) 국내활동의 평가 및 한계

1996년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던 UN HABITAT 회의에 한국에서 대규모의 인원이 파견되어 주택, 도시분야에 활발하게 활동을 벌인 이후, 한국

사회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연대활동을 통해 우리의 주거현실과 정책을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주택공급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개발되던 도시와 농촌에 대한 난개발로 인한 주거환경의 악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운동을 통해 지속가능하지 못한 관련 법의 개정과 제도정비 등 일정부분 변화는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비교적 운동의 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국토, 도시분야에서 10년 간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이번 요하네스버그회의에서는 인간정주환경개발 이슈는 중점이슈로 다루어지지 못한 만큼, 관련분야 단체의 참여가 저조했으며, 논의가 적극적으로 제기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빈곤문제의 한 분야로 빈민 거주자에 대한 실행계획안이 추가되어 포함되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도시와 시골 빈곤층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와 동산의 개선적 이용
- 빈곤층 주거 건설을 위한 저비용 지속가능한 자재와 적절한 기술의 이용
- 빈민가 개선 계획에 대한 지방 당국의 지원

3. WSSD 참가와 평가

2002년 8월 26일부터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진행된 이번 정상회의는 전세계 194개국 정부대표단과 86개 국제기구, NGO 등 4만 여명이 참가하였다. '민중, 빈곤, 그리고 번영'이라는 대주제 하에 열린 이번 회의에서 '세대간 형평성, 삶의 질 향상, 사회적 통합, 지구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는 자리가 되었다. 회의참가를 통해 아프리카의 빈곤현실과 세계 NGO들의 활동, 세계화에 대한 지구적 위협상황을 여러 측면을 통해 접하게 되었다.

1) 아프리카의 현실과 세계 NGO

■ 빈곤의 현장 SOWETO(South West Town)

아프리카의 대표적인 흑인빈민 집단거주지인 SOWETO 를 방문하였다. SOWETO 는 특정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며, 서구의 식민지건설 시절에 원주민을 몰아내기 위해 건설한 집단거주지역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인들이 지역내부에 직접 들어갈 수 없었으나, 마치 우리 도시의 달동네를 연상시켰다. 초원에 끝없이 펼쳐진 주택들은 그 형식에 있어서도 획일적이지 않고 계층간 분화되어 가는 추세였다. 빈민거주지라고 느낄 수 없을 만큼 깨끗하게 계량되어진 단층주택에서는 일정소득과 직장을 가진 흑인들이 거주한다고 하는데, 흑인정부가 들어선 이후 관료층을 장악한 일부 흑인들은 경제력을 갖고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으나, 극히 일부분만 해당되었다. 우리가 방문한 지역은 7000여명이 25개의 수도꼭지를 쓰고 있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아주 열악한 곳이었었는데 대부분 지역은 이와 같은 생활여건을 갖고 있다. 주택간 밀도는 높지 않았으나, 흙바닥 위에 양철슬레이트로 지어진 Box 형태의 주택은 간이천막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서너평 남짓한 내부에는 낡은 침대나 의자가 침구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통 한 침대에서 5,6 명의 가족이 함께 생활한다고 한다. 조리나 난방을 위한 도구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위생의 문제는 뒤로하더라도 주택의 재료로 사용된 양철슬레이트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없어 주민들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주거환경의 심각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의 열악함보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SOWETO 거주자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못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현재 실업률이 80% 이상으로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형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위한 탁아소가 있으나 보낼 수 없으며,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에 아이들을 보낼 형편도 되지 못하여 빈곤의 문제는 계속 악순환되고 있었다. 흑인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교육의 기회나 경제활동에 대한 여건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무엇보다 커뮤니티 차원에서 식량공급과 자급자족이 가능한 저비용 기술 및 자재 공급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정주환경개발을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 계층간 격차심화와 사회적 문제

빈민집단거주지 내에서도 계층간 차이나 나타나고 있지만 빈부격차의 진면목은 미국의 비버리힐즈를 방불케하는 고급주거지와 상가, 유럽의 멋진 휴양지를 옮겨놓은 듯한 편의시설들 이었다. 주로 백인들이 이용하는 지역과 시설들로, 아프리카 빈곤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마치 전세계의 빈부격차를 축소하여 옮겨놓은 듯 백인들이 이용하는 지역과 시설들은 미서방세계의 풍요로움을, 빈민거주지의 열악한 환경은 아프리카의 현실을 그대로 대비하여 보여주고 있었다. 이번 WSSD 회의가 왜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하게 되었는지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회의 내내 우리의 활동의 범위를 제약하던 사회안전망에 대한 부재가 이러한 극심한 빈부격차에서 비롯된 것이란 것을 느끼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도 식민지 당시 백인들을 위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도로 등 자동차 중심의 기반시설은 잘 갖추어진 반면, 대중교통을 위한 체계는 열악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불평등한 이용도 엿볼 수 있었다.

■ NGO 행사와 활동

세계 정부간 협상인 정상회의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이유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입장을 시민사회가 견제하며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시민사회의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적극적인 참여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부간 회의장에 접근이 불가능한 대부분의 활동가들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의진행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이러한 상황은 이번 회의에 참가한 국제 NGO 들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되었다. 쟁점이슈에 참가하지 않은 활동가들의 경우 주로 NGO 포럼에서 열리는 세미나와 행사참여, 전시장 방문 등의 활동이 주가 되었는데, 본격적

인 행사는 빈곤의 퇴치, 지구화, 협치, 교육이 WSSD 의 주요 주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Opening Plannary 를 출발로 해서 NGO 포럼이 시작되었다. 경제적 발전이 사회적, 문화적 발전을 과도하게 지배해서는 안되며 지구 공공의 재산을 민간이 지배해서는 안됨을 강조하는 자리가 되었다.

Heinrich Boel 포럼에서 <Zombie Categories: Rio+10 & North-South Divides>라는 제목으로 열린 토론회에 참여하였는데, 발제자들은 지구를 빈곤한 남반구와 풍요로운 북반구로 나누는 범주가 실제 별 도움이 안되는 외교적 범주로 주장하였다. 따라서 남반구와 북반구 안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으므로 북반구의 다수 부유층과 남반구의 소수 부유층을 Global Consumer Class 로, 북반구의 소수의 빈곤층과 남반구의 대부분의 빈곤층인 Marginal Majority 로 구분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화된 다수의 목소리가 외교협상에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민족국가수준에서는 지구적 수준의 국제문제에 영향력을 발휘는 하는 것은 비관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속가능한 정상회의를 통해 채택된 의제와 실행계획들은 협의를 통해 선언하는 것 이외에 강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WTO 와 같이 이행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제재를 가할수 있어야 보다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국민간위원회에서 개최한 <지속가능발전 관점에서 본 한국사회 평가 및 향후 과제>의 국제심포지움에서는, 한국사회가 이룩한 성장은 결코 지속가능성을 담보한 것이 아니라, 새만금 간척공사와 같은 대단위 개발계획으로 한국의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발제자로 참여한 '지구의 벗' 의장인 리카르도 나바로 의장은 리우 회의 이후 지난 10 년 동안 초국적 거대 기업이 인류 공동의 유산인 땅, 물, 공기, 바다 등도 사유화하고 있고 실제 물을 공급하는 거대 기업이 브라질, 아프리카 등 각국 국가에 진출하면서 수돗물 가격을 인상하고 유전자조작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의해 인류의 식량수급이 좌지우지되고 있는 급박한 상황을 전달했다. 따라서 초국적 거대기업과 맞서 싸우는 것이 절실하며, 이번 WSSD 회담에서 기업의 책임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했다. '제 3 세계 네트워크'의 치욕링씨는 이번 회담이 단순히 환경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인류가 지구의 미래를 결정짓는데 있어 사회, 경제, 문화, 환경 전반에 걸친 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환경운동가들도 경제, 무역, 문화시스템의 변화를 인식하고, 다른 주요그룹에서도 환경문제를 인식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시민사회에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개발이 환경적인 측면에서만 접근되어 이를 견제하기 위한 사회적 당위성을 만들어 가는데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으며,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통합적인 접근이 한국사회 현실에 걸맞는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지적으로 보여진다.

4. 평가 및 향후계획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이번 회의에서 쟁점이슈로 다루어지지 못한 점도 있지만, 지구의 빈곤, 세계화, 소비, 파트너쉽 등 쟁점이슈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조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적극적인 활동였다. 주로 논의되는 내용을 통해 관련분야와의 접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빈곤에 있어 주거빈곤층에 대한 해외사례를 접하고 이를 향후 우리의 운동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본다.

아울러 이번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기업들의 이해가 우선되어 퇴보한 회의가 되리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였고, 개인적으로 국제연대의 경험 부족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한국 NGO 의 대규모 참가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있으나 민간위차원에서나 각 참여 NGO 에서 많은 활동가들의 참여로 인해 국제연대에 대한 교육의 효과와 빈곤과 세계화의 문제가 전지구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와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 NGO 의 현수준과 향후 역할에 대한 깊이 있는 자각은 국내의 운동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배장환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 들어가는 말

Pax Romana 의 시절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겨우 35 살 내외였다고 한다. 지금은 그 곱절에 다시 한참을 더 보태는 평균 수명을 구가하고 있는 시절이기는 하지만 살아가는 속도로 비교해보면 그 시절의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짧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떨치기 어렵다. 해 뜰 무렵에 시작한 일과를 점심 전후로 마쳤다는 로마인들의 일상으로는 매시간 쏟아지는 문서와 자료를 소화해 내기도 어려울테고 로마 가도를 이용해 한달도 넘게 걸리던 여행은 단 몇 시간이면 해결되는 쾌속의 시대, 결국 활동의 반경은 넓어지고 그만큼 도구도 갖춤으로 인해 우리들의 호흡은 더욱 가빠지고 짧아지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더욱 가빠진 숨을 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익과 아직도 두어세기 이전의 가치관과 생활형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의 의무가 천칭의 양 끝처럼 공평하게 가누어져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편하게, 신속하게 문명의 이기와 부를 누리면서 사는 소수의 사람들이 치루어야 할 책무를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에 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8 월 26 일부터 9 월 4 일 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194 개국 정부대표, UN 및 국제기구, NGO 등 약 4 만명이 참가한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불공평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장으로 마련되었다.

1. WSSD 에 대한 총평

주요하게 다루어진 이슈들을 살펴 보면, 에너지 부문을 제외한 빈곤 퇴치를 위한 세계연대기금의 설립, ODA 의 목표 달성 촉구 등과 같은 대부분의 이행계획서의 문안을 타결하고 협상안을 채택하였으며 지속가능한발전을 위한 정치적 의지를 재확인하는 "요하네스버그선언문"을 채택하고 정부간 협의를 넘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협력사업으로서의 "파트너쉽/이니셔티브" 사업이 제안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환경문제 중심의 논의에서 환경, 경제, 사회발전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고려하는 지속가능한발전 전략이 국제질서 및 국내 정책 수립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가장 급격하게는 국제사회가 온실가스감축의무를 표명하여 기후변화협약의 발효가 내년부터 가시화 되는 점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과 NGO 들은 이러한 이행계획의 많은 부분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목표와 시한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 소비자! 생산자를 변화 시키는 촉매

WSSD 회의 참관 후 소비자 단체의 일원으로서 보고 느낀 바를 정리하고자 한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제 환경 문제들은 중국에는 소비의 문제로 귀결되며 생산자 그룹에 대한 지속가능한 생산 패턴에 대한 강력한 요구와 이들에 대한 감시뿐만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시민 사회 및 개별 사민들의 책임감과 주체 의식을 기반으로한 지속가능한 소비 형태의 유효성과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 되었다.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는 "세계화된 사회에서 개인의 생활은 필연적으로 세계화된 교역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어 개인의 사적인 삶 자체가 전 지구적인 문제와 상통하게 되었다."고 발언하였다. 결국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의 문제는 전 인류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명제이며 아울러 개인이 추구해야 할 당면의 문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처럼 세계화된 교역으로 인해 환경과 소비의 문제는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소외된 국가, 계층, 인종들에 대한 불평등, 불합리적인 부조리가 만연하게 되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은 소비 패턴의 변화를 통해 생산 패턴을 자극하는 것이며 소비 패턴의 변화는 개인의 의식 변화, 지역 사회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

해 성취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 홍보, 감시 활동이 실행/유지 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오염과 공해라는 과학과 기술의 역효과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근원적이며 1 차적인 농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왔다. 농업 분야에서는 이전의 시기보다 더욱 많은 화학물질을 사용하게 되어 가장 극명한 지속가능하지 못한 발전의 사례가 되어버렸다. 녹색혁명으로 일컬어지는 농업 분야에서의 농약과 비료를 비롯한 각종 화학물질의 사용을 통한 생산의 증대는 결국 녹색혁명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효과에 비해 그 폐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산업의 각 분야, 사회의 각 요소가 따로 떼어 기능하기 어렵고 이러한 각 구성 요소의 충격이나 효과들이 직접적 연관성이 없는 타 분야에 까지 그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효과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전지구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구성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실천의 도구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상과 근원적인 원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시민 사회의 집약적인 단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전기, 신량과 농업은 인류와 사회의 기본적인 충족 요소로 모든 사람들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러한 접근은 환경의 보전을 대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과 수단의 중요한 이행자이자 결정자인 소비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소비자단체들이 그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연대하여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해당국 정부를 설득하고 시위할 당위적인 의무가 부여 부여되었다.

3. 이제 다시 시작이다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국제사회는 맹목적인 발전과 개발에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고 매진하여 왔다. 이만한 위기와 도전이 유사 이래 존재했던가를 생각하면 지구의 절명과 인류의 멸망이라는 공포스러운 극단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마냥 낙천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도, 적어도 벼랑 끝에서 있는 인류의 현실을 공감하고 그 문제를 직시하자는 데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있는 듯 하다.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WSSD 회의는 지난 1992 년의 리우 회의의 이념과 의제 21 의 제시하는 방향의 실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장이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수습할 수 있는 기회를 내버려두면 과멸에 이르게 된다는 위기 의식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계획과 그 의지이다. 리우 회의 이후 지난 10 년간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제 기업들은 그들의 영향

력과 발언권을 꾸준히 성장시켜왔으나 우리 시민 사회의 구성원들은 열악한 재원, 인력 확보의 문제 등을 겪으며 거의 정체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이 더욱 심화 된다면, 결국 지구라는 거대한 생명 유기체는 기업들의 밥거리가 되어 버리고 공멸에 이르는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빈곤하고 소외된 사람 또는 국가에 대한 어떤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니라도 함께 살아 가고 함께 행복하자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에 대한 동의로부터 출발하여 빈곤과 환경의 문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요구된다 하겠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지난 세기 동안의 수탈과 도적질로 점철된 발전의 결과물을 이제 공평하게 원래의 주인들에게 되돌려줄 때가 온 것이다.

우리 인생이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 오만과 무례함으로 얼룩지기 시작하듯, 이 땅과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이 우리 인류가 주인인양 행세하여 오면서 신 또는 그 어떤 존재(그것은 지구 또는 우주 자체일 수도 있다.)가 만들어 놓은 이 지구를 철저히 유린하여 왔다. 길어야 수십년 숨 붙이고 살다 떠나는 존재치고는 너무 가혹하게 주인행세를 하면서 이 땅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자. 폭군의 말로가 평화로왔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이제 다시 주어진 기회이다. 주인이 되자면, 되자고 하여도 결코 주인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선한 목동과 같은 주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말, 다시 시작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가능하다? "Sustainable Development is Possible?"

이숙례 (녹색연합)

1. 리우+10 이 아닌 리우-20 이었다

세계의 시민사회와 기업, 국가 정상들이 전지구적 환경보호라는 공통의 과제를 위해 요하네스버그에 모였지만 NGO 들에게 허용된 객석은 여전히 주변부였다. NGO 들은 세계시민사회포럼이 열린 나스렛까지 가기 위해 요하네스버그 중심가인 샌톤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1 시간 이상 외곽으로 달려야 했다. 그나마 셔틀버스를 제외한 교통수단은 전무했고 각종통신시설의 부족으로 활동에 커다란 제약을 받아야 했다. 반면 각국 정부와 기업인들은 나스렛과 샌톤의 중간 지점인 우분투에서 정부와 기업, OECD 와 같은 국제기구가 중심이 된 전시장을 마련해 놓고 정부와 기업, 국제기구는 하나라는 모습을 연출하며 자신들만의 유대를 다져갔다.

몬샌토를 비롯한 다국적기업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후변화 현상 방지를 위해 환경기술적으로도 얼마나 노력하

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반면 남아공 NGO 의 준비 상태는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NGO 들 사이에서조차 `다국적기업의 환경기술 전시 및 치밀한 홍보활동에서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낄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다.

환경단체들은 회담이 열리기전부터 환경오염이 주범인 기업들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제기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지구정상회담에서 각국 대표들은 가난 퇴치 및 환경보전 사업과 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 자율적 개선이 바람직하다며 기업, 정부, 시민사회간의 파트너십을 강조하였다. 1992년 리오회의에서 나왔던 `지속 가능한 개발'이 요하네스버그 회담에서는 `파트너십'이라는 단어로 변질될 것이라는 회담전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담은 `리오+10'이 아니라 `리오-20'이라는 혹평이 나오고 있다. 이는 리오에서 제시했던 많은 원칙들이 엑슨모빌과 같은 다국적기업이나 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미국, 캐나다 등의 주도로 말살 또는 수정되거나 희석될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각 국가의 법률 또는 세계적 합의로 구체화된 `사전 예방의 원칙'과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오염자 부담의 원칙(PPP)'이 포함된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음베키 대통령은 개막 연설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꿈을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 가난, 물, 인위적인 기후변화 등을 다룰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채택하자고 호소했지만 이러한 원칙들은 배신당했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대체에너지로 표시되어 서로 노력한다는 애매모호한 합의만을, 생물다양성의 경우는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인 개발 제한에 대한 문구가 빠졌으며, 보호 대상 종명도 언급되지 않았다. 국민총생산의 0.7%를 빈국의 개발 원조를 위해 사용하기로 1970년에 합의한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도 구체적인 시한 설정없이 또다시 말잔치로 마무리되었다.

결국 요하네스버그 지구정상회담은 선진국들의 자국 이기주의와 다국적 기업들의 개발논리 앞에 전세계의 환경정책이 후퇴한 회담으로 기억될 것이다.

2. WSSD 의 아프리카 개최의 의미

요하네스버그에서 있었던 WSSD 의 평가가 아닌 다른 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다 아는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출발하기 전에 누군가가 물어보았다. 왜 그 멀고 준비도 어려울 것 같은 아프리카에서 WSSD 가 개최되는가였다. 물론 대답은 간단했다. 이번 WSSD 의 주요주제는 "빈곤과 환경"이고, 빈곤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가장 극

심한 곳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스렉에서 있었던 한 워크샵에서 본 다큐멘터리는 아프리카의 빈곤이 인간성 말살과 환경파괴의 선두에 서 있다는 확신을 주었다. 그 다큐멘터리는 케냐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극심한 키베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의 핵심 문제들을 심각한 문제들을 조명해주고 있었다.

가장 먼저 Deforestation, 숲이 감소되고 토지가 사막화되어 가는 현상을 들 수 있다. 가난하고 힘없는 원주민들이 개발의 힘에 밀려 점차적으로 숲으로 쫓겨나면서 생긴 현상이다. 이들은 숲을 벌목해 자신들의 주거지를 마련하고,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

둘째는 물(Water) 문제이다. 물은 부족하다는 것과 수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모두 포함한다. 가장 극심한 곳은 케냐와 탄자니아라 할 수 있다. 수자원을 민영화해서 공급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수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다. 수자원에 대한 민영화는 빈곤한 흑인들의 마실 물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더 멀어지게 만든다. 빈곤층의 열악한 물 환경은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수인성 질병을 유발시키고 있다.

셋째로는 식량(Food)의 부족이다. 식량은 배급에 의존하고 있지만 절대량이 부족하다. 아프리카의 특성상 경작지가 부족하며, 특히 가뭄으로 인하여 식량생산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 유통구조가 원활하지 않아 농산물을 생산했다 하더라도 시장 형성과 시장으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원활하게 소비가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식량위기 극복방안으로 강조되는 유전자조작식품(GMO)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 아프리카에서는 이에 대한 선전이 대대적으로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확산되는 경로는 당연히 미국과 그 이면에 있는 다국적기업 몬산토이다.

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잠비아는 미국으로부터의 유전자조작 식량 원조 제의를 거부하면서 '미국이 원조라는 이름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거대한 생체실험을 하려는 것에 대해 강력히 거부한다'라고 밝혔었다. 그러나 2002년 9월 9일 우리는 외신을 통해 잠비아와 짐바브웨가 기아로 6개월 이내에 30만명이 죽을 것이라는 예측에 따라 유전자조작 식량을 미국으로부터 원조받기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이면에는 몬산토라는 다국적기업이 도사리고 있다. "몬산토가 바이오테크 식량의 안정성을 입증할 필요는 전혀 없다. 우리의 관심사는 유전자조작식품을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는가에 있고 그 안정성을 증명하는 일은 미국식약청에서 할 일이다"라고 공언하는 몬산토에 대해 아프리카인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아프리카의 미래가 몬산토의 유전자조작식품 폭격아래 위협받고 있다'며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에이즈다. 이 다큐멘터리

에서 보여주는 에이즈의 가장 큰 확산경로는 트럭운전사이다. 국경을 넘나드는 트럭운전사는 그들의 고단함을 거리매춘으로 달랜다. 매춘여성의 경우도 굶주림을 참을 수 없어 매춘에 나선다. "에이즈에 걸리면 1년도 살 수 있고, 10년도 살 수 있다. 그러나 7일을 굶으면 살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한 매춘여성의 말은 아프리카의 빈곤이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주요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4 가지 요소가 모두 응축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아프리카이다. 특히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고 있는 케냐의 키베라 지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대표적인 흑인빈민촌인 소웨토보다 더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소웨토는 빈민촌의 대표로 인식되고 장기적인 개발계획이 짜여져 있으며, 자체적으로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비교대상이 되지 않을 수는 있다.

키베라는 자그마한 움집들이 뺨뺨이 들어서 있으며, 마을 한가운데를 흐르는 개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다. 단지 쓰레기와 쓰레기에서 흘러나오는 썩은 물만이 흐르고 있을 뿐이다. 총 6 만명 정도가 살고 있으며, 1ha(100m 100m)당 3 천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 만명을 위한 화장실은 고작 52 개. Flying Toilet 라 해서 노상방뇨가 성행하고, 이로 인한 질병이 만연하여 그 곳의 삶의 질은 더욱 악화된다. 높은 실업률과 만성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 아프리카 사람들은 그들의 소망을 담아 이야기한다. 교육, 물, 시장(Market), 물탱크(Water Tank), 병원, 직업, 학습(Learning), 학교(School), 식량(Food), 돈(Money), 시장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Market), 물문제를 해결할 댐(Dam to solve water problem), 버스, 토지, 에이즈 퇴치, 빈곤 퇴치, 정보, 무료 교육, 실업 극복. 이들 단어에는 이들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다.

이 즈음에서 왜 아프리카에서 WSSD, 리우+ 10 이 열렸는가를, 왜 10년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열렸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10년 전 브라질의 리우가 제기한 것이 아마존이 대표하는 열대우림의 파괴와 종다양성 손실,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것이었다면 아프리카가 제기하는 것은 빈곤이 인간과 환경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가에 대한 세계적인 주목과 경각심을 다시한번 불러일으키는 것이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번 WSSD 의 주요 관심사 중의 하나는 선진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기금 사항이었다. 이미 국민총생산의 0.7%를 빈국의 개발 원조를 위해 사용하기로 1970 년에 합의했음에도 이번에도 역시 구체적인 시한 설정없이 또다시 말잔치로 마무리되었다.

이와 관련해 후진국들은 선진국들이 ODA 를 비롯해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진국은 아프리카 내전에 들어가는 비용을 빈곤 퇴치에 쓰면 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아프리카로 하루 10 억 달러의 원조가

들어감에도 아프리카의 부정부패 등으로 그 효과가 없다고 주장한다. ODA 전달과 사용의 문제도 불거지지만 결국은 전체 총량이 적다는 것이 더더욱 문제라 할 것이다.

3. 지속가능한 개발과 국익의 충돌?

이번 WSSD 에 유럽의 정상들은 왜 거의 다 참여하였는지, 한국 정상은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보았는가? 유럽정상은 시민사회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들의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이런 것에는 다소 무관심한 것 같다.

사실 이러한 성향은 정부가 WSSD 를 대하는 행동에서 알 수도 있다. 이번 회담과정에서 정부쪽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정부쪽 활동 반경의 협소와 국익 지향을 들 수 있다. 이번 회담에서 활동 반경의 협소는 한국의 이해가 걸린 사항이 적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 수 있으며, 국익 지향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WSSD 의 바람직한 방향과 범위에 대한 것이 아닌 한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회담에 응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다. 결국 지속가능한 개발은 국익과 배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양어족자원과 관련한 협상으로 어족자원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를 인정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한국은 이해관계를 달리했다. 원양어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연안국의 권리 인정이 있게 되면 원양어업 종사자로부터 상당한 반향을 받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다른 분야에서 미적미적한 것은 한국에 크게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인 지속가능한 개발이 국익과 배치된다면 우리는 어떨까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세계시민사회포럼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었던 캐치프레이즈는 "Sustainable Development is Possible". 왜 겨우 Possible 일까. 점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보이는 와중에 Possible 을 외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들게하는 시간이었다.

4. 남는 아쉬움

본래의 의도는 도시에 관해서 주로 논의되는 과제들과 요하네스버그라는 도시를 보고자 했다. 그러나 교통의 열악함, 활동반경의 협소, 제한된 일정은 세계시민사회포럼이 열리는 나스렉을 주로 하여, 우분투, 샌톤이라는 제한된 장소를 왔다갔다 하는 정도에서만 움직이게 되었고, 일정의 대부분을 녹색연합의 미군기지 환경과외 사진전과 반기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타국의 단체들과의 워크샵 준비에 할애하면서 목표로 하였던 내용들을 보지 못하였다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전체적인 아쉬움은 한국 NGO 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음을 인정한다 해도 샌톤이라는 공간에서 그린피스를 비롯한 세계적인 단체들의 적극적인 로비활동에 동참하지 못한 점, UN 회의의 ABC 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한국 NGO 이 많았다는 점, 전 세계 정부와 NGO, 기업의 흐름을 읽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는 향후 한국 NGO 들의 국제연대 활동의 과제로 남게 되었다.

지속가능한 교통과 WSSD

이정우 (녹색교통운동)

1. 지속가능한 교통

지속가능한 교통이란 환경의 질을 저해시키지 않고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을 이루면서 사람, 장소, 물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이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통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교통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을 의미하며, 증가하는 교통수요를 흡수하면서 교통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이 세대간, 계층간, 지역간 형평성이 유지되게 하는 교통을 말한다.

리우선언과 Agenda 21 은 '지속가능한 교통'에 대해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오염 부하가 적은 교통체계의 조성, 인간과 인간의 삶터로서의 도시환경에 우호적인 교통체계의 구축, 그리고 대중교통 개선과 교통수요를 줄이는 노력으로부터 그 실현 방향을 모색하였다. 상업적 에너지의 약 30%, 세계 원유소비량의 약 60% 정도를 소비하는 교통과 관련하여 제 7 장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 증진, 제 9 장 대기보전 파트 등에서 교통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는 개발유형을 장려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을 통합할 것, 점유율이 높은 공공교통 우선의 도시교통 프로그램을 채택할 것, 국가내의 도시나 교외지역에 안전한 자전거 도로와 보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자동차 외의 녹색교통수단 이용을 장려할 것, 효과적인 교통관리와 효율적인 대중교통의 운영 및 교통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 등이 교통분야의 주요한 아젠다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1960 년대 이후 고도 경제성장 과정에서 우리 한국에서는 자동차 위주의 도로교통체계가 급속히 구축되어 자가용 승용차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의 급증 - 도로용량의 한계 - 교통체증 및 오염의 심화 - 도로건설 등 자동차를 위한 투자 확대 -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 업체 경영악화, 서비스 저하 - 승용차 교통으로의 전이 가속화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정립되었다. 이로 인해 도시와 가로는 경관과 여유를 잃었고 환경과 문화는 파괴되었으며, 기본적인 안전과 형평성이 무너졌다. 그리고 약자를 배려하지

않는 시설과 제도, 경제적 효율성과 성장 제일주의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및 평등한 교통권을 침해하였고, 생명의 가치와 문화 그리고 국토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였다. 그럼에도 여전히 정부 교통정책은 수요관리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에 따라 그 폐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리우 이후 여러 시민환경단체의 노력과 시민의 각성으로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교통 현실은 '지속가능한 교통'을 이야기하기엔 아직 부족한 측면이 많은 현실 속에서 이번 WSSD 는 다른나라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을 위한 노력과 그 성과를 볼 수 있을 거라는 기대, 그리고 이들과의 연대를 통해 우리나라 교통운동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실제 참가해서는 이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적었으며, 진행상의 문제·준비 부족의 문제 등으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하지만 남아공에서의 열악한 교통환경은 오히려 우리의 교통 현실과 대비되어 문제의 중요한 핵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2.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선진국의 정책

OECD 선진국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속 가능한 교통정책은 생태적 파괴와 인체건강의 위협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제고 및 자원 절약적인 교통관련 기술개발과 경제적 효율성을 이룰 수 있는 제반 정책수단을 채택하여 이동성과 접근성을 증진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교통의 기능과 환경보전 및 장래 삶의 질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교통비용에 내부화시켜 이용자가 부담하는 체계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영국의 연료가격 인상, 자동차 등록세의 CO₂ 배출량에 따른 차등 부과, 프랑스의 유류세 부과 등 비용의 내부화를 통한 교통에 있어서의 시장 기능 회복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대기오염억제, 기후변화방지, 소음감축, 토지 및 자연보전, 이동성 증진 등에서 개선 정도의 진척을 평가 점검하는 장기전략을 설정하고 진척상태를 점검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독일의 경우 철도와 대중교통의 투자를 늘려 연방정부 교통투자의 20% 정도를 철도에, 20% 정도를 대중교통에 투자하고 있었으며, 도로교통의 억제·대중교통 이용 촉진 등 비기술적인 수단을 함께 강화하여 교통수요감축,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교통수단으로 수송을 유도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우분투에서 만난 유럽철도연맹()에서는 지속가능한 교통 실현에 있어서의 철도교통의 우위성을 홍보하고 있었으며 철도 중심의 교통체계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철도의 수송분담율이 10% 미만인 우리의 현실로 보면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3. 남아공 등 후진국의 교통현실

그러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대부분의 아프리카 후진국에서는 지속가

능한 교통이란 개념조차 서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빈곤, 인권 등 다른 중요한 문제에 가려 교통 문제는 아직 크게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기본적인 대중교통망조차 확보되어 있지 않아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은 대부분의 빈민층들은 카풀이나 봉고택시(기본요금 2 란트, 같은 방향의 인원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택시) 혹은 먼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하고 있었다. 미팅을 가졌던 DPISA(Disable People of South Africa : 남아공장애인단체)의 Simon Zwane 은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백서가 작성되어 복지적 측면에서는 고용문제 등 해결노력이 있어 왔으나 장애인 이동권 등 교통의 형평성 문제는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DPISA 등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



[SOWETO 봉고택시 정류장의 모습]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요하네스버그의 교통 현실조차 NGO 참가자들의 원성의 대상이 될 정도로 열악하고, 특히 부촌과 빈촌의 가로환경 차이가 극심하였다.

하지만 요하네스버그의 도심교통체계에 있어서 몇가지 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도심에서의 일방통행로는 교통체증을 유발하지 않도록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고, 특히 일방통행로에서의 대중교통에 대한 역류차선의 허용은 도심에서의 대중교통에 대한 배려를 엿볼 수 있었다.



4. 이번 WSSD 가 남긴 과제

이번 WSSD 는 자본과 시장의 막대한 힘을 보여주는 전시장이었다. NGO 행사장인 나스렉에서는 의미있는 포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우분투에서는 오히려 수많은 다국적기업들의 홍보부스들로 가득차 있었다. 정상회의 결과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과 이행 시한을 제시하지 않은 맥빠진 이행계획에 대한 선언으로 끝나 버렸다. 대체에너지에 있어서도 당초 2010년까지 대체에너지 사용비율을 15%로 확대할 것과 구체적 목표 연도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유럽연합(EU)이 미국과 산유국들의 거센 반대로 한발짝 물러남에 따라 각국에 대체에너지 사용을 신속하게 늘리도록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는 수준에서 합의됐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있어서도 당초 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교토의정서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국가들에게 강력히 비준을 권고한다는 정도만 합의됐을 뿐이다. 부끄러운 협상을 한 '세계정상회의' (The World Summit of Shameful Deals)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1992년 리우선언에 비해 오히려 더 후퇴한 듯한 이번 이행계획으로 환경민간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는 지구환경을 지구시민의 힘으로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더욱 커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국제회의에 대한 NGO 들의 대응력 강화 문제이다. 세계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국내 문제에 집중해 온 한국민간위원회 구조로서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장조차 제대로 표출할 수 없었다. 국제네트워크를 통한 사전 논의 및 로비 구조의 형성 등 몇몇 국제단체들이 보여준 모습은 평상시의 국제 연대 활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었던 것은 언어의 장벽이 아니었던가 싶다. 다른 단체와의 미팅을 하건, 포럼에서 논의를 하건간에 통역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상태에서는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일이 추진될 수 없었다. 평상시 언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해 온 결과일 것이다.

이번 WSSD 에의 한국 NGO 들의 참여를 놓고 여러 비판들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명확히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뒷모습이 관찰되기도 하고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았던 성격이 드러나기도 하는 등 새롭게 자신을 재평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점은 명확하다.

이번 WSSD 의 결과가 우리 환경단체들에게 더 많은 과제를,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제는 재평가된 모습 속에서 앞으로의 10년을 준비할 때다. 이번 WSSD 참가를 통해 드러난 개인의 모습과 우리 시민운동의 현주소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과제, 우리 운동의 과제를 상기해 본다.

WSSD 한계와 가능성

조윤미 (녹색소비자연대)

■ 들어가며

WSSD 는 처음으로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개인적 경험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국외 NGO 운동의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한국에서의 환경운동에 몸담고 있는 활동가로서 가져야 할 국제적인 시각에 조금은 눈을 뜬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WSSD 참가를 준비하며 국내에서 참여한 많은 세미나와 워크샵, 크고 작은 논의들속에서도 답을 찾기어려웠던 과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도 했다.

우선 이번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WSSD 를 관철하는 하나의 의식은 파트너쉽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1992 년 개최된 리우회의에서는 NGO 는 회의장 밖에서 따로 자체의 세미나와 이벤트를 가지고 의제 21 를 합의하는 GO 의 회의를 바라보아야 했다. 회의장에 접근하는것도 불가능하였고 따라서 NGO 들끼리의 만남은 매우 풍부하고 활동적이었으며 GO 를 상대로 한 데모도 다양하였다.

반면 이번 WSSD 는 회의장안에 접근이 자유로왔으며 (물론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했지만) 언어소통 문제만 없다면 매우 활발한 회의참여와 로비가 가능하였다. 처음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하여 NGO 포럼장인 나사렛에 갔을 때 프로그램도 없이 엉망인 준비상태와 국제적으로 첨예한 다양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한 포럼을 보고 실망하였다. 리우회의때의 NGO 활동을 듣고 기대한것에 비하면 차라리 관광이 더 나아보였다. 며칠 지나지 않아 곧 이곳 나사렛은 단지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NGO 활동가를 위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측은 작은 배려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되었다. 이미 세계적인 NGO 단체와 활동가들은 본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샌톤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NGO 입장을 표명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다. 본회의장 밖에서 별도의 캠프를 차리고 WSSD 개최자체를 반대하는 또하나의 NGO 그룹도 있었다. 지구의 벗, 그린피스등이 대표적이었는데 이들은 주로 People's Movement(민중운동)를 주장하는 그룹들이다. 또하나의 특징은 유럽의 녹색당, UNEP, EARTHDAY NETWORK 등이 개최하는 포럼은 단일국가내에서의 운동보다는 국제운동단체들간의 네트워크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이미 특정한 과제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적인 운동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각국에서의 경험을 보고하고 평가하는 포럼이 대부분이었으며 따라서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제를 논의하고 있었다.

파트너쉽과 국제운동네트워크가 이번 WSSD 의 키워드인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제 21 이라고 하는 파트너쉽을 실현하는 구조를 가졌으나 여전히 GO 와 NGO 간의 파트너쉽이 운동적으로 성립해본 경험은

가지지 못한 수준이며, 국제운동네트워크의 주체가 되거나 참여가 활발한 나라도 아니다. 400 여명이나 되는 많은 NGO 활동가들이 이번 WSSD에 참여했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좀더 쌓은 것 이외에 요하네스버그에서의 운동적 성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한국의 NGO는 WSSD를 준비하며 국제운동네트워크를 형성하기 보다는 한국민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내적 이슈에 집중하였고 나사렛에서의 활동도 이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는 단지 우리나라 NGO 활동의 문제라기 보다는 개도국이라는 한국의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국제사회에서 특정한 위치를 갖기가 어려운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언어의 한계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운동네트워크의 지도적 역할을 하기 어려운 큰 장벽중 하나라는 판단이다. 이는 자국내 NGO 운동의 기반이 약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이나 인도 등의 지식인들이 국제적인 NGO 지도자 및 지도국가로써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 다시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자유로운 언어구사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한국의 NGO 활동의 다양성이나 민중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뿌리깊은 운동의 역사에 세계가 놀라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 한계에 대하여

이번회의가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것은 WSSD의 주요의제인 빈곤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빈곤이나 개발이냐의 두 갈림길에서 제 3 세계가 걸어야 하는 길은 가시밭길이다. 빈곤은 철저히 구조적이며 환경적인 문제이다. 그나마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주변국에 비하여 많은 가능성을 안고있는 나라로 생각된다. 흑인정부가 들어선지 7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남아공은 두가지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한다. 하나는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개발의 과제를 집행할 수 있는 흑인지도력의 부재이다. 대다수 흑인은 문맹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거나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할 능력을 갖고있지 못하다. 흑인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백인이 떠난 자리를 흑인이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하나는 이미 시장화되어 버린 경제와 개발요구속에서 어떻게 환경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현지에서 방문한 사파리도 대규모 국립공원을 제외하고는 중소규모의 백인소유 사파리들이 매우 많았다. 한국에서 '동물의 왕국'을 보며 동물세계이 자연적인 모습에 경탄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며 그것 역시 촬영지를 제공하고 수입을 올리는 연출된 모습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이 충격을 주었다. 남아공 사파리의 80%가 개인소유라고 한다. 이곳의 동물들은 최소한 우리에게 간혀있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계산에 의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였다. 아프리카의 오지에도 시장의 힘은 여지없이 뺏치고 있는 현실을 절실하게 느꼈다.

비단 자연의 시장화, 상품화 뿐 아니라 WSSD 그 자체도 시장의 힘이 좌우하고 있다. EU의 환경친화적인 정부입장이나 미국, 일본 등의

자국산업중심적 입장이나 결국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지를 넓히고자 하는 의도는 같은것이라 하겠다. 요하네스버그의 우분트는 이런 기업의 힘을 잘 보여주는 행사장이었다. NGO 들이 머물고 있는 썰렁한(?) '나사렛'에 비하여 세계적 기업, 단체, 정부의 이벤트 장인 우분트는 활기에 넘치고 풍성했다. 막강한 기업의 힘은 정상회의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행계획 곳곳에 주장을 관철했다. 예를들면 재생에너지 공급비율에 있어 EU 는 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2010 년까지 전세계적으로 15% 달성, 선진국은 2000 년 대비 2% 포인트를 증대하는 목표 채택을 주장했으나 77 그룹은 개도국에게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접근 문제임을 주장하며, 미국, 일본 등은 국가별 상황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수량화된 목표에 반대하여 결국 1 차 에너지 대비하여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의 공급비율을 수량적으로 구체화하지 않고, 시급성을 가지고(with a sense of urgency) 대폭 증가시키도록(substantially increase) 촉구하는 애매한 합의로 끝났다. 지구환경 악화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리우선언 7 원칙)을 재원과 기술지원으로 연계시키려는 개도국의 시도에 대해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타협한 것은 WSSD 가 공염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항목이 되었다. 더불어 환경친화상품의 구매촉진에 필수적인 에코라벨링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수단을 자발적으로 활용토록 하되, WTO 에서 협상이 진행중이고 성격 규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언급이 삭제되었다. 이 세가지는 환경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WSSD 에서 기업의 기득권을 가장 잘 대변해준 항목이다.

■ 가능성에 대하여

WSSD 에서 참가한 포럼중에 기억에 남는 것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EARTHDAY NETWORK 의 환경보건통합 접근을 통한 지역사회운동에 관한 것과 독일의 에코라벨인 블루엔젤의 활용에 관한 사례발표이다. 지구의날 네트워크는 시드니에 본부를 둔 전세계 184 개국의 환경네트워크이다. 우리나라에는 4 월 22 일 지구의날 행사를통해 알려져 있다.

지구의날 네트워크에서는 올해 상시적인 프로그램으로 환경과 보건을 통합한 지역사회 지표개발과 측정을 위한 전략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요하네스버그 포럼에서는 지역사회 위험요소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와 생태적 발자국 측정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환경보건의 통합적 접근은 녹색소비자연대의 운동개발 과제이기도 하다. 환경은 공공재로써 개개인의 실천을 통한 불특정다수의 이익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반면 건강은 환경적 영향속에 존재하는 개인의 이익이다. 두가지 개념의 결합은 보다 환경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가는 개인의 참여동기를 부여한다. 건강을 위한 생활은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공공재이므로 실천동기가 부족

한 환경을 건강이라는 구체적인 개인이익과 연결함으로써 높은 참여를 유도해 낼수 있다는 것이 지역사회 환경보건 통합접근의 기본 개념이 된다. 지구의 날 네트워크에서는 지역사회 환경보건지표개발을 위해 1)워킹그룹조직 2)지표에 관한 초기세트 개발, 3)기존의 모형,지표, 자료검토 4)지역사회 대화의 장과 비전 마련하기, 5)측정을 위한 지표선택 6)자료 수집하기 7)보고서 발표와 진척 8)관련성 탐구 9)지표확인등의 9 단계를 제안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유니세프, 유럽 건강과 환경네트워크등이 참여하는 운동네트워크포럼을 개최하여 프로젝트의 추진전략에 관한 토론을 전개하였다.

독일의 에코라벨링 포럼에서는 상품의 환경친화적 부분을 라벨에 직접 기술하는 방식의 라벨링 시스템을 보고하고 이의 발전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에도 환경마크가 있으나 소비자인식이 낮고 구체적인 마크가 제공하는 정보가 취약한 단점이 있는데 마크는 일정하더라도 환경친화적인 정보를 보다 쉽게 알수있도록 기술하는 방식은 신선한 느낌을 주었다.

많은 포럼가운데 위의 두가지 포럼을 언급한 것은 WSSD 이후의 운동방향을 위의 두 포럼을 통해 엿볼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다. 지구의 날 네트워크의 포럼은 환경보건의 통합적 접근이라는 리우의 원칙적 합의에서 출발하여 지역사회에 적용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고무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WSSD 에서 합의된 이행계획에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10 개년 계획(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을 수립키로 합의한 부분은 불완전하기는 하나 대량소비사회에서의 생활양식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의 시발점으로 의미가 깊고 이를위해 에코라벨은 부분적이나 시장의 녹색화를 위해 강화 발전해 나가야 하는 제도로써 의미가 깊다하겠다.

■ 맺으며

이번 WSSDS 를 참가하며 결국 지구환경은 자연자원의 보존이라는 국가내 과제가 있지만 이것을 포함하여 시장의 녹색화없이는 쉽지않다는 생각을 더욱 강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연자원의 개발도 넓은 의미에서보면 시장의 매커니즘속에 존재하는것이고 보면 녹색소비자운동을 통한 기업의 견제야 말로 중요한 운동과제라 생각된다. 이미 기업과 경제가 세계화되어있고 더불어 시장도 세계화되었다. 국제적인 녹색소비 운동네트워크의 발전이야 말로 세계화된 시장의 유일한 견제세력이 아닐까 한다.

또한가지 이번 WSSD 는 파트너쉽에 입각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10 년과정을 평가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할것이라는 판단이다. 과연 파트너쉽론이 올바른 선택이었는가? 이것이 지구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데 기여한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점에 있어 시민운동은 심각한 자기

물음을 해야 한다고 본다. 시장의 힘에 경도되어 있는 GO 와의 파트너쉽이라는 것이 운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번 회의참가를 계기로 국제적 운동지도력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기위한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국제적 시각을 갖지 않고서는 지역에서의 운동의 방향도 올바르게 잡아가기 힘든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이미 한국에서의 이슈가 세계적 이슈와 다르지 않고 한국안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적 동향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쉽지않다는 사실이다.

WSSD 를 계기로 새롭게 바라본 환경문제

태영은 (환경정의시민연대)

■ 들어가며

전지구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지 30 년이 흘렀다. 1972 년 '오직 하나뿐인 지구'라는 슬로건으로 개최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해 발생한 공해, 오염 등의 문제를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스톡홀름 선언이 채택됐고, 그 후 20 년 만에 지구정상회의라고 불리는 리우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27 개 원칙으로 구성된 "리우선언"과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실천강령인 "의제 21"이 채택됐고, 또 잘 알려져 있는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산림원칙선언 등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요하네스버그에서 있었던 WSSD 회의는 21 세기를 이제 막 시작한 시점에서 지난 30 년 동안 우리 인류가 안고 있던 공동의 과제이자 해결 노력을 경주한 지구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첫 회의라는 측면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번 WSSD 회의는 리우회의보다 후퇴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심하게는 RIO-20 이라고 해서 1972 년에 있었던 스톡홀름 선언보다도 못하다는 평가를 하는 이들도 많다. 환경 역사가 30 년이나 후퇴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회의의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고, 리우회의의 정신은 물론이고 이번 회의 전에 있었던 새천년 선언이나 도하선언 내용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했다.

부실하게 진행된 NGO 포럼 행사장이나 유엔 회의장인 샌튼에 접근이 어려운 점 등 이번 요하네스버그 WSSD 참가 기간 동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준비상태도 부족했지만 세계 공동의 이슈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이 어찌 이렇게 요원할 수 있는가 새삼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왜 이 회의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이라는 곳에서 열렸는가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더욱 깊은 수렁 속으로만 빠지고만 있는 세계

적 빈부격차와 환경파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고민케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환경운동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해야하는지 과제를 던져주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번 WSSD 를 실패로 이끈 원인이며 남아공에서 경험했던 새로운 식민주의로서의 세계화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운동 방향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간단한 의견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 새로운 경제 식민주의로서의 세계화 문제

이번 WSSD 회의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열린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아프리카대륙은 대개 16 세기를 전후해서 원시부족국가에서 서방 세계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역이다. 따라서 아프리카는 20 세기말까지 절대적인 빈곤과 인종차별을 감내해 왔고 대부분 20 세기말에 독립국가로 제 위상을 찾았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절대빈곤 문제는 대륙의 환경문제가 급속하게 악화되는 원인이 되었고, 또 딱히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태로 내몰리고 있었다. 서방 선진국이 이전시키는 각종 오염시설과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지속가능하지 못한 농업 등 빈곤문제 해결없이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그리하여 지구환경문제의 최대의 화두가 빈곤문제 해결에 있다는 인식에서 이번 WSSD 회의가 아프리카대륙에서 개최된 것이다.

남아공 방문 내내 여러 곳에서 빈부격차 문제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넓은 토지위에 건설된 황량한 도로 위에서 걷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흑인이고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백인이다. 7000 명이 사는 흑인 빈민지역은 수도꼭지가 겨우 25 개에 불과한 열악한 환경이지만 부유층이 사는 대저택에는 풀장과 테니스 코트가 있다. 이렇게 심각한 불평등의 문제로 요하네스버그에서는 범죄가 빈번히 일어났고 계획도시로서 모습을 갖췄던 요하네스버그의 중심부는 흑인이 점령하여 활기를 잃어버린 유명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정치적으로는 독립국가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권력과 자본은 백인들이 쥐고 있는 가운데 다국적기업의 세력이 더욱 거세보이는 남아공은 새로운 초국적 기업의식민지나 다름없다. 전국에 걸쳐있는 장거리 버스는 Shell 주유소의 휴게소에 정차한다. 확실히 남아공 순수 국내 기업은 거의 보이지 않고 다국적기업의 간판들만이 보일 뿐이다. 남아공은 우리나라보다 거대 초국적 기업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힘이 훨씬 떨어지는 듯 해 보였다. 거의 무방비 상태로 경쟁력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빈곤 문제가 해소될 길은 보이지 않는다.

정치적인 식민주의가 종말을 고한 것은 식민지를 차지한 강대국들이 식민지에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정치적으로 훨씬 좋을 뿐 아니라 더욱 효과적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

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서구의 상품과 서비스를 위해 계속 커져 가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서구의 산업이 사용할 싼 노동력과 원료의 공급원을 마련하기 위해 제 3 세계를 서구의 무역 시스템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함에 따라 제 3 세계가 개발되었다.

차관을 통해 제 3 세계는 선진국에 의해 확실하게 통제된다. 빈곤은 저개발의 증상으로 진단되고 치료를 위해 개발이 강요된다. 안타깝지만 당연하게도 이 개발은 제 3 세계의 지역민들을 위한 개발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여 이익을 얻는 초국적 기업을 위한 것이 된다.

기업형 식민주의는 과거의 식민주의, 혹은 지난 50 년 동안의 개발의 식민주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하게 만들고 그들을 사회의 소외된 계층으로 만들며 더 많은 문화를 파괴하고 더욱 심각한 환경파괴를 초래한다.

세계은행과 IMF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따라 철저히 세계화 경제를 진행시킨 멕시코의 경우를 살펴보면 그 비참한 결과를 알 수 있다. 1982 년 이후 멕시코는 사회 복지 지출을 포함한 공공지출의 감축, 정부 보조금 철폐, 국영기업의 민영화, 무역 자유화, 세계개혁, 해외투자 장벽 철폐, 임금 감소 등 구조조정 정책을 성실히 이행했다.

그 결과 외부에서 밀려오는 단기 투기성 투자가 증대함으로써 멕시코 경제는 외국정부와 개인 투자자들의 변덕에 취약한 상태로 놓였다.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 유연한 노동력을 위해 실질임금은 감소되고 복지혜택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시간당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양산되며 실질적인 실업률도 증가했다.

사회복지 지출 감소는 이에 의존하던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했다. 보건 서비스 지출 감소로 영양결핍으로 인한 유아 사망율이 크게 증가했으며 교육지출 감소는 사립학교의 증가를 가져와 일정 소득 이상의 계층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영기업의 민영화는 부의 집중 현상을 더욱 악화시켰고 민간기업에 의한 독점 사례를 증가시켰다. 빈곤 인구는 늘어나고 소득과 자원이 봉급생활자로부터 자본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공적인 통제에서 소수의 개인 통제로 이전되었다. 멕시코에서 가장 부유한 계층에 속하는 한 사람의 자산은 가난한 사람 1,700 만 명의 연간소득을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각하여 생물학적 풍요가 빠른 속도로 사라져갔다. 환경보호 조치 없이 산업화를 추진한 결과 천연자원의 대규모 수출을 장려하는 농업 정책이 촉진되었다. 대규모 가축 농장에 대한 정부 보조는 숲의 벌채와 토양 침식을 초래했다. 멕시코시티의 대기오염은 줄곧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환경은 더욱 심각하게 파괴되지만 이를 막기 위한 환경예산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에 의해 감소되어야 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환경파괴의

피해자의 대부분이 자연자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꾸릴 수 밖에 없는 지역 공동체의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세계화 경제를 추진한 결과 멕시코인들은 임금과 소득의 감소, 소비자 물가의 인상, 빈곤의 증가, 그리고 환경파괴 등 매우 우울한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은 멕시코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세계 시장에 통합되어 있는 대부분의 제 3 세계가 처한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현실도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국가들처럼 비관적은 아니지만 경제의 대외의존 심화, 극심한 환경파괴, 소비문화 확산, 빈부격차 증가 등 결코 낙관할 수는 없는 상태라 여겨진다.

이런 파국적인 세계화의 결과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얻을 것이 많은 초국적 기업의 강력한 후원을 받고 있는 경제이론가와 정치 지도자 등의 엘리트이다. 기업에게는 이 견장을 수 없는 흐름이 원료 공급지와 시장을 확대하여 전세계적으로 획일화된 소비주의 생활 양식을 창출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바로 이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자유무역과 규제 철폐, 세계 경제의 사유화이다. 그들은 이제 자연환경, 생명체마저도 소유하고 팔아먹으려 하고 있다.

샌튼 스퀘어의 BMW 대형 홍보 부스, 나스렉의 FORD 재단 워크샵룸, 회의장 곳곳에 놓인 NESCAFE 의 커피메이커, 기업의 홍보전시장으로 변한 우분투 등. 이번 WSSD 참가 동안 여기저기서 기업들이 뻗친 손길들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LG 도 샌튼 시티에 대형 전시부스를 차리고 있었으며 국내에서 여러 신문에서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다루고 있었다.

과거에는 유럽국가의 식민지로 현재는 새로운 초국적 기업 세력에 의해 식민지와 다름없는 남아공의 현실은 우리의 현실과는 다소 요원해 보이면서도 환경문제의 근원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존재한다는 인식의 중요함을 깨닫게 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더욱 거센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과 그에 대한 대응이 중요함을 새겨본다.

■ WSSD 참여와 현실 운동과의 접목

- 국토보전 운동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 국토 난개발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과는 다르게 이번 WSSD 회의의 시민사회포럼에서는 토지이용 관련 주제의 토론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토지이용 분야 이슈는 국제적 관심보다는 좁은 국토, 수도권 집중현상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서 바라보아야 할 영역인 것 같다.

토지와 관련해 NASREC 에서 논의된 주제는 여성이나 빈곤층의

토지이용에의 접근권 문제와 Landlessness 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환경정의시민연대의 이념인 환경정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중요한 문제라 여겨진다.

또 토지황폐화(land degradation) 문제가 종종 언급되었다. 토지황폐화는 토지가 생명의 터전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무분별한 개발, 산업화된 농업방식 등으로 인해 죽은 땅이 되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 경제 속에서 농산물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한 농작물만 집중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순환 경작을 통해 건강함을 유지해야 할 토지가 단일 경작과 대량 농약살포 등으로 인해 척박해지며 그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에서는 무분별한 지하 개발로 깊은 땅 속까지 토지황폐화가 진행된다.

다른 분야도 비슷하겠지만 국토보전운동을 진행함에 있어 항상 부딪히게 되는 반환경적 개발논리의 근원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해보고자 한다. 90년대 도입된 토지공개념 3 법이 유명무실해지는 배경에는 신자유주의 사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3년부터 새로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적용이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토계획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환경정의시민연대는 앞으로도 친환경적 국토이용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칠 것인데 특히 국토 난개발의 동력이 되는 토지의 투기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토지의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둔 활동을 펼칠 것이다. 이런 토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운동을 진행함에 있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전면으로 배치되어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경제 특별 구역 법안도 다국적 기업이 편하게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이런 흐름을 여실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국토 난개발 대응이라는 개별 운동 주체도 우리나라의 국토이용의 현실, 지역 상황 등 많은 고려사항이 있겠지만 국토 파괴를 일으키는 근본에 흐르는 철저한 자본주의에 근거한 신자유주의적 흐름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환경정의 국제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환경정의가 다소 생소한 말이다. 하지만 이번 WSSD 내내 'Environmental Justice'를 주제로 하는 많은 토론들이 있었다.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환경정의운동을 하는 단체가 몇 십개가 되고 그들의 네트워크 조직도 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렇듯 세계적으로 환경정의가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은 우리 단체가 지향하고 있는 운동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고 본다. 우리 단체가 아직은 환경정의운동이라고 내세울만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NASREC 에서 워크숍을 개최함으로써 다른 나라의 환경정의 단체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좋은 발판이 되었다. 우리로써는 그들과 함께 운동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우선 필요할 것이다.

또한 환경정의 문제 중 핵심적인 것 중 하나가 국가 간 환경정의 문제인데, 이 문제의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연대가 필수적이다. 환경과피해를 유발하는 자와 그로 인한 피해를 입는 자가 다르다는 환경부정의 문제는 세계화의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적용이 된다. 세계화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국가 간 환경정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꼭 필요할 것이다.

■ 마치며

이렇듯 이번 WSSD 참여를 통해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문제, 빈곤문제를 바라보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번 WSSD의 실망스런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더 이상 지구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협력에 있어 희망적 성과를 기대하기는 앞으로도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기업의 세계 지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더 좋은 사업 환경을 위해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들의 거대한 자본과 압력에 비하면 시민사회의 대응은 매우 초라하다. 가동 자원 면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시민사회가 이를 어떤 방식으로 극복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의 저항적, 사후적 운동방식들이 더 이상 유효할지 의문시된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를 인식하고 대안사회를 위한 풀뿌리 차원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확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대안 운동의 확산을 위해 NGO들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중요한 때이다.

[부록 1]

지속가능한발전세계정상회의(WSSD) 결과 및 향후과제

자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국제환경협력과

1. 회의 개요

가. 기간 및 장소: 2002.8.26-9.4,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2002.8.24-25 : 사전 실무협상

나. 참석자: 193 개국과 팔레스타인, 16 개 유엔전문기구, 67 개 국제기구

○ 104 개국에서 정상급 인사(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참석

○ 정부대표 9 천명, NGO 8 천명, 언론 4 천명 등 총 21,000 여명

※ 1992 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시는 178 개국 17,000 여명 참석

다. 주제: 인간, 지구 그리고 번영(People, Planet and Prosperity)

라. 개최배경

○ UNCED 이후 10 년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도 평가 및 지속가능발전의 의지 재확인

마. 회의 구조

○ 개회식 : 8.26(월), 폐회식 : 9.4(수)

○ 세계민간포럼: 8.19(월)-9.4(수)

- 8.19-22 : 사전 정상회의

- 8.24-25 : 국제전략개발

- 8.26-28 : 공통이슈 워크숍

- 8.29-9.4 : 테마 워크숍

○ 각료급 본회의 : 8.26(월)-30(금)

- 8.26-29 : WEHAB(Water and sanitation, Energy, Health and environment, Agriculture, and Biodiversity and ecosystem management) 이슈 토의

- 8.29-30 : 국제기구 연설

○ 정상급 본회의 : 9.2(월)4(수)

- 수석대표 연설, 원탁회의 동시 진행

○ 채택문서 협상 : 8.24(토)9.4(수)

- 이행계획은 Vienna setting(실무자) 과 Johannesburg setting (각료급)으로 진행

- 정치적 선언문은 시간 부족으로 남아공이 주요그룹 대표들과 비공식협의로 처리

2. 요하네스버그 선언문(Johannesburg Declaration)

가. 협상 경과

- 2002.6 월 발리 준비회의 이후 정치적 선언문에 담길 요소(elements) 배포
- 남아공이 준비한 1 차 초안(9.2)에 대해 그룹별 의견 수렴
 - 분량이 길고 내용이 산만하다는 의견이 지배적
- 남아공이 제시한 2 차 초안(9.4)에 대해 그룹 대표들이 모여 최종 검토
- 정치적 선언문은 "요하네스버그 선언문"(Johannesburg Declaration)으로 최종 채택

나. 주요 요지

- 지속가능발전 추진 의지 표명 및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확인
- 빈곤퇴치, 소비·생산패턴 변경, 자연자원 보호가 지속가능발전에 가장 중요한 목표
- 세계화의 혜택과 비용이 불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으며 개도국은 특별한 어려움에 직면
- 음용수, 위생, 주거, 에너지, 보건, 식량안보, 생물다양성, 자원, 시장 개방, 능력형성,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교육 및 훈련 등이 중요
- 만성기아, 영양실조, 외국인 점령, 무장분쟁, 마약, 부패, 테러, 증오, HIV/AIDS 등에 적극 대처
- 여성, 원주민, 기업 등 주요그룹(major group)의 역할이 중요
- 선진국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적개발원조(ODA) 수준 달성 촉구
- 아프리카개발파트너십(NEPAD) 지지 및 군소도서국가 지원
- 모든 차원의 governance 개선, 강화
- 지속가능발전에 있어 유엔의 지도적인 역할 지지
-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의 실천을 공약

3. 이행계획 (Plan of Implementation)

가. 협상 경과

- 발리 준비회의에서 3/4 이 타결, 그러나 핵심 쟁점은 미타결
- 이행계획 협상은 8.24 부터 주요 그룹 대표들 위주로 진행하는 Vienna setting 으로 진행하고, Vienna setting 에서의 결과는 주 위원회(Main Committee)에 수시 보고
- 8.31 부터는 실무자간 협상에 한계를 느끼고 각료급 협상인 Johannesburg setting 을 진행
- 9.3 그동안 협상결과를 Vienna setting 에서 최종 확인하고 Main Committee 를 거쳐 9.4 정상회의에서 이행계획 채택

나. 핵심 쟁점

A. 리우선언

(1)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Para 2, 13, 19, 37, 75)

- 지구환경 악화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리우선언 7 원칙) 을 자원과 기술지원으로 연계시키려는 개도국의 시도에 대해 보다 중립적인 표현으로 타협
 - 선진국은 동 원칙은 리우선언 27 개 원칙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이며, 개도국은 여타 원칙보다 동 원칙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입장
 - 타협안으로 "taking into account the Rio Principles, including(선), inter alia [in particular](개) the principle of CBDR" 표현 채택

(2) 사전예방원칙(Para 22, 103(f))

- 과학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환경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 리우선언 15 원칙)을 리우선언에 있는 용어대로 사용하고 부분 인용시 있을 수 있는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을 그대로 인용.
 - EU는 사전예방적 접근(approach)이 원칙(principle)으로 발전되었음을 주장하고 지난 10년 간의 진전을 담아야 함을 주장하였으나 EU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B. 인권문제

(1) 인권과 지속가능발전 윤리(Para 5, 6)

- 지속가능발전에 인권 존중이 필요한 것으로는 합의되었으나 인권을 구체화하는 수식어는 붙이지 않고 개발에 대한 권리를 추가하여 균형을 유지
 - 선진국은 인권 앞에 all 을, 개도국은 internationally recognized 를 추가할 것을 주장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윤리(ethics)의 중요성은 선진국의 주장으로 포함

(2) 의료시스템과 인권(Para 47)

- 의료시스템(health-care systems)의 기능이 국내법과 문화·종교적 가치 외에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따라 강화되어야 함
 - 캐나다의 강한 주장에 따라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라는 표현 추가

C. 세계연대기금(Para 6(b))

- 빈곤퇴치를 위한 자발적 성격의 세계연대기금(World Solidarity Fund) 설치에 합의
 - EU는 기금 설치에 은행계좌 개설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재원이 마련되지는 않을 것이며 설치 문제는 유엔총회의 결정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기금설립에 반대, 77 그룹의 강한 요청에 따라 EU는 기금 설치에 동의

D. 위생문제(Para 7, 24)

- 2015년까지 안전한 음용수와 기본적인 위생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는 인구를 1/2로 축소하기로 합의

- 음용수 문제는 유엔의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 포함되어 있으나 위생 문제는 동 목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국이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데 반대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동의

E. 생산 및 소비패턴

(1) 10 개년 계획 수립문제(Para 14)

-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10 개년 계획 (10-year framework of programmes)을 수립기로 합의
 - EU는 단일의 계획을, 미국과 77 그룹은 복수의 계획을 주장하였으나 EU의 주장이 보다 많이 받아들여진 타협안에 합의

(2) 전주기 분석 적용(Para 14(c))

-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정책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주기 분석(life-cycle approach) 활용

(3) 에코라벨링(Para 14(e))

-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 수단을 자발적으로 활용토록 하되, WTO에서 협상이 진행중이고 성격 규정이 어려운 에코라벨링(eco-labelling)에 관한 언급은 삭제
 - 에코라벨링 관련, 77 그룹, 호주, 뉴질랜드는 자발적인 성격을, EU, 스위스, 일본은 자발적인 성격 외에 강제적인 측면을 주장

F. 에너지문제

(1) 재생에너지 공급비율(Para 19(e))

- 1 차 에너지 대비하여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의 공급비율을 수량적으로 구체화하지 않고, 시급성을 가지고(with a sense of urgency) 대폭 증가시키도록(substantially increase) 촉구
 - EU는 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을 201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15% 달성, 선진국은 2000년 대비 2% 포인트를 증대하는 목표 채택을 주장
 - 77 그룹은 개도국에게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에 대한 접근 문제임을 주장하며, 미국, 일본 등은 국가별 상황에 따른 에너지 정책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수량화된 목표에 반대

(2) 에너지 보조금 철폐(Para 19(p))

- 지속가능 에너지 시스템을 장려하기 위해 환경에 해로운 보조금 철폐를 포함한 시장 왜곡적 조치를 제거하는 정책 시행
 - 에너지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철폐(phase out)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선진국의 이행정도를 2007년에 점검하여 만족할 만한 경우 개도국도 이행하는 문안은 삭제

G. 화학물질(Para 22)

- 2020년까지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생산 및 사용될 것과 중금속의 위해를 감소할 것에 합의

- "2020 년"이라는 목표연도와 관련 동 문제는 보건에 관한 내용이므로 다른 사안과 차별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EU 의 강한 주장에 따라 미국, 일본, 한국 등과 77 그룹이 목표 연도 설정에 동의
- 부정적인 영향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EU 의 주장은 "최소화"하는 완화된 표현으로 정리

H. 자연자원 보호(Para 23)

- 자연자원의 훼손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내, 지역적 노력을 촉구
 - EU 는 "2015 년"이라는 목표연도를 설정하기를 희망하였으나 미국과 77 그룹의 강한 반대로 목표연도는 삭제

I. 수 산

(1) 고갈어족자원 회복(Para 30(a))

- 고갈어족자원에 대해 "시급하게 그리고 가능한 경우 2015 년까지"(on an urgent basis and where possible not later than 2015) 최대지속가능생산(maximum sustainable yield) 수준 유지 또는 회복
 - EU 는 목표연도 설정을, 77 그룹, 미국, 일본, 한국은 반대

(2) 공해상 어족자원 배분문제(Para 30(e))

- 공해 및 EEZ 내 경계왕래성 및 고도회유성 어족자원의 배분문제 관련 연안개도국의 권리(rights)를 지역수산기구에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연안국의 권리, 의무, 이해관계와 개도국의 특별한 필요"(rights, duties and interests of coastal States and the special requirements of developing States)를 고려하는 완화된 표현으로 합의
 - 연안개도국에 권리를 부여하는 문제는 한국만이 반대해 오다 노르웨이,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EU, 미국 등의 지지를 확보하여 표현을 보다 완화
 - 현행 국제법상 인정되는 "special requirements" 표현을 사용하고 연안국에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강조

J. 기후변화(Para 36)

- 교토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각 국의 노력을 촉구하는 유엔천년정상회의 선언을 언급하면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비준을 촉구
 - 미국은 모든 국가에 교토의정서의 비준을 촉구하는 동 문안에 반대

K. 사막화/지구환경금융(Para 39(f))

- 지구환경금융(GEF)에 토지황폐화(land degradation)를 중점지원 분야로 추가할 것을 촉구하고, 사막화방지협약의 재정체계가 될 것을 검토 요청

L. 생물다양성 보호

(1) 생물다양성 상실 추세 감소(Para 42)

○ 2010년까지 현재의 생물다양성 상실 추세를 대폭 감소(significant reduction)할 것을 달성

- EU는 2002.4월 헤이그 개최 생물다양성협약(CBD) 제 6차 당사국총회의 각료선언보다 후퇴된 표현이라고 비난

※ CBD COP-6에서는 'curb'과 'stop and reverse' 표현 사용

(2) 유전자원 활용 이익 분배(Para 42(o))

○ 유전자원의 활용에 따른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위한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을 Bonn Guidelines도 고려하고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테두리 내에서 협상

- 호주, 미국, 스위스 등은 international arrangement를, 77그룹은 international regime를 주장

- 국제 레짐의 성격에 대해 77그룹은 구속력을 주장하였으나 미국 등의 요구로 legally binding 수식어는 삭제

M. 세계화

(1) 세계화에 대한 시각(Para 45)

○ 세계화가 지속가능발전에 기회와 도전을 제공함을 언급하며 세계화의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가능한 균형 되게 기술

- 미국은 균형된 기술을, 77그룹은 부정적인 측면 부각 노력

(2) 세계화 대응 노력(Para 45(a), (d), 45.ter)

○ 도하각료선언문에 따른 협상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자원 관련 몬트레이 합의의 이행지지

○ ILO의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작업을 지지

○ 기업의 책임(responsibility and accountability) 증진

N. 재 원

(1) 공적개발원조(ODA) 지원(Para 79(a))

○ 선진국에 ODA로 GNP의 0.7% 제공목표 달성을 촉구하고 개도국에 ODA의 효과적인 사용을 요구, 또한 ODA 관련 목표의 이행 수단과 시한의 검토를 강조

- 유엔사무총장으로 하여금 ODA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

(2) 과다채무빈국(HIPC) 외채 탕감(Para 83(a))

○ HIPC에 대해 외채 탕감조치의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충분히 (speedily, effectively and fully) 이행을 강조

O. 무 역

(1) 개도국 우대조항 검토(Para 86(a))

- 무역 관련, 개도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조항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
 - SDT 를 operationalize 하자는 조항은 삭제
- (2) 비농산물 관련 관세 철폐(Para 86(b))
 - 비농산물 특히 개도국의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감축하고 적절한 경우 철폐하도록 목표
 - 77 그룹은 농산물, 비농산물을 구분하지 않는 일반적인 언급을 주장하였으나, EU, 일본, 한국 등은 현재 진행중인 WTO 협상체제(농산물과 비농산물 구분)와 상치됨을 들어 반대
- (3) 농산물 관련(Para 86(c))
 - 농산물 관련 상당한 시장접근 개선, 수출보조금의 감축 또는 철폐, 국내보조의 상당한 감축 등 도하각료선언문의 합의사항 반영, 또한 농산물의 비교역적관심(NTC)도 언급
- (4) 최빈개도국 수출품(Para 87)
 - 최빈개도국(LDCs)의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무쿼타(duty-free, quota-free)의 목표 달성을 선진국에 촉구
- (5) 보조금 문제(Para 91(b))
 - 보조금에 관한 도하각료선언문의 작업계획을 완료하는 것을 지지하는 문구로 합의
 - EU는 환경에 유해하고 무역왜곡적인 보조금의 감축 또는 철폐(reduce or phase out environmentally-harmful and/or trade-distorting subsidies) 문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표명.
- (6) 무역과 환경(Para 91, 92)
 - 무역, 환경, 개발간의 상호 지지성(mutual supportiveness)을 제고하고, 다자무역체제와 다자환경협약의 독자성(integrity)은 유지하는 중요성 인정
 - "while ensuring WTO consistency"라는 표현이 최초 포함되었으며, 호주, 미국이 찬성하였으나 투발루, 이디오피아, 77 그룹, EU 등이 반대하여 삭제
- (7) 1 차 상품 안정화(Para 89)
 - 개도국은 1 차 상품 안정화를 위한 메카니즘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1 차 상품 의존국의 능력을 형성하는 것으로 합의
- (8) 보건과 TRIPS 협정(Para 94)
 - HIV/AIDS 등 보건문제에 대처할 것을 요구하면서 무역관련지재권협정(TRIPS)이 WTO 회원국의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권리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것을 재확인
- (9) 건전한 관리체제(Para 120.bis, 123)
 - 건전한 관리체제(Good governance)가 지속가능발전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Good governance 의 요소로 건전한 경제정책, 민주제도, 자유, 평화, 안전, 안정, 인권, 개발권리, 법치, 남녀평등, 시장정책, 정의롭고 민주적인 사회에 대한 공약 등 거론
 - 몬트레이 합의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인용
- (10) 국별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Para 145(b))
 - 2005 년까지 국별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

다. 이행계획 평가

- 이행계획에 대한 평가는 보는 시각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 이는 지난 10년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정도가 만족스럽지 못함에 따라 금번 WSSD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큰데 따른 결과임.
- 금번 회의에서 많은 관심이 쏠린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지 못하고, 자원과 무역에서 지난 몬트레이(2002.3)와 도하(2001.11)에서의 합의사항을 뛰어 넘지 못한 측면도 존재함.
 - WSSD 직전 뉴욕에서 개최된 선·개도국 핵심국가(friends of the chair, 25 개국) 회의에서 몬트레이와 도하 합의를 재논의(reopen) 하지 않는데 공감대 형성
- 그러나 유엔밀레니움선언의 목표(빈곤인구, 음용수, 보건, 교육 등)를 재확인하고 위생, 화학물질, 어족자원, 생물다양성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것은 성과로 평가됨.
- 또한 이행계획에는 "의제 21"과는 달리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표와 연도가 없더라도 행동 지향적인 문구로 되어 있어 향후 10-20년 기간에 구체적으로 실천이 이루어질 경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많은 진전이 있을 것임.
- Kofi Annan 유엔사무총장은 WSSD에서 각국이 많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공약과 행동에 합의하였으며, WSSD가 부자와 가난한 자,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제부터 시작"(It's Just the Beginning)이라고 언급함.
- 금번 이행계획 협상에서 한국은 여러 분야에서 건설적인 기여를 하였으며 수산분야에서는 조업국으로서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음. 그리고 자원과 무역 관련하여서는 몬트레이와 도하의 합의를 유지하는 선에서 대응하였음.

4. WSSD 이후 우리의 과제

가. WSSD 결과에 대한 분석과 정책에 반영

- WSSD 결과, 특히 이행계획은 향후 10-20년 간 국제사회가 나아 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행계획 내용에 대한 분석과 국내 정책에의 반영이 필요함
 - 이행계획은 54 페이지, 153개 para의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매 para마다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
 - ※ 이행계획도 각국이 국가별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2005년까지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권고

나. 모든 정책에 지속가능발전성(sustainability) 고려

-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하는 지속가능발전 패러다임은 리우회의 이후 지난 10년 간 시도되어 왔으며 금번 WSSD를 통해 국제사회의 발전 패러다임으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림.
- 우리도 국가의 모든 정책, 계획 수립시 환경, 경제, 사회의 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다. 정책 및 계획 수립시 이해당사자(stakeholders) 참여 확대

- 정부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기업,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함이 필요함. 이해 당사자의 참여는 WSSD 에서도 크게 논의된 건전한 관리체제(good governance)의 핵심 요소임.

라. 국가의 정책 조정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 필요

- 지속가능발전은 국가 전체의 총체적인 노력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국가정책의 일관성 (policy coherence)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능력을 대폭 제고하여야 함

마. 이행계획 후속협상에 적극 참여

- 이행계획은 그 자체가 완결된 계획은 아님. 190 여 개국이 모여 목표와 달성 연도에 합의한 분야도 있고, 원칙적인 내용에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후속협상에 맡긴 분야도 있음.
- 우리나라는 후속협상과 이행계획 점검회의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기여가 필요함.

바. 국제사회의 빈곤퇴치 노력에 적극 동참

- 빈곤퇴치는 WSSD 의 최대 이슈였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세계 13 위의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는 공적개발원조(ODA)를 대폭 증대하여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함이 요망됨.

[부록 2]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

발단에서 미래까지 (From our Origins to the Future)

1. 우리, 세계 인구의 대표자들은 2002년 9월 2일-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세계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 모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한다.
2. 우리는 모두에 대한 인간 존엄성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인도적이고 공평하며 우호적인 지구사회를 구축하는데 전념한다.
3. 정상회의 초반부에 세계의 어린이들은 단순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미래가 그들의 것임을 이야기하였고, 따라서 우리의 조치를 통해 그들이 빈곤, 환경악화, 비지속적인 발전 패턴으로 야기된 냉대(indignity) 및 상스러움(indecency)으로부터 벗어난 세계를 상속받을 수 있는지 우리 모두에게 대답을 요청하였다.
4. 우리의 집합적인 미래를 상징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대답의 일부로써, 상이한 생활 경험의 세계 모든 구석구석 출신의 우리 모두는 새롭고 더욱 밝은 희망의 세계를 창출할 긴박한 필요성을 깊이 느낌으로써 연합하고 감동 받았다.
5. 따라서, 우리는 국가, 지역 및 세계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상호의존적·상호강화적 중심 기동인 경제발전, 사회발전 및 환경보호를 촉진하고 강화할 집합적 책임을 맡는다.
6. 인류의 요람인 이곳 아프리카 대륙으로부터 우리는 이행계획 및 본 선언을 통해 서로에 대한, 더욱 확대된 생활 공동체에 대한, 그리고 자손들에 대한 책임을 선언한다.
7. 인류가 기로에 서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빈곤퇴치 및 인간 발전을 초래하는 실질적이고 명백한 계획을 산출할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확고한 노력을 제정하도록 공동의 결의를 통해 연합한다.

스톡홀름에서 리우로, 다시 요하네스버그로 (From Stockholm to Rio de Janeiro to Johannesburg)

8. 30년 전 스톡홀름에서 우리는 환경 악화 문제에 대응할 긴급한 필요성에 동의하였다. 10년 전 리우에서 개최된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우리는 리우 원칙에 기반하여 환경보호와 사회 및 경제 발전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초임을 합의하였다. 이러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공약을 재확인하는 글로벌 프로그램, 아젠다 21 및 리우 선언을 채택하였다. 리우 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새로운 아젠다를 수립하는 의미 깊은 이정표였다.

9. 리우에서 요하네스버그까지의 기간 세계 국가들은 발전 재정에 대한 몬트레이 회의(Monterrey Conference on Finance for Development)뿐만 아니라 도하 각료회의(Doha Ministerial Conference)를 포함한 UN 지침에 따라 몇몇 주요 회의들을 회합하였다.

10. 요하네스버그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비전을 존중하고 이행하는 세계로의 공통 경로를 건설적으로 모색함에 있어 민족 및 견해의 값진 태피스트리를 불러모음으로써 많은 것을 달성하였다. 요하네스버그는 또한 세계적 합의 및 전 지구 모든 사람들간의 협력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 중요한 진전상황을 또한 확인하였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 (The Challenges we Face)

11. 우리는 빈곤퇴치, 소비 및 생산 패턴의 변화,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의 기반인 자연자원의 보호 및 관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의 전반적인 목표이며, 필수요건임을 인지한다.

12. 인류 사회를 부유층과 빈곤층으로 분리하는 깊은 단층선 및 선진국과 개도국 세계간의 증가하는 격차는 세계적 번영, 안보 및 안정에 주요 위협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지구 환경은 지속적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손실이 지속되고, 어족은 지속적으로 고갈되며, 사막화는 점차 비옥한 토지를 점유하고,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이미 분명해지고, 자연재해는 더욱 빈번하고 더욱 파괴적이며, 개도국은 점차 취약해지고, 대기, 수자원 및 해양 오염은 지속적으로 다수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있다.

14. 세계화는 이러한 도전들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하고 있다. 시장의 급속한 통합, 자본의 유동성 및 세계 투자 흐름의 현저한 증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추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개척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의 혜택 및 비용은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여 특수한 곤경에 직면한 개도국으로 인하여 불공평하게 분배되었다.

15. 우리는 이러한 세계적 불균형의 침해를 감행하며, 만약 우리가 근본적으로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세계의 빈곤층은 그들의 대표자가 단지 요란스러운 금관악기 혹은 딸랑거리는 심벌즈에 지나지 않음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여전히 전념하는 그들의 대표자 및 민주체계에 대한 신뢰를 상실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우리의 공약 (Our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16. 우리는 우리의 집합적 위력인 풍부한 다양성이 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공동목표 달성을 위한 건설적인 협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결의하였다.

17. 인류 연대감 구축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우리는 인종, 장애, 종교, 언어, 문화 및 전통에 상관없이 세계 문명 및 사람들간 대화 및 협력의 증진을 촉구한다.

18. 우리는 인간 존엄성의 불가분한 초점을 둔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를 환영하며, 식수, 공중위생, 적절한 은신처, 에너지, 보건, 식품안전 및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같은 기본적 필요에 대한 접근을 신속하게 증가시키도록 목표, 예정표 및 협력에 대한 결정문을 통해 결의하였다. 동시에 우리는 재정 자원에 대한 접근을 소유하고, 시장 개방을 통해 이익을 얻으며, 능력 배양을 보장하고, 발전을 초래하는 근대 기술을 이용하며, 기술이전, 인적자원개발, 영원한 저개발을 떨치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확산하는데 있어 서로 원조하도록 협력할 것이다.

19.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는 세계적 상황들을 퇴치하는 데에 특별히 중점을 두고 우선적인 관심을 둘 것을 재확인한다. 이러한 상황들로는: 만성적 기아; 영양실조; 해외 점령; 무력 분쟁; 불법마약 문제; 조직적 범죄; 부패; 자연재해; 불법무기밀매; 인신매매; 테러; 인종, 민족, 종교 및 기타 혐오에 대한 불관용 및 선동; 외국인 혐오증; 그리고 HIV/AIDS, 말라리아, 폐결핵 등의 풍토병, 전염병 및 만성질환 등이 있다.

20. 우리는 여성의 권한부여 및 해방과 성 평등이 아젠다 21, 밀레니엄 발전목표 및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포함된 모든 활동에 통합되도록 보장할 것을 공약한다.

21. 우리는 글로벌 사회가 수단을 소유하고 있으며, 모든 인류가 직면한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도전에 대처하도록 자원을 부여받았다는 현실을 인지한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용 가능한 자원이 인류의 이익에 이용되도록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22.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발전 목적 및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 선진국들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의 국제적으로 합의된 수준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노력하도록 촉구한다.

23. 우리는 지역협력, 개선된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 아프리카 신개발협력(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과 같은 더욱 강력한 지역 집단화 및 연맹의 등장을 환영하고 지원한다.

24. 우리는 군소 도서 개도국(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및 최빈국(Least Developed Countries)의 발전 필요성에 지속적으로 특히 유의할 것이다.

25.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토착민(indigenous people)의 극히 중대한 역할을 재확인한다.

26.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정책 공식화, 의사결정 및 모든 수준에서의 이행에 있어 장기적 전망과 광범위한 참여가 필수적임을 인지한다. 사회적 협력자로서 우리는 모든 주요 단체들 각각의 독립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존중하면서 이들 단체들과의 안정된 협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한다.

27. 우리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과 같은 민간 분야가 그들의 합법적인 활동을 추진함에 있어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및 사회의 진전에 기여할 의무가 있음에 동의한다.

28. 우리는 또한 국제노동기구 기본 원칙 및 근무 권리에 대한 선언(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고려하면서 수입을 창출하는 고용기회를 증가시키도록 지원 제공에 동의한다.

29. 우리는 민간 분야 기업들이 기업 책임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에 동의한다. 이는 투명하고 안정된 규제 환경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0. 우리는 아젠다 21, 밀레니엄 발전목표 및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모든 수준에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개선할 의무를 진다.

다자주의가 미래이다 (Multilateralism is the Future)

31.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 효율적이고, 민주적이며, 책임감 있는 국제 및 다자간 기구를 필요로 한다.

32. 우리는 UN 헌장 및 국제법의 원칙 및 목적뿐만 아니라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강화에 대한 책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하는데 최상의 위치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대표적 기구인 국제연합(United Nations)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한다.

33.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진전상황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Making it Happen to Sustainable Development))

34. 우리는 역사적인 요하네스버그 정상회의에 참가한 모든 주요 단체들 및 정부들을 수반하여, 이것이 포괄적인 과정임에 동의한다.

35. 우리는 우리의 지구를 구하고, 인간 발전을 증진하며, 전세계의 번영 및 평화를 달성하도록 공동 결정에 따라 함께 협력하여 실행할 책임이 있다.

36. 우리는 요하네스버그 이행계획에 대한 책임과 여기에 포함된 기한, 사회-경제적 및 환경적 목표의 달성을 신속하게 추진할 책임이 있다.

37. 인류의 요람인 아프리카 대륙에서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집합적 희망이 실현화되도록 결의하였음을 전세계 사람들과 지구를 상속받을 후세에 엄격하게 서약한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를 위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민과 정부의 관대한 호의 및 훌륭한 준비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표명한다.

The Johannesburg Declaration on Sustainable Development

From our Origins to the Future

1. We, the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s of the world, assembled at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Johannesburg, South Africa from 2-4 September 2002, reaffirm our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2. We commit ourselves to build a humane, equitable and caring global society cognizant of the need for human dignity for all.

3. At the beginning of this Summit, the children of the world spoke to us in a simple yet clear voice that the future belongs to them, and accordingly challenged all of us to ensure that through our actions they will inherit a world free of the indignity and indecency occasioned by poverty,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patterns of unsustainable development.

4. As part of our response to these children, who represent our collective future, all of us, coming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informed by different life experiences, are united and moved by a deeply-felt sense that we urgently need to create a new and brighter world of hope.

5. Accordingly, we assume a collective responsibility to advance and strengthen the interdependent and mutually reinforcing pillars of sustainable development ? economic development, soci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 at local,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levels.

6. From this Continent, the Cradle of Humanity we declare, through the Plan of Implementation and this Declaration, our responsibility to one another, to the greater community of life and to our children.

7. Recognizing that humankind is at a crossroad, we have united in a common resolve to make a determined effort to respond positively to the need to produce a practical and visible plan that should bring about poverty eradication and human development.

From Stockholm to Rio de Janeiro to Johannesburg

8. Thirty years ago, in Stockholm, we agreed on the urgent need to respond to the problem of environmental deterioration. Ten years ago, at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held in Rio de Janeiro, we agreed that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an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are fundamental to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the Rio Principles. To

achieve such development, we adopted the global programme, Agenda 21, and the Rio Declaration, to which we reaffirm our commitment. The Rio Summit was a significant milestone that set a new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9. Between Rio and Johannesburg the world's nations met in several major conferences under the guidance of the United Nations, including the Monterrey Conference on Finance for Development, as well as the Doha Ministerial Conference. These conferences defined for the world a comprehensive vision for the future of humanity.

10. At the Johannesburg Summit we achieved much in bringing together a rich tapestry of peoples and views in a constructive search for a common path, towards a world that respects and implements the vis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Johannesburg also confirmed that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towards achieving a global consensus and partnership amongst all the people of our planet.

The Challenges we Face

11. We recognize that poverty eradication, changing consumption and production patterns, and protect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 base for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are overarching objectives of, and essential requirem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12. The deep fault line that divides human society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ever-increasing gap between the developed and developing worlds pose a major threat to global prosperity, security and stability.

13. The global environment continues to suffer. Loss of biodiversity continues, fish stocks continue to be depleted, desertification claims more and more fertile land,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are already evident, natural disasters are more frequent and more devastating and developing countries more vulnerable, and air, water and marine pollution continue to rob millions of a decent life.

14. Globalization has added a new dimension to these challenges. The rapid integration of markets, mobility of capital and significant increases in investment flows around the world have opened new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pursuit of sustainable development. But the benefits and costs of globalization are unevenly distributed, with developing countries facing special difficulties in meeting this challenge.

15. We risk the entrenchment of these global disparities and unless we act in a manner that fundamentally changes their lives, the poor of the world may lose confidence in their representatives and the democratic systems to which we remain committed, seeing their representatives as nothing more than sounding brass or tinkling cymbals.

Our Commitment to Sustainable Development

16. We are determined to ensure that our rich diversity, which is our collective strength, will be

used for constructive partnership for change and for the achievement of the common goal of sustainable development.

17.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building human solidarity, we urge the promotion of dialogue and cooperation among the world's civilizations and peoples, irrespective of race, disabilities, religion, language, culture and tradition.

18. We welcome the Johannesburg Summit focus on the indivisibility of human dignity and are resolved through decisions on targets, timetables and partnerships to speedily increase access to basic requirements such as clean water, sanitation, adequate shelter, energy, health care, food security and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At the same time, we will work together to assist one another to have access to financial resources, benefit from the opening of markets, ensure capacity building, use modern technology to bring about development, and make sure that there is technology transfer, human resource development, education and training to banish forever underdevelopment.

19. We reaffirm our pledge to place particular focus on, and give priority attention to, the fight against the worldwide conditions that pose severe threat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our people. Among these conditions are: chronic hunger; malnutrition; foreign occupation; armed conflicts; illicit drug problems; organized crime; corruption; natural disasters; illicit arms trafficking; trafficking in persons; terrorism; intolerance and incitement to racial, ethnic, religious and other hatreds; xenophobia; and endemic, communicable and chronic diseases, in particular HIV/AIDS, malaria and tuberculosis.

20. We are committed to ensure that women's empowerment and emancipation, and gender equality are integrated in all activities encompassed within Agenda 2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the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21. We recognize the reality that global society has the means and is endowed with the resources to address the challenges of poverty eradic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nfronting all humanity. Together we will take extra steps to ensure that these available resources are used to the benefit of humanity.

22. In this regard, to contribute to the achievement of our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we urge developed countries that have not done so to make concrete efforts towards the internationally agreed levels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3. We welcome and support the emergence of stronger regional groupings and alliances, such as the 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NEPAD), to promote regional cooperation, improve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24. We shall continue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developmental needs of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and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25. We reaffirm the vital role of the indigenous peoples in sustainable development.

26. We recognize sustainable development requires a long-term perspective and broad-based participation in policy formulation,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at all levels. As social partners we will continue to work for stable partnerships with all major groups respecting the independent, important roles of each of these.

27. We agree that in pursuit of their legitimate activities the private sector, both large and small companies, have a duty to contribute to the evolution of equitable and sustainable communities and societies.

28. We also agree to provide assistance to increase income generating employment opportunities, taking into account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Declar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29. We agree that there is a need for private sector corporations to enforce corporate accountability. This should take place within a transparent and stable regulatory environment.

30. We undertake to strengthen and improve governance at all levels, for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Agenda 21,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the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Multilateralism is the Future

31. To achieve our goals of sustainable development, we need more effective, democratic and accountable international and multilateral institutions.

32.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the principles and purposes of the UN Charter and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 strengthening of multi-lateralism. We support the leadership role of the United Nations as the most universal and representative organization in the world, which is best place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33. We further commit ourselves to monitor progress at regular intervals towards the achievement of ou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objectives.

Making it Happen!

34. We are in agreement that this must be an inclusive process, involving all the major groups and governments that participated in the historic Johannesburg Summit.

35. We commit ourselves to act together, united by a common determination to save our planet, promote human development and achieve universal prosperity and peace.

36. We commit ourselves to the Johannesburg Plan of Implementation and to expedite the achievement of the time-bound,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targets contained therein.

37. From the African continent, the Cradle of Humankind, we solemnly pledge to the peoples of the world, and the generations that will surely inherit this earth, that we are determined to ensure that our collective hop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realized.

We express our deepest gratitude to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of South Africa for their generous hospitality and excellent arrangements made for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